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 나를 밝히는 나의 인생교양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 나를 밝히는 나의 인생교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01

## 교양으로 나를 점프하다



1. 사회 과학도가 만난 생명과학 | 권태진 7
2.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강은호 17
3. 자유의 가치 그러나 엄밀한 선행 조건 | 성예림 27
4. 고전 환상 문학작품의 가치와 윤리 | 강채은 34
5. 왜 좋은 물건은 비건이 아닌가요? | 이경욱 42
6. 르네상스 작품에 그려진 인간 본질의 가치 | 김고운 51
7. 자유를 찾아, 정의를 향해, 진리를 깨우치는 나의 모험과 성장 이야기 | 전예령 60
8. 교양에서 만난 공감, 인생을 바꾼 전환점 | 윤채은 71
9. 현대사회에서 나를 알고 표현한다는 것 | 박소정 80

02

## 교양으로 세상을 만나다



1. 인간의 몸에 새겨지는 사회적 아픔을 배우다 | 설재민 95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다 | 김예원 105
3. 마음 깊은 곳 '책임의 윤리'를 새기기까지 | 강민선 114
4. 내가 만난 프랑스인들 | 유소희 122
5. 교실에서의 시간여행 | 이수진 131
6. 취향으로 세상 읽기, 예술로 스포츠 읽기 | 박소연 142
7. 생물학과 철학의 창조적 접점 찾기 | 경어진 150
8.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 강현지 157

03

## 교양으로 미래를 열다



1.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보다 | 정윤주·이시은 165
2. 영화와 인문학의 네트워크 | 이지현·김기연 176
3.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열린 성찰의 자세 | 송아림 185
4. 삶의 경계를 넓히다 | 이다연·이세진 193
5. 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내 삶의 이정표 | 문채원 201

## 01



1. 사회 과학도가 만난 생명과학 | 권태진
2.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강은호
3. 자유의 가치 그러나 엄밀한 선행 조건 | 성예림
4. 고전 환상 문학작품의 가치와 윤리 | 강채은
5. 왜 좋은 물건은 비건이 아닌가요? | 이경욱
6. 르네상스 작품에 그려진 인간 본질의 가치 | 김고운
7. 자유를 찾아, 정의를 향해, 진리를 깨우치는 나의 모험과 성장 이야기 | 전예령
8. 교양에서 만난 공감, 인생을 바꾼 전환점 | 윤채은
9. 현대사회에서 나를 알고 표현한다는 것 | 박소정

# 교양으로 나를 점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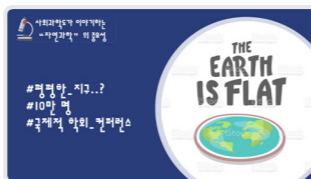




## 사회과학도가 만난 생명과학 과학이 알려준 학문과 세상, 그리고 나



⑧ **문명과 질병 강의 목표**  
- 인류 문명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전염병과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동시에 전달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전염병의 생명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생명과학 연구의 원리와 역사도 동시에 다룸으로써 현대 생명과학이 나아가는 발전 방향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과학기술과 사회,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더불어 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이미 **문명과 질병**을 잘 알고,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끔 하는 것도 본 강의의 목적이다.



**교양(Buildung)**  
정신적, 문화적으로 미숙한 개인이 '개인과 사회',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와 갈등을 인식하며, 마침내 알아야 할 사실과 지혜를 통해 성숙한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

#지혜 #행복 #보탬

인생교양 : 문명과 질병

## 사회과학도가 만난 생명과학 과학이 알려준 학문과 세상, 그리고 나

권태진 (행정학과)

지도교수 : 박돈하

### 1 “설레는 2020년 연초였다.”

여러모로 한 해가 무척 기대되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어 찍은 새 증명사진은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지만, 곧 강의실에서 만날 학과친구들에게도 썩 괜찮아 보일만큼 멋있었다. 새 옷을 사고, 기숙사에 가져갈 이불과 생필품, 전공 및 교양서적을 하나 둘 챙기고 있었다. 곧 군에 입대하는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 작별 파티를 했고, 동기들과 올해 학생회와 학회 활동을 구상했다. 올해에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김치국을 마시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즐겁고 설렜던 연초는 아쉬움, 아니 걱정과 공포로 뒤덮였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얼마 안 가 진정될 줄 알았던 감기 같은 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나는 영문도 모르게 우리 집 내 방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게 되었다.



### 2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들어보지 뭐, 문명과 질병.”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할 때, 나는 시간표에 ‘문명과 질병’ 강의를 포함시켰다. 강의 명부터 눈길이 갔다. 이 수업은 문명을 배우는 인문학 수업인가? 질병의 역사를 배우는 건가? 수업 계획서에는 여러 질병들과 생명과학 참고문헌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공-자연 단과대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부대학 박돈하 교수님의 교양강의 ‘문명과 질병’은 대학교양 중 ‘가치와 윤리’ 분야의 교양강의였다. 윤리 교양 카테고리에서 강의를 뒤지고 있던 내게, ‘왜 생명과학 강의를 여기 있어?’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의아함에 교수님께서 쓰신 수업 목표를 유심히 읽어보았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 배워야 할 사회학적, 윤리학적, 생명과학적 기본 소양을 동시에 전달하려 한다. 전염병의 생명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생명과학 연구의 원리와 역사도 동시에 다룸으로써...”

그렇다. 학부대학에서 생물학을 담당하고 계신 박돈하 교수님의 ‘문명과 질병’강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소양으로서의 생명과학을, 전염병을 매개로 학습하는 수업이었다. 그러나 나의 의아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생명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나? 내가 굳이 왜? TV에서 인문학 교양강의는 여러 번 봤어도, 생명과학 교양강의라는 건 본적이 없는 걸? 공통 좀 나오는 TV 다큐나 동물의 왕국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전공분야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과학 과목을 대학 강의에서 ‘교양’을 위해 듣는다는 것이 무척 어색하기도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락없는 문과생이었다. 수학과 과학 보다는 국어 시간에 글을 쓰고 발표를 하거나, 사회과목 시간에 다양한 화두로 토론을 하는 것을 훨씬 즐기고 잘하던 학생이었다. 국가적 어젠다를 형성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을 때, 전문적으로 국가정책과 행정을 연구하여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학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품었을 때 나의 진로와 관심사는 온통 어렸을 때부터 즐기고 잘해왔던 ‘사회과학’이었을 뿐, 자연계의 ‘생명과학’은 언제나 논외의 대상이었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을 위해 과학 교과서 속 그림과 설명들을 열심히 암기하였던 것이 전부인 나에게 사실 이 과목이 처음부터 끌렸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설레고 기대되었다. “인문사회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과학강의, “사회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과제,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바꾼 “질병의 역사와 내용”을 “생명과학 전문지식”을 도구로 공부하는 이 교양 수업은 이전에 과학에 대해 큰 흥미를 느낀 적이 없었던 나에게 어쩌면 깜짝 선물이 될 것만 같았다. 독일의 울리히 벡(Beck, U.) 교수님이 말씀하신, 안전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몰아내고, 공적으로 생산되는 안전을 소비해야 하는(김호기, 2017) ‘위험사회(risk society)’한복판에 들어섰는데, 질병을 이해하는 게 왜인지 꼭 필요한 교양이 될 것 같은 직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비대면 수업으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게 된 새 환경 속에서 이왕 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겠다는 패기도 있었다.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내가 끌고 가야 하는데, 끌리다면 안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가 생전 안 해본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다들 두고 보십시오.”

추석 연휴, 할머니 댁에서 본 KBS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콘서트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문명과 질병’ 수강신청은 ‘생전 안 해본 일’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다. ‘내 인생’이라는 말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문명과 질병’ 수강은 날 조금 많이 바꿔놓았다.

### 3 “큰일 났다. 진짜 생명과학이다.”

정말 생명과학 강의였다. 시작이 조금 버거웠다. 교수님의 강의는 수업 교재가 특별히 없는 수업이었다. 교수님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명과학 도서면 무엇이든 참고하라’라며 귀뜸해주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학 도서는 동생 때문에 안 버리고 놔둔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가 전부였다. 또, 교수님의 교안은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었다. 예전에 들어봤음직한 생명과학 용어는 물론이고 생전 처음 듣는 전문 용어와 설명마저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었기에, 비대면 수업 필기 때마다 나는 영어사전과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5색의 수성 싸인펜을 총동원하여 영문 필기와 한글로 번역한 개념어를 반복해 적고 익혀야 했다.

그러나 그 버거움은 결코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진진했다. 수업의 내용은 시사와 역사, 문화와 종교, 과학과 도덕을 넘나드는 융합의 장이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다. 교수님께서 거제와 통영에서 콜레라(Cholera) 환자가 발생했다는 2016년 기사를 보여주셨다. 그때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콜레라는 공공위생과 개인위생이 보장된 현대사회에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범세계적 유행병(pandemic disease)이었습니다. 증상도 무서워서 엄청난 탈수로 인해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가 신체의 쓰라림 속에서 신체가 경직되어 죽어요. 2016년. 아이티에 허리케인이 불어 닥쳤을 때도 허리케인보다 콜레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지요.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콜레라가 물에 악의 기운(miasma)이 깃들어서 퍼진다고 믿었어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스노우(Snow, J) 박사도 그렇게 생각했죠. 다만 스노우는 여러분이 요즘 잘 아는 ‘역학조사’를 처음 실시해서 런던의 콜레라를 통제하고 수도 펌프시설을 정비했죠. 런던에 가면, 스노우 박사가 처음으로 콜레라 역학조사를 시작한 펌프 위치에 기념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19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새로운 질병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인문사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교수님께서 풀어놓아 주셨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생명과학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제시해주셨다. 위의 콜레라의 경우에서는, 콜레라의 원인이 되는 물을 이해하기 위해 물(H<sub>2</sub>O)의 구조와 과학적 성질을 공부해야 했다. 물이 신체의 세포막을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택적 투과, 확산, 삼투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를 그림과 영상으로 함께 익혔다.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두고, 효소에 의해 ATP와 단백질 간의 인산기 교환으로 소듐이온과 포타슘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세포의 드라마 같은 역동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수업에 푹 빠져 지식을 쫓다보면, 어느새 콜레라 증상이 콜레라 세균(Vibrio Cholerae)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생명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다시 걱정이 들었다. 배울 때는 재미있고, 강의시간에 나오는 개념들이 하나 둘, 원리를 셋 넷 알아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시험을 볼까하는 걱정 말이다. 1학기가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방침이 확정되자, 박돈하 교수님은 일종의 선언을 하셨다.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아십니까. 그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학생들은 그 이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기말고사는 치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 수업이 끝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해 업로드 하십시오.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방침은 하루하루 강의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그날 배운 강의의 핵심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하루의 수업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것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과정을 요구했다. 나의 어머니와 중학교 동생은 내가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며, 동시에 내가 배운 내용을 복기시켜주는 또 다른 학습자가 되어 나의 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후성유전(Epigenetics)을 배운 날 어머니와 동생에게 설명하는 수업복습은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로마 광장에서 젤라토를 먹던’ 세기의 여인 헵번이 예수님 남짓을 넘겼을 때 암으로 사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유년기를 쫓아야 했다. 그녀가 16살,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어머니의 나라 네덜란드에 피신해 가 있을 때, 나치가 벌였던 네덜란드 식량공급 차단은 1944년-1945년 사이 네덜란드 대기근(The Dutch Famine)을 일으켰는데, 이 때 헵번도 톨립 구근 따위를 먹으며 버텼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헵번뿐 아니라 450만의 네덜란드 인들이 기근을 겪었는데 이들은 모계를 통해 그 아래 4대까지, 기근 시기 생긴 각종 만성질환을 후대에 물려주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히스톤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DNA에 기타 물질이 잘못 결합하여 발생하는 후성 유전의 과학적 원리를 복기하며 복습을 마칠 수 있었다.

유태인들이 종교경전을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전통적 공부법인 ‘하브루타 토론’은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고, 이를 통해 진리를 찾아나가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브루타 토론은 경청과 재확인, 반문, 지지, 도전하기를 반복하면서 합리적인 의서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능력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을 이룬다고 평가받는다(조은영, 2019). 비록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만나 설명과 질문을 반복할 수는 없었지만, 박돈하 교수님께서 내신,

배운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 정리하라는 과제는 도리어 가족들과 교양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하브루타의 공간을 창출해주었다.

비판적 사고와 분석능력의 함양은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와도 연결되었다. 4월 초였다. 액상과당(corn syrup)이 유발하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이 시작된 날이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이러한 액상과당이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모유를 대체하기 위한 아기들의 식사, 분유가 액상과당을 과도히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설상가상이었을까? 세계적으로 분유산업에 대해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국제결의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니,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어 보였다. 교수님은 이렇듯 우리 사회 속, 건강제품의 이면에 숨어있는 잘못된 화학물질의 사용 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참여형 사회 기어 교과’ 과제 보고서를 요구하셨다. 보고서 준비기간은 무려 두 달이었다. 자유로운 탐구와 분석이 있는 하브루타의 두 달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Orwell, G. 『Animal Farm』, 1945).”

어렸을 적,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었을 때는 위 문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다. 조지 오웰이 소설 속 돼지들을 통해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임을, 그리고 그 권력의 독점과 남용이 민중을 위한 이상적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소설을 통해 비판했다는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었다.

권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동물농장』 속 돼지들에게 ‘more equal’함을 부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이 담론(discourse)을 통해 작동하여 대중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Giddens, A, 2017). 푸코에 따르면,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 확립하고 향유하는 전문적 담론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제한하면서, 권력이 지식과 밀접히 연관을 갖고 서로를 강화시킨다. 즉 푸코는 특정한 직위와 조직에서의 권력 이전에, 일상 속에서 상존하는 전문적인 지식들과 특정한 집단이 향유하는 정보, 그를 통한 담론이 권력을 형성한다고 보았던 셈이다.

정보가 바다를 이루고 있는 현대의 삶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유·무형의 산물들을 수없이 이용하는 우리에게 푸코의 지적은 중요한 함의를 전달해준다. 즉, 일상 속 정보와 전문 지식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대사회의 특정 분야와 담론만이 독점하는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특정 담론과의 관계에 있어 피지배적인, 순종적인, 무비판적인 위치에 무방비하게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교수님께서 액상과당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러려니 했던 것이 내 첫 모습이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에서였다. 나는 단 것을 무척 좋아한다. 오렌지 주스와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초콜릿을 가공한 간식 등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다. 물론 그 간식들에 설탕을 대용하여 액상과당이 이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랬다. 각자 알아서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액상과당의 함유가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하지만 나의 생각은 매우 안일한 것이었다. 어릴 적 내가 먹었고, 아주 어린 내 조카가 먹고 있으며, 먼 훗날의 나의 아들과 딸들이 먹게 될 수많은 분유들에 액상과당이 남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실은, 푸코가 지적인 ‘지식적 담론에 의한 권력’에 의해, ‘누군가들에게만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의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 테니 말이다. 교수님께서 분유 속 액상과당을 지적한 것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일상 속 건강 제품들을 분석하는 과제는 ‘각자 알아서 대처’하면 해결되는 사소한 문제들을 단지 시험을 대체하고자 탐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의의 이름과 내용처럼, 과학적 지식이 대단히 사회적이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 비판하는 역량을 이변 기회를 통해서 기르길 바라셨던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두 달 동안 ‘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의 담론’이 만든 권력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많이 힘들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따라 마트에 가서 홀로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간식거리, 화장품 등을 뒤지며 구성성분들을 읽어보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각각의 상품 광고들을 살펴며 각각의 상품들이 홍보하는 상품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집에서 논문과 인터넷 글을 수집하며 각각의 성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의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착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21살 남자가 큰 기업들이 만든 상품 홍보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형성하는 것은 조금은 버거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 있었다. 원재료와 1일 권장 섭취량, 1일 영양 섭취 기준, 구성성분 명 등을 과학 지식으로서 공부하고 분석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이는 나에게 여러 지점의 교훈을 주었다. 가장 직관적인 교훈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었다. “현명하면 현명할수록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보고서를 위해 찾아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공전, 보건복지부 및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영양소 섭취 기준 등은 일상의 기본 중 기본인 먹는다는 행위를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지식들이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면, 건강식품에 이용되는 성분들을 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른 차원의 교훈은 보다 거시적인 것이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웰빙’,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통한 행복추구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2000년대 이후 건강

히 사는 법,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등이 사회적으로 함께 추구할만한 문화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건강과 그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대단히 사회적인 이슈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담론과 지식 또한 대단히 사회적이어야만 한다. 보고서를 준비하며 탐구한 저주파 운동기구, 건강 시리얼, 아동용 영양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등의 구성성분은 그 홍보 광고와 때로는 매우 큰 괴리가 있거나, 광고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섭취하면 더욱 해롭거나, 광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면의 부작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제대로 공론화 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이 보다 기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나에게, 생명과학은 더 이상 고리타분하고 심심한 분야가 아니라, 고도화된 정보와 산물들 속에서 사회적 안전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하고, 분석해야 할 분야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과학에 의한 담론의 권력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사유하는 경험을 과제 보고서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박돈하 교수님의 모든 강의 주제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담론을 독점해 잘못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과 세상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에 역점이 달려 있었던 듯하다. 어느 날은 교수님께서 제임스 왓슨(Watson, James. D.)에 대해 설명하신 적이 있었다. 코로나19 검사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는 그 원리상 극소량으로 추출한 DNA를 합성을 통해 증폭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물학의 핵심적 개념인 DNA를 공부해야만 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다.’라는 내용은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외웠던 개념이고, 그것을 왓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왓슨에 대한 내용은 그 지점이 아니었다.

“왓슨과 크릭은 사실 시료보관능력이나 순수분리 등에 있어 실력이 부족한 연구원이었습니다.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보인 X-ray 회절 실험 결과인 ‘Photo 51’은 사실 여성 과학자 프랭클린(Franklin, R.)의 성과예요. 여성 과학자가 연구를 하기 척박한 그 시절, 왓슨은 프랭클린의 사진을 도용하다시피 그들의 논문에 가져다 썼고, 그걸로 영광을 독차지해버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DNA의 구조를 밝혀냈다는 명성으로 왓슨은 미국 생명과학계의 권력을 좌지우지했으면서도, 대단히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독선적이었고, 나중에는 과학계에서도 퇴출되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공로로 받은 노벨상 메달을 생계자금을 만들겠다고 경매에 내놓는 품위 없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몰가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 창출한 DNA 담론의 권력을 오랜 시간 향유했던 왓슨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몰가치적으로 동경하거

나, 그의 서적을 구입하거나, 또는 자연과학계의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비판적 사고와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 5 “교양으로서의 과학에 몰지각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달았다.”

박돈하 교수님의 여러 강의 주제로, 질병과 과학 앞에서 수없이 탐욕적이거나 무지한 역사 속 인물들을 수 없이 만날 수 있었다. 혈우병을 앓는 왕자를 이단 종교인 라스푸틴에게 맡긴 러시아 황가에서는 무지가 어떻게 한 가정과 한 나라에 비극을 몰고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만약 러시아 황가가 혈우병에 대한 유전학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수없이 상상하며, 과학과 세상에 대해 고찰해봤다. 그가 정확한 유전학적 지식을 배울 수 없었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단 종교인 라스푸틴보다 당시의 의학자들과 그들의 전문적 처방에 의존하면서 국정에 몰입했다라면, 이단 종교보다 어쩌면 더 과학에 신뢰를 주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정과 국가 모두에서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나는 과학에 무지하거나 과학을 불신하는 것이 21세기 현재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를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플랫 어스(Flat Earth :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NASA와 미국 정부 등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짓말을 유포하며 권력을 획책한다면, 지구는 사실 평평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들을 공유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이들의 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10만 명 이상의 국제적 학회와 국제컨퍼런스를 조직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구본권, 2020.02.24.). 문제는 이들의 확산으로 과학과 상식에 대한 불신이 반지성주의로 퍼져 개인의 삶을 망가트리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례도 있었다. 기후과학자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아주 신뢰하는 미국인은 39%에 불과하며, 특히 미국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는 그 비율이 15%까지 떨어진다(조운성, 2020.07.29.). 이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였고, 그 이후에도 기후변화를 불신하는 발언은 물론,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도 소홀하였다. 하지만 올해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이형민, 2020.09.07.). 무언가 착잡해졌다.

2020년 한국에서도 과학을, 특히 생명과학에 대한 불신이 일으킨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맞닥트리고 있었다.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한 일부 개신교 신도들과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과 권고를 거부한 체 정권을 규탄하는 종교모임과 대규모 시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였다.

“아외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고의적으로 늘리

고 있다. 보수우파를 탄압하고자 무더기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된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부의 방역 지침,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던 종교, 정치단체들은 집회 참가자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현장 대규모 집회를 감행하였다(강나현, 2020.08.24.). 그 결과 교회에서 집단 모임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율이 31%에 달하였고(신재우, 2020.09.01.) 이들의 무모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특히 검사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밀착접촉자들은 8-9월 코로나19 방역을 다시 금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연 초 수강신청을 하기 직전 들었던 그 생각, 생명과학, 아니 자연과학 자체를 굳이 교양으로 익혀야 할까라는 그 생각이 집단적 무지와 불신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자연과학이 갖는 의미는 그저 책속에만 나오는 신기한 그림들과 따분해 보이는 숫자들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과학’은 매우 ‘사회과학적’ 파급력을 가진 인간의 필수교양이었음을 나는 강의시간과 강의에서 배운 시야를 바탕으로 깊게 새길 수 있었다.

## b “교양(敎養)을 지칭하는 독일어는 Bildung, ‘형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독일에서 ‘교양’에 대한 개념은 계몽주의를 거치며 고도화되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개인이 개인과 사회,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와 갈등을 인식하며, 마침내 알아야 할 사실과 지혜를 통해 성숙한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을 근대 독일은 교양이라고 일컬었다(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내가 ‘문명과 질병’ 강의를 교양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토대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여타 강의처럼 특정한 영역의 강의를 이수해야했고, 비대면 수업의 상황 속에서 나를 흥미로운 주제라는 이유가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무심코 선택했던 강의가 ‘교양’을 갖춘 시민으로 나를 성장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자를 꿈꾸는 나에게 자연과학의 지식과 그것에 반응한 인간과 세상을 공부한 경험은 학문을 대하는 편견 없는 자세는 물론, 우리의 일상 속에 탐구와 학문이 이미 녹아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바라볼 때 더욱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논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금새 다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 이제 21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른의 의미를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어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을 공부하고 성찰하며 자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배우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과정을 우리는 ‘교양’

이라고 지칭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21년 밖에 안 된 짧은 인생이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박돈하 교수님의 ‘문명과 질병’ 강의를 인생 최고의 교양강의라고 고를 수 있었다. 교수님의 수업으로 나는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교양’을 쌓아가야 하는지 조금은 명확해졌기에, 그래서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목표는 확실하다. “성실히 공부하여 지혜롭고, 행복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 ‘문명과 질병’강의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은 저 멀리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변함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나현. (2020.08.24.). 신도들에 집회 참가 독려한 장로들...교회별 ‘목표치’도.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6098](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6098)
- 구본권. (2020.02.24.). ‘평평한 지구’ 증명나선 비행사 결국 사망,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29435.html>
- 김호기. (2017). 세상을 뒤튼튼 사상 : 현대의 고전을 읽는다, 메디치미디어.
-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교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619&cid=60657&categoryId=60657>
- 신재우. (2020.09.01.).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중복’관련자의 31% 코로나19 감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168200530?input=1195m>
- 이형미. (2020.09.07.). “기후변화 부정한다면 캘리포니아 보라”...LA 49.4도, 최악의 산불,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86217&code=61131111&cp=nv>
- 조은영, 이신동. (2019). 하브루타 토론이 영재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1), 173-203.
- Orwell. G. (1945). Animal Farm, Secker and Warburg.
- Giddens. A., Sutton. P. W. (2017). Sociology 8th edition, Polity Press Ltd., Cambridge.

##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여성학 교양과목

강은호 (생명과학과)

### 1 ‘강남역 살인사건’과 ‘82년생 김지영’

2016년 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페미니즘 열풍이 불고 페미니즘 관련 담론이 이야기되고 있을 때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론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다뤄진 이 사건은 살인범이 공용화장실에서 숨어 7명의 남성을 넘기고 처음으로 들어온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보도 이후 이 사건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으로 추모를 하는 행동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여성 표적 살인 사건에 공감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러한 이슈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이 사건을 두고 남녀 간 온도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남성처럼 이 살인 사건에 공감을 하지 못한 채 가볍게 생각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여성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여성혐오 범죄라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왜 하필 남성이 아닌 여성이 표적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살인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여성학 지식과 페미니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2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라는 주인공 김지영의 말처럼, 작가 조남주는 소설 속 김지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적인 사건들을 잘 엮어내었습니다. 이 책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여성들은 책의 내용에 대한 많은 공감을 보여준 반면에 남성들은 내용이 너무 작위적이다, 서사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책을 저평가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여성들의 공감까지 무시하는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성의 입장에서 이 책을 바라보았는데, 책에서 묘사하는 남성의 모습에 떳떳하지 못했고 그 반발심에 여성들의 공감까지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나서 왜 남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여성과 남성 간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지, 단편적으로 본 젠더 갈등의 사회현상을 여성학을 공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보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젠더 갈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여성학을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의 수강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그때 배웠던 내용은 지금 젠더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에세이를 통해 제가 여성학과 페미니즘을 어떻게 배우고 삶에 적용했는지 알아보고 젠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수강한 여성학 교양과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2 교양 수업으로 배운 여성학

저희 학교에는 여성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여성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여학생회의 노력으로 포항여성회의 금박은주 회장님을 초빙해 2018년 1학기에 여성학 강의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님은 현재 방송작가를 본업으로 하시면서 여성학을 전공해, 보수적인 포항지역에서 다양한 여성 운동을 전개하시고 있고 지속가능한 포항여성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여성회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8년부터 포항여성회의 회장을 맡으시면서 포항 지역에서 일어나는 혐오 문제에 대표로서 맞서 싸웠는데 한 예시로는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처분 사태의 피해자와 연대해 한동대를 규탄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힘을 써왔습니다.

금박은주 회장님이 진행하신 여성학 수업은 ‘페미니즘의 역사를 통해 현시점에서 페미니즘이 가진 의의를 고찰하고 젠더 감수성을 함양해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별첨1) 젠더와 사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젠더와 사회는 국내의 15명의 연구자들이 한국 상황에 맞추어 집필한 젠더 연구서로, 여성학 수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부: ‘성별화된 사회와 젠더 체계’, 2부: ‘젠더와 일상’, 3부: ‘젠더를 넘어서 성평등으로’ 총 세 부로 이루어져 있고 세부적으로는 1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성학에 대해 배

웠고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스크랩 해온 페미니즘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가지고 페미니즘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가진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 하며 조금씩 생각을 넓혀갔습니다. 중간에 성매매 관련한 부분에서는 대구 여성 인권센터의 신박진영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셨고 마지막에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제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보고 결과를 발표함으로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2 인상 깊었던 수업내용과 배웠던 점

저는 수업을 듣기 전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뤄진 미투운동과 같은 자극적인 이슈들로만 페미니즘을 접했기에 페미니즘을 젠더 간의 분쟁 위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다보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주류의식을 가진 기존 남성의 사고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하려 해서 반발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학 수업을 통해 페미니즘을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저는 페미니즘이 갑자기 생겨난 사상이 아닌 근대화를 따라 생겨난 여성의 인권 투쟁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남녀 간 차별적인 양상을 연구자들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문제가 있다’에서 ‘페미니즘은 필요한 사상이다’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더 이상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던 젠더 갈등의 자극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 현상의 본질적인 차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했었고 연대를 했는지 수업을 통해 이해를 하고, 그동안의 차별적인 사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있었던 성매매 관련 특강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문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안부 문제를 다룰 정도로 역사가 깊었습니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부터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남성들을 보면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에게는 분노를 표출하지만 정작 유흥업소를 다니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침묵 합니다. 마치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 남성들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았던 것이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특강을 진행하신 대구 여성 인권센터의 신박진영 대표님은 경북 지역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경험한 내용을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 강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0년 포항 성매매 여성이 연속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부터 나흘간

포항 지역 유흥업소 직원 4명이 연속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도 2달에 한번 꼴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괴담 같은 포항 지역 성매매 여성은 왜 자살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이 많은 돈을 버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돈이 성매매 여성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주인에게 빌린 선불금과 높은 이자 갚기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높은 이자로 빌렸던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를 갚기 위해 계속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으니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끼리 연대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빚이 이전되어 공동자살로 내몰리고, 결국 이들은 아무리 일을 하여도 선불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결국 공동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대비용 명목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이 돈은 성매매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이고, 이 구조는 포항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유흥업소에 해당하는 불행한 악순환인 것입니다. 신박진영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성매매의 표면적인 부분만이 아닌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과연 단순히 옹호하고 반대하는 것이 충분한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학 수업에서 페미니즘을 새롭게 실천하는 활동을 팀 프로젝트도 인상 깊었는데, 저희 팀은 우리말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표현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혐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어떠한 언어가 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지 살펴보았고, 과거 여성혐오적인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생성된 표현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5가지의 주제로 성차별적인 표현들을 조사하고 각각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표현,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표현, 비속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표현, 사자성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표현, 속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조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로 성차별적인 신조어 중 '맘충'은 정작 남성들은 육아를 하지 않으면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비하하는 단어이고 속담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이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소책자로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들의 발표 내용도 들으면서 다른 팀들의 페미니즘을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새롭게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3 단순한 교양 과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여성학

저희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과 교양 과목을 배우고 있지만 각 과목들에서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이 차별적인 시각에서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합리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뇌 영상 연구 분야를 언급하면서 좌뇌와 우뇌에 기능적 차이를 가지고 남성은 이성적인 우뇌가 지배하고 여성은 감성적인 좌뇌가 지배하고 있어서 서로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수학 등의 성취도 분석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찾을 수 없고 뇌 영상에서도 성별 간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녀 간 뇌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고, 이는 연구자들이 이미 사회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고 해석함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물학에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인위적인 해석을 하여 성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진들이 펭귄 그룹에서 암컷펭귄의 매춘 현상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암컷펭귄이 자기 짝이 아닌 펭귄과 성교를 함으로 동지를 만드는데 필요하지만 희귀한 자갈을 수컷펭귄권으로부터 얻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 내용이 당시 기사화되면서 단순히 펭귄의 어떤 습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펭귄 사회도 매춘이 성행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동물의 습성이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함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펭귄의 매춘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을 인간의 매춘이라는 사회적인 사실을 정당화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펭귄의 특성으로 매춘이라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사실을 가지고 다시 인간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환적인 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자연적 사실을 사회적으로 해석한 것은 숨겨지게 되고 결국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학을 이용해 사회적인 현상을 자연스럽고 현상이라고 결론지어지게 됩니다. 자연적 사실의 해석이 결국 사회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과학이 중립적이지 않고 이미 성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하여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성학을 인생교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논의가 모든 사람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학의 내용을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젠더 권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페미니즘 문제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성학을 배워서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과학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차별적인 점에 유의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변

할 수 있는 해석과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학 교과목은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 교양이 되고 보편적인 교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것을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제가 페미니즘을 배우고 나서 생긴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알지 못했다면 지나쳤을 일상을 페미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회에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도 있지만, 사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문학 소양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되돌아볼 때 저는 아직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확인할 수 있고 차별적인 사고를 하던 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양재역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변화가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곳곳과 버스정류장과 옥외 광고판에서 볼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와 강남대로 곳곳에 보이는 성형외과들이 그 차이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곳에 성형외과들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 광고의 양도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성형광고의 모델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 광고 문구도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성형외과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성형외과 시술의 대상은 성별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받아들이기엔 여성학 교양에서 배웠던 페미니즘 적인 관점이 작동한 것입니다. 왜 여성만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광고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일까요?

분명 예전에 저는 학교에서 외모지상주의는 지양해야 하는 생각이라고 배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모습 보다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모도 능력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외면을 돈을 쓰며 치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외적으로 변하고 싶은 지원자를 선정해 전신 성형수술을 지원해주던 프로그램으로 여러 시즌이 방영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외적으로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에게 전신 수술을 제공해서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포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공감을 했을지 거부감이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포맷에 방송이 제작되는 과도기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에 대한 수요는 고등학생까지 확장 되어서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실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적인 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외적인 강박을 가지고 모두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성에게만 이러한 외적인 강박이 강요받고 있다면 왜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생겨났는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외적인 강요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끊임없이 연예인의 여성의 외모를 비교하고 품평하는 문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품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남성이 여성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교해나가는 문화가 생기면서 여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억압을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꾸미는 활동과 성형 수요도 커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학 수업은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더욱 많은 사람이 여성학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되새겨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화는 변할 수 있고, 억압을 받는 문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에세이를 쓰다가 카카오톡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주부를 타겟으로 하는 다이어트 광고로 클릭하니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성’인 주부를 타겟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한 것일까요? 단순히 주부들의 다이어트 수요가 많아 이러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적용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만율이 높아서 여성을 타겟으로 다이어트 광고를 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조사를 찾아보니 바로 기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 1천395만 명의 비만율은 33.55%이었습니다. 그중 남자는 41.29%, 여자는 23.74%로 남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의 거의 2배에 달해 단순히 비만을 기준으로 타겟을 정한다면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여성을 타겟으로 광고를 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페미니즘 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을 타겟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외적인 부족함을 꾸준히 인지당하며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사회적으로 강요를 받고 광고를 통해서 이런 이상적인 기준에 대한 강

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이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여성을 여성다움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정신을 다이어트 등으로 돌리고 사회가 정한 여성다움에 맞춰지도록 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몸을 통해 구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 위계구조를 만들고 여성을 아래에 두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 수단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와 같은 개인적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 6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말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수업에서 배우며 가지게 된 저만의 페미니즘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보면 여성 인권은 남성 인권과 다름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의 사회는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인식의 확산을 통해 서로 다름이 있는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동일하게 맞추어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페미니즘은 여성들만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차이를 인식하고 원상복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남성들이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성에 비해 부족한 일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외에 자신이 가진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 하며 여성혐오를 행하려 하기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페미니즘운동을 접했을 때 제 기존의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그때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성을 교육시켜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경우 여성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달으면 페미니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르더라도 각각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방면에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모든 방면에서 남성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남성들도 자신의 사고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인식을 하고 성찰을 통해 사고방식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기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의 사고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여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완전히 '그럴 수 있지'로 사고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사회로부터 그동안 주입받은 남성 중심 문화의 영향력 아직 제 안에서 크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사례를 접하고 공감을 하다보면 사회도 바뀔 것이고 제 무의식적인 남성중심의 사고도 그에 따라 개선을 하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대법 “심신미약 고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45>
- 강남 공용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 추모 움직임 확산,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81452001&code=940100#csidx5791e4a49ce06088cfa88f17c3eac6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81452001&code=940100#csidx5791e4a49ce06088cfa88f17c3eac6e)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165p
- 011: 포항을 페미니즘으로 물들이다, 회장 금박은주 인터뷰 (페미회로xPOSTECH총여학생회), 페미회로, <https://femicircuit.wordpress.com/2019/04/28/011-%ED%8F%AC%ED%95%AD%EC%9D%84-%ED%8E%98%EB%AF%B8%EB%8B%88%EC%A6%98%EC%9C%BC%EB%A1%9C-%EB%AC%BC%EB%93%A4%EC%9D%B4%EB%8B%A4-%ED%9A%8C%EC%9E%A5-%EA%B8%88%EB%B0%95%EC%9D%80%EC%A3%BC-%EC%9D%B8/>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동녘, 7-9p
- ‘포항괴담’...그곳 유혈업소 직원들은 왜 연쇄자살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555.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555.html)
- Jürg Wassmann 외 3명, The Cognitive Context of Cognitive Anthropology
- F. M. Hunter and L. S. Davis, Female Adélie Penguins Acquire Nest Material from Extrapair Males after Engaging in Extrapair Copulations, The Auk, Vol. 115, No. 2 (Apr., 1998), pp. 526-528
- [뉴스속의 과학] “핑퐁 사회에도 매춘 성행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3/11/1998031170256.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3/11/1998031170256.html)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동녘, 151-153p
- 성인 남자 비만율 41%...30대는 100명 중 7명 ‘고도비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9155200017>

# 자유 가치, 그러나 엄밀한 선행 조건

## - ‘해악의 원리’로 함께 나아가는 대화

성예림 (철학과)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자유’, 한 단어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는 표상.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기. ‘고전 속의 자유’는 150년 전 쓰인 고전을 통해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지나오며 그토록 염원하던 자유를 얻고 난 후 현재, 우리가 자유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고민하게 합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 영혼에 대한 지배, 토론의 자유, 국가의 간섭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자유주의 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의 뿌리가 되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가치와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고전 속의 자유’는 이 모든 것이 담긴 밀의 저서 『자유론』을 주 교재로 합니다. 이와 함께 테일러의 공동체 주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마르쿠제의 비판 이론, 페터의 공화주의 등 다른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논쟁적 ‘대화’가 주된 강의 내용이자 목표였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수강한 프레시맨세미나와 학술적 글쓰기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학부대학 박정하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조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글쓰기 과제 및 논리성 검토 위주의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님의 교수법으로 ‘고전 속의 자유’ 수강 전후 저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 2 수강 동기

‘대학에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말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자유로운 통금 시간, 원활한 교우 관계만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설렸습니다. 수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지금보다 더 내 생각을 거침없이 펼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민감한 주제를 꺼냈다가는 이상한 아이로 여겨지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조별 과제를 할 때에도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면 귀찮은 일을 하나 더 얻는 조원으로 무시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면 과제도 무난하고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게 될 일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내지 않는 만큼 보장되는 인간관계와 주어지는 자유 시간은 점점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별 과제나 강의에서만만이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적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꺼내길 꺼려하는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학년 때에 처음 철학과 학회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단지 친한 친구와 같이 책을 읽어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로 정해진 분량만큼의 철학 고전을 읽고 발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데에만 익숙하였습니다. 많은 고전들을 접하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긴 하였지만, 자유토의 시간에는 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수험 공부하듯이 외우기에만 급했지, 스스로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고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여 이야기 나눌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유롭게 책을 읽는 활동이 좋았습니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막연하고 환상적이기만 했던 '자유', 그것이 제가 대학에서 누리게 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제게 남은 것은 온통 남의 생각들뿐이었습니다.

생각의 장을 넓히려고 들어온 대학에서 나의 생각이 일방적인 대화와 남의 생각으로 대체되기만 하더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를 통해 내 생각을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 고전을 읽는 교양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 '자유'라는 키워드에 끌려 '고전 속의 자유'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되었고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자유의 무게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징

이 수업은 수강생 모두가 수업 시간에 『자유론』을 교수님과 함께 읽으며 각 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철학자들의 저서를 『자유론』의 각 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 발표하는 조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밀과 다른 철학자 사이의 공통되는 의견과 대비되는 관점을 정리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독서 평가와 세 차례의 개별 에세이 작성 과제 및 교수님의 피드백, 찬반 토론이 수업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쩌면 선뜻 말하기 꺼려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토론하는 점이었습니다. 찬반 토론은 수업 중 즉석에서 찬성과 반대를 나눠 진행되었는데, 토론의 주제는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그 선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였습니다. 찬반 토론 수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청원이 한창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sup>1)</sup>

수강생들은 이를 주 소재로 토론을 이어 나갔고 교수님께서는 사회자로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가시며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이슈를 다루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오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주제나 키워드를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대학에 들어와 누리게 된 자유를 만끽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에 편승하며 편한 이야기만 떠들고 다른 학우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왔는데, 이 토론에서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평소 속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을 천천히 펼쳐내어 보았습니다. 만일 밀이었다면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폐쇄를 표현의 자유의 목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행동까지 일삼는 해악의 원리에 위배되는 집단으로 보고 사이트 폐쇄를 국가의 적절한 간섭이라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교수님께서는 저를 포함하여 쭈뼛대며 말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서 우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씩 자신의 의견을 내며 활발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내 의견이 목살당할 것이라는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펼쳐지는 나의 생각과 이를 경청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학우들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머릿속의 생각들을 후련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펼친 우리들의 생각이 교수님께서 부연하시는 『자유론』의 내용과도 연관 지어지니, 더 이상 고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논쟁적 대화는 더 이상 꺼려하고 거부할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의 방법으로 제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 문제를 단순한 이슈로만 다루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고전 속의 자유'에서 경험한 주체적인 사유이자 다른 사유 주체인 학우들과의 열띤 소통이었습니다.

1) 「'일간베스트' 폐쇄 논란... '사회적 해악' vs '표현의 자유'」, 『독서신문』, 2018.04.04.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52> (2020.11.02.)>

#### 4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이 과목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게 ‘인생교양’인 이유는 남은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길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둔감했던 저에게 여러 사회적 쟁점 또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전 속의 자유’는 이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용기까지 제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선 대학 수업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통 능력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주어진 첫 번째와 세 번째 개별 에세이 과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수업에서 배운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 현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각 학생마다 부족한 점들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철학과로서 논리적인 글쓰기에 자신 있다고 자만한 저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강한 주장과 표현에 비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전 글의 총체적인 구성을 계획하는 연습을 통해서 세 번째 동일한 과제에서는 보다 사회적·제도적 논의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소재를 선정, 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고 이를 먼저 제시하며 재반박하는 구조의 글을 써내려가는 등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에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는 수업 시간에 『자유론』을 읽으며 키워던 분석적 읽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불안한 현대사회’의 저자인 테일러의 입장에서 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타인에 이입하면서도 그의 견지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파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먼저 밀과 대비되는 테일러의 핵심 주장은 공동체적 가치임에 집중하였습니다.<sup>2)</sup>

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밀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측면보다 개인주의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임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학술 체험이 가능하였고, 조별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도 협력 학습 및 토론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 모든 수업 및 과제 활동에는 사회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이해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사회적·정치적 자유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 사회 속 문제 또는 문화현상을 인식하고, 고전

에서 얻은 지식들을 새롭게 응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검토한 후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 모두가 수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서적, 철학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견지를 세우며 새로운 입장 및 주체적 사고와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시선도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졌던 수동적인 이해 태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 ‘고전 속의 자유.’ 이렇게 학술적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교양 수업은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 5 성장 스토리

입학 당시에는 ‘자유’란 내가 사회 속 복잡한 문제들에는 관심을 끄고, ‘나’ 혼자만의 안위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는 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간의 대화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외부 사회와 완벽히 고립된 채 사는 은자(隱者)까지도 테일러는 대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sup>3)</sup> 이처럼 타인들과의 연대·연결을 외면한 채 자기실현만을 도모하려는 인생 태도는 자기 파괴적이라는 주장에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에 입각해서 『자유론』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해악의 원리’<sup>4)</sup>는 곧,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이해 태도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등 주체적인 이해와 사유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확립시키게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인 대학에서 개인주의 대신, 타인을 필연적으로 나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지평으로 삼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당당한 제기와 논의에 앞장서는 학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타 학회원들에게 인정을 받아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기부터 1년간 학회장을 맡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동체 의식과 철학적 논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철학 기행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교내 코어사업단의 우수 학회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유란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남을 도우는 데에서

3) Ibid., 52쪽.

4)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역, 책세상, 2017, 32쪽.

2)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역, 이학사, 2001, 67쪽.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후로는 학회만이 아니라 과 학생회, 문과대 학생회로 활동하면서 학우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출판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고전 속의 자유’는 학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저의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게 인생 과업 하나를 남겨 주었습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에 대해 이야기합니다.<sup>5)</sup> 여기에서의 다수는 공권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내에서의 관습이나 여론까지 포괄합니다. 밀이 경고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횡포보다는 여론에 의한 통제입니다. 만일 여론에 의해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통제받는 것은 곧 개별성(individuality)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혼의 통제로까지 이어집니다.<sup>6)</sup> 강의 중 이루어졌던 토론의 연장선으로서 요즈음 이 주제에 관해 고민해보고는 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 생각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남도 또한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학회 등 오프라인에서는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의 소통 현장을 보고 있으면 현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생활만큼이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공간은 인터넷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이어주면서, 끊임없는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익명제까지 도입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충실히 보장되는 만큼 사람들 간의 대화와 의견의 표출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현재 우리는 남용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낱선 글들과 심지어는 직접 마주친 적도 없는 타인에 대한 비방,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또는 댓글의 추천·비추천 기능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로 이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수의 의견은 비방 받거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수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은 묵살한 채 다수의 여론만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 말 것입니다.<sup>7)</sup>

5) Ibid., 24쪽.

6) Ibid., 25쪽.

7) Ibid., 103쪽.

결국 의견의 영향력을 저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를 수 있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만 자유가 보장되며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고전 속의 자유’를 통해 연습한 대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된 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악플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자유를 누렸던 과거와는 달리, 공동체의 진정하고 건강한 자유를 위해 행동하도록 성장한 덕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양 교육이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비판적 사고를 넘어서서 사회를 새로운 자신의 지평으로 삼아 계속해서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게끔 하는 소양 교육이라 느낍니다. ‘고전 속의 자유’라는 교양 수업 이후 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유의 가치와 무게를 새기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성장한 모습이며 제가 새로 새기게 된 인생입니다.

#### 참고문헌

- 「‘일베저장소’ 폐쇄 논란… ‘사회적 해악’ vs ‘표현의 자유’」, 『독서신문』, 2018.04.04.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52> (2020.11.02.)>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역, 서울: 책세상, 2017.
-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역, 서울: 이학사, 2001.

## 고전 환상 문학작품의 가치와 윤리

강 채 은 (문화인류학과)

지도교수 : 주형예

내가 만난 인생교양, 주형예 교수님의 ‘그북디: 고전환상문학작품의 가치와 윤리’이다.

여기서 그북디는 Great books and debate의 약자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고전을 읽고 다른 학우들과 토론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읽어야 하는 책이 많고, 써야 하는 글이 많다보니 다른 강의들에 비해 몇 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북디 수강신청 성공하고 좋아하면 바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그북디 중에서도 경쟁률이 단연 높고, 소위 꿀강보다도 인기가 많았던 수업이, 바로 내가 오늘 소개할 “주북디”다.

주형예 교수님의 그북디,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주북디”라고 불렀다. 성이 주씨인 교수님께서서는 자애로움과 지혜로움을 동시에 겸비하셔서 학생들 사이에서 “주님”이라고 불리셨다. 이러한 주북디 수업에서는 한 학기동안 5권의 환상문학 책을 읽게 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작성된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작년에 출간된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까지 총 5권을 읽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 아이들이나 읽는 시계토끼로 토론 수업이 가능하냐고 많이들 묻는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네! 주님, 주형예 교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주북디의 토론방식은 꽤나 흥미롭다. 우선 교수님이 일방향적으로 주제를 던져주시기 보다는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6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한다. 각자가 적어야 하는 심화예세이의 글감을 뽑는 것이 조별 토의의 목표이다. 그리고 그렇게 작품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글감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주제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형성해서 써내린 심화예세이는 제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학생들은 소통하며 서로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고, 본인의 글을 수정하며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은 게시판에 서로 공유되고, 단순한 제출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더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기도 하고, 글을 전개해나가는 다른 학우들의

방식을 보면서 서론은 이런식으로, 결론은 이런식으로 풀어나갔을 때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에 달린, 섬세함이 담긴 교수님의 피드백을 보면 나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가 짜준 시간표에 의해서 굴러갔다. 반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는 원하는 과목들을 직접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올해 초를 떠올려보면, 당시의 나는 고등학교 때 당장 눈 앞에 있던 급한 입시 때문에 하지 못했던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수업을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선배들의 강의평과 수업계획서를 뒤적이던 어느 날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나이 많은 A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나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굳이 학생들이랑 토론을 해서 뭘 배울거냐, 차라리 전문적인 교수진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식 수업을 더 넣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이었다. 굉장히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잠깐 고민하던 중 나의 초종교 시절을 떠올려보았다. 우선 나의 인생교양 주북디에서 다루는 “문학”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겠다. 문학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작품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 작품이 와 닿는 지점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문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학습활동의 모범 답안을 달달 외우는 일만을 반복했다. 우리들은 정답과 오답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학 수업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때 보았던 마이클센델의 한 강연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마이클 센델이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마이클 센델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명이 앉아있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마이크도 넘겨주면서 학생들끼리 의견을 주고 받는 강의 장면이었다. 대학교 때는 꼭 암기식의 공부가 아니라 마이클 센델의 하버드 강의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업을

듣자고 다짐한 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그래서 소신했던 토론수업 위주의 시간표를 찢던 것 같다. 나는 아직 학부 1학년이고 현재 겨우 1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난 학기를 돌아봤을 때,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은 과목은 시험기간에 바짝 개념을 달달 외워서 A+를 받은 과목보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만의 글을 쓰고, 반박도 당해보고 시련도 겪었던 주북디를 비롯한 토론 교양 수업이었다. 과거에 비해,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는 강의들은 유튜브에서 충분히,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은 아니다. 전국각지, 그것을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온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데,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



는 것이 바로 토론수업이다. 심지어 같은 작품을 읽어도 서로가 모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주복디에서 친구들과 함께 책에서 주제를 뽑아보는 작업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을 작품과 연관지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종종 놀랐던 것 같다.

사실 처음에는 수업을 들으며 환상문학이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에 내 삶에 와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환상문학이 오히려 우리 현실의 경계를 일깨워주고, 현실의 부조리함을 형상화하며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실 세계의 규범을 뒤집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고 조별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규범을 통해 정돈된 현실 세계와 조금은 엉망이지만 자유로운 환상세계 중 어디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 학생들도 있었고 ‘앨리스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꿈을 통해 앨리스가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등 내면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의견, 반대로 이 꿈은 앨리스가 창조해 낸 내면 세계로 그저 한순간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내용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극대화하는, 문학이나 연극에서 사용되는 ‘거리두기’ 기법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펼친 친구들도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친구들과리 토론을 하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이 국가별로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상한 ‘Wonder’의 사전적인 의미는 ‘interesting’ ‘surprising’에 가까운데, 왜 ‘이상한 나라’로 번역이 되었을 까라는 논의가 인상 깊어서 이 주제와 관련지어 심화에세이를 적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Wonderland를 번역할 때 신비함의 측면을 강조했는데, 특이하게도 한국만큼은 Wonderland를 ‘이상한 나라’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앨리스가 여행한 비정상적 세계와 다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상적인 세계”라는 전제를 함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영감을 받아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을 다시 꺼내 환상작품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문체와 접목해보았다. 시대의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 앨리스는 기존의 세계에서 내재화한 ‘정상적인’ 문화자본을 ‘이상한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이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다. 작가는 그동안 당연히 여겨진 기존 상식들을 뒤틀며 독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현실세계에서 유식해 보이고, 예의 바르게 여겨질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의미를 잃고 기존의 ‘정상성과 비정상성’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앨리스가 ‘정상’이라고 교육받았던 기존의 교육 내용은 ‘비정상적인’ 이상한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며, 막상 이상한 나라에서의 비정상은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니었다. 여기서 난는 정상과 비정상의 ‘상대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정상으로 일컫고, 무엇을 비정상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비정상성

에 대한 잦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정 집단에게 상징적 폭력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이 이러한 상대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아이러니한 정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상문학 작품이 단순히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투영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와 부조리함을 발견하는 작업이 흥미로웠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환상문학을 통해 현실 규칙의 억압을 일깨우고,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색다른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앨리스가 던지는 질문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시대를 고민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두 번째 작품이었던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으며 경계 밖의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또 다른 문학작품의 구절이 떠올랐다.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세상을 가장 집착하는 법이더라 / 목 메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쓸쓸하도록 죽도록 외로워 지는 일. 날마다 여위는 목, 머리만 커져서 머리가 무거워 흔들리는 일이더라.” 소설에서 괴물은 이름을 얻지 못하고 ‘크리처’, ‘괴물’ 등으로 불린다. 세상으로부터 이름을 얻지 못한 괴물은 결국 잔혹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존재도 역설적으로 그였을 것이다. ‘괴물’이라고 불리는 창조물이 인간 사회에 대해 절규하며 자살을 선언하는 마지막 장면은,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도움을 주어도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흉측한 외모 때문에 인간에게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괴물이라는 이름의 존재-. 창조물은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며 서서히 악으로 물들어갔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복수는 성공이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에서 악마가 되어버린 한 존재는 성공적인 복수에 대한 한희대신 밀려오는 죄책감에 고통받는 듯했다. 그 모든 감정이 함축적으로 터져 나오는 지점이, 바로 창조물의 분노와 슬픔, 배신감, 죄책감으로 얼룩진 독백으로 가득 차 있던 결말부였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 정호승, <수선화에게> 중에서” 정호승 시인은 인간에게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외로움은 사회적인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의 기능도 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외로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본성과 사회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진다. <프랑켄슈타인> 속 외로움은 비단 인간이 되지 못한 괴물의 외로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을 잃는 것’의 심각성을 떠올려보면, 왜 그들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고통스러웠을 지 다 시금 공감해볼 수 있겠다. 하나의 수선화였을, 이름을 얻지 못한 창조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름을 잃은 사람들과 우리들을 떠올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화콘텐츠 창작 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 전에,

한 때 영화감독을 꿈꾸었던 나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고자 한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키우던 중, 대학입시 때문에 한동안 영상 활동을 접는 아픔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내 꿈은 예술가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화라는 흰 도화지에 나의 색을 담아내는 ‘영화감독’이 꿈이었다. 직접 경험하고 사유한 것들을 영상이라는 매체로 표현해낼수 있다는 건 짜릿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4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면서 여러 영화제와 공모전에서 우승했었고, 그럴 때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틀에 박히지 않고 마음껏 사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를 꿈꿨다.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학교 내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일이 생겨서 단편영화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영화를 이후로 나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한국에서 ‘자유로운 예술가’라는 정체성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주변에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좋은 대학 가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었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에 소신대로 일을 추진했다. 기획, 촬영, 편집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편집’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영화를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업에 지장이 간 것이다. 영화는 잘 마무리되어 그 해의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학교에서의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영화 만들다가 내신성적이 수직으로 추락한, 한심한 학생일 뿐이었다. 선생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할 말이 없었다. 우리 반의 모범생이라고 응원해주시던 담임선생님의 눈빛도 차가워졌다. 국어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서 이런 성적으로는 인서울도 못한다며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꾸중하셨다. 그래서 입시가 끝나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까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딱히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주복디 수업에서 참여했던 드라큘라 팀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랍 속에 꼭꼭 넣어두었던 나의 꿈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드라큘라 작품에서는 글로 심화에세이를 적지는 않았고, 팀원들이 각각의 작품을 엮어 웹진을 제작하는 팀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의 경우, 우리 조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의를 하고 있던 중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었던 ‘사회적으로 금기된 성적욕망’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드라큘라 원작 소설을 보면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불타는 욕망과 끔찍한 두려움이 섞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그들이 새빨간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 주었으면 하는 부도덕한 욕망의 불길이 가슴에서 타올랐다.”와 같은 문장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 작품이 쓰인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러한 성적 욕망이 금기시된 시대였다는 배경 지식을 공유하다가, 이러한 주제로 영화 <드라큘라>를 스펀오프를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성적 욕망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제작된 가상의 영화 계획안을 바탕으로 우리 팀만의 세계관을 짰다.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영화 <드라큘라> 이후 발표된 영화 <드라큘라: 금지된 사랑>이 사회에 큰 파급을 일으키며 유행했다. 그 이후 작가가 써 낸 스펀오프와 팬들의 2차 창작 팬픽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연구자들이 드라큘라 신약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팀원들이 스펀오프 소설, 드라큘라 영화

관련 카드뉴스, 인터뷰 기사, 영화 포스터를 각자 제작해서 하나의 웹진으로 엮어내서 발표를 준비해나갔다. 영상 편집에 흥미가 있었던 나는 그중에서 가상의 영화예고편 제작을 담당하였고, 발표 당일 날 만 18세였던 나는 <드라큘라: 금지된 사랑>이라는 꽤나 발칙한 예고편을 상영하며 친구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팀프로젝트에서는 작품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했다. 그동안 카메라 뒤에서 영상편집이나 연출을 담당해왔었지만 그 때는 카메라 앞의 주연 배우, ‘모나’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처럼 다른 학우들과 함께 해당 환상문학작품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어 팀별로 하나의 웹진 작품을 만드는 이 팀프로젝트를 하면서 “비교”라는 것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글을 잘 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글쓰기 솜씨가 부족한 내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탓하다가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 같다. 다른 친구들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데, 내 글은 한참이나 모자라니 마음이 급해지고, 글은 안 써지고 과제 제출시간은 임박해오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창작 팀 프로젝트에서 친구들을 살펴보니, 글을 잘 써서 멋진 에세이를 써내리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영상편집에 두각을 보이는 친구, 작곡을 잘하는 친구, 연기를 잘하는 친구 등등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본인의 분야에서 그 친구들이 빛난다는 것을 알았다. 영화 예고편, 영화 포스터, 앨범커버, 창작소설, 자작곡, 라디오드라마, 게임, 영상광고, 랩까지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을 만들어냈다. 기계적이고 암기 위주의 입시 공부에서 벗어나 나를 비롯한 주복디 수강생들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펼치지 못했던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사이버강의라서 오프라인으로 얼굴 한 번 못 보었는데도 학생들이 종강 전날밤에 밤을 새서 이벤트를 기획했을 정도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셨다. 갑작스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새벽에 교수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 수합해서 배경음악도 깔고, 목소리가 좋은 한 학생이 DJ를 맡아 그럴듯한 라디오 녹음본도 만들었다. (비밀이지만, 교수님은 그 이벤트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그때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게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친구가 되어 거기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카메라를 끄고 교수님이랑 같이 울었다.

판타지보다는 현실적인 작품들을 좋아했던 나에게는 환상문학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들은 작품을 이미 다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서 초조해지기도 했다. 심화에세이 마감 날이 될 때면, 아직 나의 글은 부족한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앞서 가있는 것만 같아서 속상했다. 경쟁식의 고등학교 입시는 끝이 났는데도, 12년 공교육 체제에서 그동안 적응된 습관

때문인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켄슈타인을 주제로 수업을 하던 교수님께서 다음 수업에서 진행할 대표로 토론을 할 6명 중의 하나로 나를 지목하셨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 솔직히 두려웠다. 교수님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다.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비웃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토론해줬으면 좋겠다고 전전긍긍하는 동시에 궁금해졌다. 왜 교수님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 부족한 나를 지목하셨을까? 수업 게시판 메신저로 교수님께 여쭙보았더니, 내가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동시에 나는 웬지 모르게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입시 공부는 끝났음에도, 다른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한동안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기만 했는데, 교수님께서 나의 가능성을 봐주신 것만 같았다. 어쩌면 교수님께서 가볍게 던지신 말이실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불안과 걱정에 떨던 나는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용기 반 부담반을 가지고 토론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토론 준비하다가 전날 밤을 새고 아침 7시에 잠시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불안해서 눈이 감기지 않았다. 빗소리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쿡방거리는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수능 하루전에도 멀쩡했던 사람이, 겨우 토론을 앞두고 손과 발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렇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좀 회의실에 입장해서 나의 순서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이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티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긴장하지 않은 척 화면에 나오는 얼굴로는 노력했지만, 사실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럭저럭 토론이 마무리 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좀 화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80개의 눈과 귀 앞에서 겨우겨우 발표를 마쳤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날을 계기로 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이만큼 변화할 수 없었을 것 같다. 팀플작업 덕분에 저는 자존감도 회복했고, 다른 팀플 동료들과 힘을 합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해볼 수 있었다.

한 친구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그것들이 지적이나 감점요소가 아니라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들로 다가왔으며 교수님 피드백은 이해하기도 쉬운데 깊이도 있어서 읽을 때마다 항상 스스로 겸손해진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성인이 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가지고, 자신만의 목소리와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자유”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고,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경계 밖의 사람들을 고려해보았고, 드라큘라에서는 사회적인 금기의 위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고, 네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차원을 달리한 시야를 가져보았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는 다시 나의 삶으로, 즉 내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내색을 안 했지만 한참

부족한 제 글을 보며 노트북 타이핑을 하다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딪치고 아파했던 만큼 글의 완성도는 점점 높아졌고, 이제는 토론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리고 팀프로젝트에서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과의 추억,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봐주신 교수님과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 쳇바퀴처럼 굴러갔던 고등학교를 떠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스무 살, 대학교의 첫 봄날 주형에 교수님의 환상문학 교양수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도 1학년 1학기에 만났던 이 인생교양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모두의 동기와 인생을 바꾸는 수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북다: 고전환상문학작품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수업에서 제작한 오디오북 ‘고요의 가장자리로’  
<https://youtu.be/VN8Y6Tr4jU4>
- 드라큘라 수업에서 제작한 가상의 영화 예고편 <드라큘라: 금지된 사랑>  
<https://youtu.be/oFxJiXd1T0E>

# 왜 좋은 물건은 비건이 아닌가요?

## : Animal Ethics

이 경 욱 (국어국문학과)

지난주, 새 옷을 살 일이 생겨 백화점에 방문했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1단계로 완화되긴 했다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빠르게 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남성복 층으로 향했다.

조용히 옷들을 살펴보고 있으려니, 직원이 말을 걸어 왔다.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이런 건 어떠세요? 요즘 이런 핏이 잘 나가는데, 천연 울 소재라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아, 그런가요? 천연 울 소재라는 말을 듣자, 동물권 수업에서 본 장면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양털 공장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양털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빠르게 양털을 깎는 노동자들.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기도 하는 양들. 그렇게 생산된 양털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들.....

선택권은 많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찾으려면 싸구려 폴리에스터 소재의 옷을 구입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동물 제품이나, 싸구려냐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셔츠는 실크 원단이라 감촉이 좋고 잘 구겨지지도 않아요. 이 신발은 천연 가죽 소재라 고급스럽고 편안해요. 아, 그런가요. 백화점에서 인조 가죽 제품을 찾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난 학기에 들은 “Animal Ethics(동물권)” 수업에서 가장 많이 떠오른 의문이었다. 이 수업을 듣기로 결심한 계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동물권 보호와 실생활에서의 편의성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얼마나 타협을 해야 하는가? 수업의 교수자인 Mark Rublic(마크 루블릭)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물 유래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종종 언급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지도 못한다고.



“Animal Ethics”수업은 마크 루블릭 교수가 10여 년째 진행하고 있는 강의다. 강의는 한 학기에 걸쳐 동물권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루며, 각각의 주제를 통해 동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이로 인해 동물들이 얼마나 잔혹한 환경에서 살고 죽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탐구한다.

동물권 개념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거니즘 개념을 함께 다루게 된다. 비거니즘(Veganism)은 육류 소비는 물론 가죽, 울 등의 동물성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한 제품 등 동물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지양하는 철학을 말한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건(Veg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루블릭 교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비건으로의 전향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이 옳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을 전했다. 이 수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강의이고, 근본적인 수업 의의는 학생들의 영어 독해 능력과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써 동물권이라는 주제가 활용된 셈이었다.

실제로 수업은 수강생의 영어 실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거의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하는 과제가 제출되며, 최종 과제는 직접 설정한 주제로 5분 정도의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영어 능력 증진의 수단으로 동물권이라는 주제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 동물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영어 수업이라는 플랫폼이 사용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수업이 다루는 각 주제의 깊이와 그로 인한 높은 몰입도는 외국어라는 요소로 인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오히려 수업 자료로 활용된 문서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어 검색과 독해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라는 상황에서, 이 수업은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모두가 만족스러웠던 몇 안 되는 강의 중 하나였다. 발표 과제가 있는 수업의 특성상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었겠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에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루블릭 교수는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매주 제출하는 과제는 개별적인 채점과 피드백, 채언이 이루어졌으며, 발표 과제의 경우 주제 선정부터 발표 준비, 발표 영상 제출과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모두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 상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수업은 한 학기에 걸쳐 동물권과 관련된 총 다섯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룬다. 동물권이라는 큰 주제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각각 ‘음식으로써의 동물’, ‘의류로써의 동물’, ‘실험 대상으로써의 동물’, ‘엔터테인먼트로써의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고, 실제로 동물 제품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음식으로써의 동물에 국한된 것이

었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해 공지 받았을 때, 음식이라는 주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다소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난다. 동물 제품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육식을 줄이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가족으로 만든 지갑을 쓰고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미 의도치 않은 자아성찰을 경험했기에 이후 진행될 수업 내용을 통해서는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강의를 본격적으로 수강하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음식으로써의 동물과 의류로써의 동물이라는 주제들이 기억에 남는다. 우선 음식으로써의 동물은 강의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진 주제였다.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기에 익숙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동물들이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과 방법 아래에서 길러지고 도축되리라는 것만 짐작할 뿐, 자세한 실상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질 좋은 고기가 값싸게 거래되고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방식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루블릭 교수는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방식을 소개했다. 말 그대로 육류의 생산과 처리를 위한 공장인데, 이곳에서는 동물의 경제적 가치가 도덕적 지위에 우선한다. 좁은 우리에서 계획적으로 태어나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동물들은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된다.

다소 충격을 받은 지점은 수업이 소나 돼지, 닭과 같은 육류뿐만 아니라 어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부분이었다. 고등어나 오징어, 새우 등과 같은 해양 생물 역시 소, 돼지와 같은 동물들이지만 도덕적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 그들의 존재는 비교 우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아니, 적어도 내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모든 생물이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 생명의 경중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내가 모든 생명이 똑같은 무게를 갖는다고 믿고 있었다면 수업에서 육류와 어류를 같은 선상에 놓고 동물권에 대해 논할 때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해당 주제의 과제로 “Earthlings(지구 생명체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일부를 시청하고 짧은 문답들에 대답하는 과제가 제출되었다. 루블릭 교수는 수업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의 취지와도 잘 맞지만,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소 노골적이고 잔혹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레이션만을 듣고 과제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루블릭 교수가 경고한 대로 많은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만약 그러한 장면들이 적절한 기준 없이 무의미하게 나열되었다면 그 영상은 스너프

필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의 부적절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적인 장면들이 제시됨으로써 육류로 소비되는 동물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영상을 보고 느낀 불편한 감정은 오히려 육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전환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의류로써의 동물들에 대해 그 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육류 소비를 지양하는 것이 동물권 보호보다는 환경 보호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주된 관심사는 한 덩이의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동물권에 대한 문제는 다소 부차적인 것이었다. 공장식 축산업에 충격을 받고 어류의 동물권 논의가 생소하게 느껴진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수업을 통해 전달된 의류 산업의 현실은 관심의 무게를 환경에서 동물권 쪽으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물론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동물권 보호와 환경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꼽으려면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근본적 문제에 가까울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루어진 예시는 양털과 가죽이었다. 양털의 경우, 좋은 환경에서 자라 적절한 방식으로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양에게도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울 소재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의 체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양의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기에, 필요한 시기에 양털을 깎는 것은 양과 인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환경에서 양들을 사육하고 숙련된 전문가에게 채취를 맡기는 일은 도덕적으로는 옳은 판단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판단이다. 대부분의 양들은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처럼 좁은 우리에서 계획적으로 길러지고, 임금이 저렴한 노동자들에 의해 양털이 채취된다. 양털 채취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에 깎은 양털의 부피로 일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양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능력보다 양털을 빠르게 깎는 능력이 더 중요시된다.<sup>1)</sup> 그 과정에서 양들이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가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가죽의 경우 육류로 도축된 소의 부산물로서 획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송아지를 도축해 가죽을 획득하거나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소를 어미에게서 꺼내 그 가죽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악어나 뱀, 얼룩말과 같은 동물들에게서 가죽을 얻기 위해 남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sup>2)</sup>

1) Oliver Millman, “Sheep cruelty video sparks RSPCA investigation,” The Guardian, 10 July 2014.

2) Caroline Lennon, “Leather is More Than “a By-Product of the Meat Industry””, OneGreenPlanet, 2020

가죽은 의류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 특정한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보존성과 내구성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독한 약품이 사용된다. 이 처리는 대부분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sup>3)</sup> 노동자들이 약품 처리를 하며 비위생적이고 유독한 환경에 처하는 것은 세간의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양털과 가죽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내 이목을 끈 것은 제품 생산 과정에 동물권의 문제와 인권 문제가 공존한다는 점이었다. 양들은 털을 생산하기 위해 살아가며, 털을 깎이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외상을 동시에 입는다. 양털을 깎는 노동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생산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소나 악어, 뱀 등의 동물들은 가죽 채취를 위해 남획·도축되고, 그 가죽을 처리하는 노동자들은 유독한 약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옷가게나 신발 가게의 화려한 진열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도축되고 가공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얻어 죽어갔는지 모르는 일이다.

수업을 통해 실상을 접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다. 무지했던 시기에 대한 부끄러움은 덤이었다. 실상을 모를 때에는 별 거부감 없이 동물 생산품들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동물 생산품을 구입할 수 없을 터였다. “어쩔 수 없어...”라며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이전처럼 동물 생산품을 사용하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비건 제품을 찾아 사용할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업을 통해 접한 내용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동물권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식생활, 화장품, 의류라는 영역들이었다. 개선의 여지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식생활 부분이었다. 물론 모든 동물성 식품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고 당장 비건으로 전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수업의 독특한 과제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할지,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고쳐나 가야 할지의 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1일 비건 체험’이라는 과제를 수행한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고 오로지 비건 재료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루블릭 교수는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물 생산품을 섭취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유는 물론 꿀과 같은 재료들도 금지되었으며, 빵을 식단에 추가할 경우 계란이나 우유 등의 성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다. 식단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영양 성분을 고려하여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였다.

과제는 비건 식단을 체험하며 향후 각자의 비건 지향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지만, 평소 본

인의 식단과 비건 체험을 통해 실천한 식단을 비교하며 평소에 얼마나 동물 생산품을 많이 소비하며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비건 체험을 시작하기 전, 평소 식단과 비건 체험으로서 계획한 식단을 비교한 문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평소 식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확실히 나는 아무렇지 않게 동물 생산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주로 삶은 계란을 얹은 국수를 먹으며 지내 왔다. 흥미로운 점은 간식을 포함한 네 번의 끼니를 계획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평소의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이었다. 일상에 치여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늦은 밤에 간식을 챙겨 먹으며 배를 채우곤 했다는 이야기를 과제로 제출하며 스스로에 대한 묘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한 1일 비건 체험은 성공적이었다. “사람이 토끼도 아니고 어떻게 야채만 먹고 사냐”며 채식에 대한 반감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 생산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과 토끼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사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일수록 비건 식단을 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국인이 나물로 만들 수 없는 식물은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한식 나물의 세계는 넓고도 심오해서,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골라 밥에 곁들이는 식으로만 식단을 짜도 몇 주는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였던 곤드레나물밥과 버섯구이는 지금 돌이켜봐도 훌륭한 식사였다. 일일 비건 체험이라는 과제를 통해 비건 식단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진 셈이었다. 이후 식사 메뉴를 정할 때면 선택권이 있을 경우 최대한 동물 생산품을 지양하는 습관이 생겼다.

화장품의 선택은 식품의 선택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비누나 스킨, 로션 등의 제품은 성분 역시 중요한 요소지만 제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실험을 진행하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동물 실험을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쉬(Lush)”를 비롯한 몇몇 화장품 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비건을 표방하며 동물 유래 성분의 사용을 지양함은 물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고 광고한다. 실제로 러쉬의 제품군 중 80%는 완전한 비건 제품이라고 한다.<sup>4)</sup>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고 발품을 팔면 어렵지 않게 좋은 비건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의류의 선택이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다. 단순히 가죽 신발이나 양털 무스탕을 소비하지 않는

3) Pter Bengsten and Danwatch, “Toxic chemicals used for leather production poisoning India’s tannery workers”, Ecologist, 26th October 2012

4) <https://uk.lush.com/help/faqs/products/why-arent-all-your-products-vegan>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피 등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는 “퍼 프리(Fur-free)” 운동을 진행하는 유명 브랜드가 몇몇 있었지만, 잘 알려진 대중적 브랜드 중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았다. 대신, 빵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처럼, 제품에 부착된 소재 표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했다.

청바지 한 벌을 살 때에도 좋은 브랜드의 상품에는 가죽으로 만든 브랜드 패치가 붙어 있었고, 100% 면으로 만든 가방을 집어 들어도 지퍼에 가죽 손잡이가 달려 있기도 했다. 안경을 사면 가죽 안경집이 사은품으로 따라왔고, 면으로 된 코트를 집으면 상아로 만든 단추가 달려 있었다. 선별 과정을 거쳐 동물 생산품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대체로 합성 섬유 소재나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무명 브랜드 제품들이 남게 된다.

의류 시장에서 자연 유래 성분을 강조하며 제품의 질을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의 합성 섬유는 좋은 보존성과 신축성, 세탁의 편리성 등 나름의 이점을 갖지만 소비자들은 천연 가죽이나 실크, 울 소재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더 선호한다. 솜을 채운 패딩 점퍼보다 오리털을 채운 패딩 점퍼가 더 따뜻하고, 두꺼운 면으로 만든 신발보다 얇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더 튼튼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파인애플이나 버섯 등을 이용한 가죽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체 소재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sup>5)</sup>, 지금도 합성 피혁이 “레자”라고 불리며 질 낮은 소재로 취급받는 것으로 보아 인공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습관은 개인적 영역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의류는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 개인적 신념으로 합성 피혁이나 면 소재의 신발을 신고 폴리에스터 정장을 입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질이 낮은(혹은 그렇게 믿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바꾸는 데에는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는 과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섣불리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합성 섬유들은 석유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앞서 밝혔듯, 동물 제품 지양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수업을 듣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이유는 없었다. 울 소재를 피하기 위해 석유 합성 섬유를 선택하는 것은 동물권 보호에 한 발짝 다가설 수는 있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한 발짝 가까워지는 선택인 셈이었다. 개인적 선택이라고 믿어왔던 비건 지향성은 사실 사회적 선택에 더 가까웠다.

예전에 비해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공 소재보다 더 좋은 소재라고 여겨지는 동물 유래 소재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은 일견 사회적인 선택이다. 물론 나의 브랜드 가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온 스펙과 경

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합성 피혁을 신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연 가죽을 신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면접관이 비건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백화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울과 실크, 가죽으로 뒤덮인 스스로를 보며 다소 참담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만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높아지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다. 명망 높은 리더가 종이 섬유로 만든 지갑을 들고 폴리에스터 정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일은 없다. 이에 나는 내 신념에 기반을 둔 선택을 내리기 위해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을 느꼈다. 비건이 되기 위해 CEO나 대통령이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옷으로 첫인상이 좌우되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 위상을 획득한다면 선택의 부담감은 그에 비례해 줄어들게 될 터였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알려지면 더욱 많은 사람이 동물권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삶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위상을 획득한다면 오히려 삶의 환경이 삶의 방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가죽 구두를 벗으며 미래의 성장과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다짐했다.

굳이 사회적 위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비건으로서의 삶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식습관부터 주거 공간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내려놓고 삶의 전반적인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 동물 실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폭마저 좁아진다. 또한 대부분의 비건이 그러하듯 동물권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선택의 폭은 더욱 협소해진다. 일례로 독특한 맛은 물론 풍부한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어 비건 식단 재료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는 경작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되기도 하고, 재배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물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sup>6)</sup> 신념을 지키는 과정은 변화와 타협의 연속임과 동시에 많은 시간을 들인 조사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 지향성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Animal Ethics” 수업이 내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 눈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치는 선택을 바라봄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미약하나마 동물권과 환경 보호에 일조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념을 지키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타협과 선택의 순간에 주저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조성하자는 다짐을 한 것 역시 그 눈을 통해 내린 결정이었다.

5) 임병선, “동물을 죽이지 않고 얻는 가죽... ‘이게 진짜 ‘베지터블’ 아닌가요’”,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03.08

6) 김민아, “인스타 스타 ‘아보카도, 알고 보면 환경파괴 주범’”, 동아사이언스, 2018.10.17

졸업 요건 중 영어 수업을 일정 횟수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바 “꿀 강의”를 찾아 헤맨다. 그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수업은 굳이 찾아 들을 만한 과목은 아니다. 과제는 많고, 내용은 다소 난이도가 높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시험도 꼬박꼬박 치르는 과목이었다.

그러나 대학 수업의 가치는 편의성보다는 내용의 깊이와 시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상세하고 정교하게 배울 수 있느냐에 따라 교양 수업의 의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숲이 사라진 곳에 공장식 축산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양들이 피를 흘리며 털을 내어주고 있다. 동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피으로써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됨을 뜻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눈을 갖고 그들의 일상을 바꾸어나간다면 세상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혹은 그와 비슷한 계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본다.

## 참고문헌

- Oliver Millman, “Sheep cruelty video sparks RSPCA investigation,” The Guardian 10 July 201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jul/11/sheep-cruelty-video-sparks-rspca-investigation>
- Caroline Lennon, “Leather is More Than “a By-Product of the Meat Industry””, OneGreenPlanet, 2020., <https://www.onegreenplanet.org/animalsandnature/leather-is-more-than-a-by-product-of-the-meat-industry/>
- Pter Bengsten and Danwatch, “Toxic chemicals used for leather production poisoning India’s tannery workers”, Ecologist, 26th October 2012, <https://theecologist.org/2012/oct/26/toxic-chemicals-used-leather-production-poisoning-indias-tannery-workers>
- <https://uk.lush.com/help/faqs/products/why-arent-all-your-products-vegan>
- 임병선, “동물을 죽이지 않고 얻는 가죽...“이게 진짜 ‘베지터블’ 아닌가요””,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03.08.,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48>
- 김민아, “‘인스타 스타’아보카도, 알고 보면 환경파괴 주범”, 동아사이언스, 2018.10.1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4209>

# 르네상스 작품에 그려진 인간 본질의 가치

김 고 윤 (정치외교학과)

지도교수 : 김상근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오래된 미래, 르네상스’라는 강의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강의는 르네상스 전후의 역사를 배운다. 하지만 단순한 미술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인문학에 담긴 인류의 성찰에 대해 탐구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르네상스, 즉 재탄생을 이룰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지도하시는 김상근 교수님께서서는 신학대학 교수님이시다. ‘나의 로망, 로마’,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와 같은 저서를 쓰셨으며, ‘차이 나는 클래스’, ‘세계 테마기행’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인문학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강의는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동영상 강좌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르네상스와 관련된 에세이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

## 2 수강 동기

처음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서구 역사 전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선 학기에서 ‘서양 문화의 유산’이라는 수업을 선수 학습했는데, 수업 분량 상 르네상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수업을 수강하였다. 르네상스 작품들을 배우며 유럽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술 작품들을 배경지식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는 동기도 있었다. 이렇듯 처음에는 단순한 미술사적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수강하게 된 과목이었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징점

르네상스의 예술작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미적 가치가 있는지는 각종 매체, 서적에 두루 실려있다. 이 수업은 그러한 미술사적 정보전달 이상을 다룬다. 르네상스 예술에 담긴 인간관, 세계관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인문학자 교수님께서 들려주는 르네상스 예술이야기는 단순한 미적 감흥을 넘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성찰하게 하였다. 그 예로 수업 과제로 '내가 지금 우러러 보는 별은 무엇인가'와 같이 수업 내용을 자기 자신의 성찰로 이끄는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총체적 반성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고적 측면이 깊은 과목이다.

또한 이 수업은 세계사의 전환점이 된 르네상스를 통해 그 근본이 된 가치들의 양상을 배우며 현 시대를 과거의 역사의 틀을 통해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시대까지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식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준다.

교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현재의 글로벌 정보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다. 수업계획서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세상에 반해 20세기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대학교육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방식을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기말고사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우수작들을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리는 과제로 시행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수방법과 시험 방식이 이루어졌다. 수업 속 작품들은 과거의 것이지만, 그것을 다루고 학습하는 데에는 현대화된 방식이 적용되었다.

### 4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교수님은 르네상스로의 여행을 통해 ‘재탄생’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셨다. 로마를 방문한 괴테가 “전체 세계사가 이 장소와 결부되어 있으니, 나는 여기서 두 번째 탄생을 맞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로마를 가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의 ‘거위의 여행’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르네상스의 간접적인 여정을 떠나며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생의 통찰을 느끼기를, 혹은 느끼려 가보기를 권하셨다.

로망이라는 말은 현실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렇기에 르네상스의 중심이자 로망의 도시 로마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현실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자유를 찾은 줄리아 로버츠는 로마로 떠나면서 ‘인생에는 오직 의무밖에 없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교수님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

들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수업에서 르네상스로의 여정은 관광이 아니라 사색이었다. 길을 잃은 곳에서조차 수 천 년 전의 역사와 이야기가 새겨져있는 곳이 로마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어떤 사색을 할 수 있는지를 로마의 아름다운 예술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나는 이 에세이를 통해 르네상스가 어떠한 통찰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오래된 르네상스’라는 수업이 내 인생교양으로 남게 된 이유에는 또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학기 중에 교수님께서 선착순으로 학생들을 모아 깜짝 식사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처음 교수님과 식사해보는 자리이기에 많이 긴장하고, 수업 내용도 복습해서 준비해 갔다. 하지만 실제로 빈 교수님은 수업 속 정보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학교생활은 즐겁게 하고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질문하시고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나와 같은 진로를 꿈꿨던 선배들의 이야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인생에서의 고민과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따뜻하게 이야기해주셨다. 교수님과의 대화 후에 이 수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삶으로의 적용과 성찰이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되었다.

### 5 성장 스토리

이 수업을 통해 특정 분야의 어떠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국한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르네상스 전후 예술작품을 다루며 그 수만큼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고, 나의 세계관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전후 예술의 이해가 어떻게 나의 감성을 움직이고 인간 존재에 대해, 내 존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는지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로마 왕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세르비우스 성벽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약 2,400년 전에 만들어진 세르비우스 성벽은 현재 로마 테르미니 역 맥도날드 안에 있다. 이 성벽은 골 족이 침공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 쌓아올린 것이다. 하지만 로마는 성벽을 쌓아 올렸을 때 망했다. 로마는 원래 외국인들이 만든, 개방성을 표방하는 국가이다. 가난하고 범죄를 저질러 도망간 사람들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만든 나라이다. 그런 로마가 외부와 단절되는 성벽을 세운 것은 로마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로마는 멸망했다.

맥도날드 속 세르비우스 성벽을 보며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자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에 오히

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경향이 있다. 마음 속 세운 세르비우스의 성벽은 다른 세상과의 교류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성벽 안에 가두게 된다. 이 때 로마 곳곳에 새겨진 'SQOR(함께 살자)'라는 문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정신에 입각한 스페인 광장은 로마 안에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이름을 따 '스페인 광장'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이름에 담긴 가치처럼 스페인 광장에는 여러 사람과 여러 국가의 문화가 공존했다. 또한 바로크 시대 천재 조각가인 베르니니의 작품 코끼리 조각상과 <4대강의 분수>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는 장식을 함으로써 다른 세계와의 융합을 모색했다. 반세계화와 여러 집단에 대한 정형화, 혐오가 만발하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수 천 년 전 로마의 건축물이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집단 간 분열과 갈등이 많은 국가이다. 친북과 반북, 지역갈등, 연령대 간 갈등, 최근에는 성별 간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에 혐오가 만발하고 있다. 한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혐오의 흐름에 편승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러한 집단 간 갈등고조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사회현상의 일종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계화,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이전에 공존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새긴 'SQQR'을 보며, 깨어있는 시민이라 생각했지만 구시대보다 못한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돌에 새기는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로마로의 여정이 사색을 제공하는 이유는 많은 예술품들이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베르니니의 이집트를 주제로 한 조각상은 루크레티우스의 성찰과 관련이 있다. 루크레티우스는 당시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설을 거부하였다. 세상 만물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삶과 죽음은 원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자연의 순리라고 보았다. 루크레티우스의 생각은 죽음과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졌고,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퍼뜨렸다. 루크레티우스의 인문학적 성찰이 바탕이 되어 미네르바 성당 앞에 베르니니의 조각상이 자리하게 되었다. 로마에서 베르니니의 조각상 앞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인간의 존재의식에 대해, 다른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내면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인문학이 경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돈과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문학은 이런 욕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루크레티우스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리인 4원소설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지금 세상을 이루는 자본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신의 목표가 아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모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이를 위한 학벌, 목적의식 없는 공부와 스펙 쌓기에 매진하고 있다. 서로를 경쟁자로 두고 결국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나는 베르니니의 조각상을 보며 나의 삶을 성찰하였다. 나는 스스로 사유하고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온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행복이 나 자신에게 본질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이 수업을 들으며 목표를 향해 달려만 가던 나 자신을 멈추고,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나의 삶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오는 것인지도 생각했다. 고민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특히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 고시, 로스쿨'로 자신의 진로를 한정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후에 고민은 더 깊어졌다. 고민을 하며 내가 왜 정치외교학과를 오고 싶어했는지 떠올려보았다.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했었다. 막상 그런 꿈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대학생이 되어서는 나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고 있었다. 사회적 능력치는 그 때보다 쌓았을지라도, 옛된 꿈을 쫓던 어린 시절보다 더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갈 지는 여전히 고민 중에 있지만, 어떤 길을 걷던 그 목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진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캄피돌리오 광장'에 대해 배우며 금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상 앞에서 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상록'이라는 책을 남겼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적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금욕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실천적인 이론이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최초로 스토아 철학과 정치를 연결시킨 황제였다. 정치를 함에 있어 공동체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현대 사회에서 금욕은 다소 구시대적인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YOLO(You only live once)', '플렉스(많은 비용의 소비를 한 번에 해버리다)'와 같은 소비지향적인 키워드가 젊은 세대에 유행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도 본래의 뜻과는 멀어졌다. 실용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더라도 행복을 느끼면 된다는 소비의 면죄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동상을 보며 욕망은 허망하고, 쾌락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스토아 철학을 떠올릴 때,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주의를 부추기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이다. 물건을 사서 얻는 행복은 오래 갈 수 없다. 새로운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고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을 찾게 된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물질이 아니라 결국 내면의 풍요이다. SNS라는 공간에 자신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서 사람들은 남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새로운 물건, 소비를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소비행태는 유행처럼 번져 모방소비와 낭비로 이어졌다. 나도 한 때 유행에 민감하고 나 자신을 남들이 보기 좋게 가꾸는 데 관심이 있었다. 관심 없던 브랜드도 유행하면 괜히 사보고, 이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며 비싼 물건을 사기도 했다. 그것이 나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을 때 일시적인 쾌락과 공허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후 매일 내면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해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떤지, 몸 상태는 어떠한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 마음속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았다.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고 마음을 소중하게 가꿔나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이 생겼고 좀 더 편안해졌다. 생각보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일,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보는 일, 땀이 맺힐 정도의 운동을 하는 일 등 정말 소소하고도 행복을 주는 일들이었다. 스토아 철학의 ‘금욕’이라는 단어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욕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를 배우며 우리는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다. 르네상스는 오직 신 중심적이었던 중세에서 벗어나 인간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 시대였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성 바오로의 회심>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회한과 반성을 그려 넣었다. 그림에 말에서 떨어져 예수에게 누구시냐고 묻는 바오로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것이다. 교수님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라 생각하셨다. 이 그림을 보고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논하기 보다는, 바오로의 얼굴에 있는 미켈란젤로에 주목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붓 터치에 담긴 자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시킬 것이 수업의 방향점일 것이라 생각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도 사회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에 내 자아를 잠식시키고 있었다. 이 수업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신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인간 본질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 르네상스에 대해 배우며 인간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시대는 신의 자리를 자본이 차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 본질의 가치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식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고 상호 존중,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자본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현재가 과거보다 발전한 상태라는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지만, 르네상스의 정신을 되새길 때 지금이 오히려 르네상스 이전 신 중심의 암흑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연 단테의 작품 『신곡』에서 단테는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나아간다. 이 작품 속에서 ‘별’은 희망을 상징한다. 이 수업의 마지막 레포트 과제의 주제는 ‘내가 지금 우러러 보는 별은 무엇인가?’ 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늘 아래 펼쳐진 일들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헬조선’이라는 유행어처럼 비관주의적인 풍조가 퍼지고 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봐야한다고 하셨다.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 별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가? 이 강의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고민 끝에 현재 내가 우러러 보고 있는 별은 ‘과거의 나’임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다. 영상 제작,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취미로 놔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개인적 생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했다. 일단 대학교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하늘에 떠 있는 나의 별을 바라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의 글자만 열심히 보았다. 그렇게 나의 별은 하나둘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3년이라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1년의 재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다. 4년의 시간동안 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책상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들은 이미 사라져있었다. 내가 어떤 별들을 바라봤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다.

대학교에 입학한 1년 동안은 새내기라는 설렘에 젖어 나의 꿈보다는 그동안 놀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나의 별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어렸을 때 내가 만들었던 작업물들을 다시 보니, 그 때 가졌던 희망의 불길이가 가슴 속에 다시 지퍼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별에 다시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생활과 나의 꿈들을 병행하며 살고 있다. 꾸준히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고, 작가로의 도약을 위해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글도 쓴다. 가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나태해지는 내 자신이 느껴질 때면 고개를 들어 나의 별을 바라본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나의 밤을 밝혀준 별을 보며 다시금 희망을 느낀다. 과거에 내가 저 별을 보며 품었던 열정들을 되새기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나에게 희망을 주는 별은 과거의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난다. 지금의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울 지라도 나의 별로 밤하늘을 밝히려한다면 언젠가 빛이 수놓은 하늘이 될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이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관통하여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라는 걸 느꼈다.

교수님께서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피렌체의 문짝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셨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성당의 문짝을 새로 다는 데 있어 예술가들을 경쟁시킨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최

종으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가 올라갔고 결국 기베르티가 이겨서 그가 <그리스도 전> 28면의 청동 문을 제작했다.

브루넬레스키는 경쟁에서 졌지만 로마 건축사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었다. 그는 패한 후에 로마건축을 공부한 다음 돌아와 르네상스 건축의 모델이라 불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두오모 돔을 완성했다.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초기 르네상스 최고의 건축물을 만든 것이다. 그는 실패에서 자신의 예술가적 삶을 멈추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해서 건축물에 원근법을 최초로 시행하는 르네상스 건축가가 되었다. 브루넬레스키에게 실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르네상스 건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서 이 실패의 경험은 앞으로의 도전에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문맥에서 르네상스가 출발했다는 말은 끊임없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임을 나타낸다.

실패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을 풍기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했다는 것이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던 만큼 도전을 했고 그만큼 실패를 겪었다. 앞서 말했던 여러 꿈들을 접어둔 이유에는 몇 번 공모전에 참가했지만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 이 일화를 들으며 내가 겪었던 실패의 슬픔은 브루넬레스키의 절망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로마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문을 제작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에서 펼쳐진 경쟁, 그 최종에 가서 탈락하는 절망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도 다시 자신을 재정비하고 마침내 빛을 발했는데, 고작 몇 번 공모전에 떨어진 걸로 나 자신을 단정짓고 절망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듯 르네상스의 인물들을 내 삶과 연결시키며 시대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정신과 본질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로마가 로망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길을 잃어버린 곳일지라도 수 천 년 전 세계의 숨결이 닿아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에 교수님은 일부러 길을 잃으라고도 하셨다. 이 수업은 그 길을 잃는 재미를 예술과 역사, 문화를 연결해 이야기하며 극대화시켜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평화의 제단과 영묘’는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책과 관련된다. 작품 제목에 있는 ‘변신’의 함의는, 역사적으로 당시에는 공화정과 내란이 있었던 혼란의 시기를 지나 제국으로 ‘변신’하던 시기였고,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의 아우구스투스로 ‘변신’하던 시기를 말한다. 당대의 시대상황에 대한 많은 은유를 담고 있다.

작품의 내용은 쿠피도의 화살로 인해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한 다프네가 월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안에 아폴론 신이 아우구스투스를 보호하고 있지만, 로마 시민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거절한다는 시대의 분위기를 비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 수업은 예술과 문학, 역사가 유구하게 담겨 있는 로마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전달해주었다. 로마 예술이라는 아름다운 겉표지 안에 있는 두터운 문학적, 역사적 내용을 학생들이 읽어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작품들을 통해 복잡다단한 인간사와 역사를 마

치 연극을 보듯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수업 교재였던 ‘나의 로망, 로마’를 참고하면 로마가 로망이 되는 것은 이처럼 로마가 새로운 자신으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고, 곳곳에 유구한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교수님께서서는 이 책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로마를 떠날 때 ‘수탉’에서 ‘거위’로의 재탄생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위의 여행이란 여행을 통해 이성과 여러 지혜를 배우며 여행가기 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위의 여행을 하기에 로마만큼 적합한 장소가 있을까? 이 수업은 거위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이드북이자 초대장이었다. 교수님께서 아마 로마로의 여행을 통해 재탄생하는 자신의 모습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수업에 열정을 다하신 것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트레비 분수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눈요기하는 로마 여행이 아닌, 인생이 바뀌는 여행의 경험을 로마를 통해 소개하시고자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예술을 배우며 나 자신에 대해, 인간 본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고민했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거위의 여행을 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인생의 선택을 함에 있어 나다운, 인간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 큰 통찰을 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라는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듯,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를 성찰하기도 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발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나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실천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식을 넘어 태도를 바꾼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 참고문헌

- 수업 교재 ‘나의 로망, 로마(김상근)’,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김상근)’ 외

# 자유를 찾아, 정의를 향해, 진리를 깨우치는 나의 모험과 성장 이야기

전 예 령 (불어불문학과)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 ‘자유정의진리’로 교양 수업에 눈을 뜨다

‘자유정의진리(Liberty Justice Truth)’는 실천적 사유와 지적 소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교 1학년 공통교양 과목이다. 강의 이름이 말해주듯, 이 수업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인류 지성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정의, 진리에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학문이란 특정한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이 수업은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지(知)의 패러다임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떠나게 한다.

자유정의진리는 1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두 학기 동안 수강하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한 학기에 총 6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내가 1학기에 들었던 자유정의진리는 한국사학과 신진혜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 지도해주셨다. 이 과목은 다른 강의들과 달리 교수님의 설명이 수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나간 탐구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Q&A, 토론, 발표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 사례들이나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쟁점들을 제시해주셨다. 학생들이 서로 제기한 의문에 묻고 답하며 의견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보여주신 추가 자료를 통해 생각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를 다양화시킬 수 있어 소통의 장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난 학기에 처음 만난 이 수업은 나에게 진정한 대학수업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할 만큼 많은 지적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1학기에는 알파고와 코기토, 이성의 역사, 욕망과 무의식, 구조와 현상, 시각과 인식, 예술과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다루며 단일 분야를 넘어서는 간학문적인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비록 자유정의진리 과목이 심화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학습하는 것과는 수업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깊이 있게 지식을 습득하기 어

렵다는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나는 여러 분야의 융합을 통해 탐구의 깊이보다는 폭을 넓히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개개인의 전공에 국한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을 통해 교양수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불구하고 배움이 점점 늘어나고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유정의진리 수업의 매력을 한층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 2 수강 동기 : 무관심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성장으로

사실 자유정의진리 수업은 앞서서도 언급했듯 교내 필수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특별한 계기나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것이 왜 필수 과목인지,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당시의 나는 전공과목으로 모든 학점을 채우고 싶어 할 만큼 내가 좋아하는 관심분야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정의진리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들어야 하니까 듣는다는 무관심과 의무감으로 수강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업을 점점 들을수록 ‘자유정의진리가 필수교양과목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놓쳤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 강의는 살아가면서 쓰일만한 유용한 지식이나 교양상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적 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 생각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해나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태도와 자세를 키워주었다. 그렇게 자유정의진리는 내 대학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삶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게 해 준 인생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다.

2주마다 새로 접하는 주제들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비판과 사유의 가능성을 넓혀가며 나의 자만심을 허물었고, 진리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그 끝을 추적해가고 싶다는 탐구적 갈망을 채워 주었다. 이렇게 자유정의진리 수업이 내게 의문을 던지고 나는 이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한 학기를 보내다보니, 종강할 즈음에 다다르자 어느새 내가 학기 초와는 다른 학생으로 성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학교에서 필수 교양 과목으로 정해두었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들었던 이 수업이 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재미’에 깊숙이 끌어 들였고, 이 속에서 경험한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은 내 정신과 내면을 성숙하게 발전시켰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징점 : 소통, 공유, 참여로 배우는 지식의 내면화

자유정의진리가 다른 수업과 달리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발표한 내용으로 수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의

건공유의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 한 주제의 수업이 4단계로 나누어져,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혼합형 Flipped Class(거꾸로 수업)로 진행되었다. (비록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방침에 따라 오프라인 세션마저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켜고 의견을 내거나 각자 준비한 자료를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실제 수업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우려했던 바와 달리 수업 진행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에서는 온라인 강자로 기본적인 강의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난 뒤, 강의 영상에서 의문이 들었거나 비판할 만한 부분, 또는 함께 논의해볼 문제들을 제기하는 탐구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2단계에서부터는 Q&A를 진행하는데, 이는 앞서 제출한 탐구 질문을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Q&A를 마치고 나서는 수업시간에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신문기사, 에세이, 칼럼 등의 지문에 적용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제출한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글쓰기 내용을 또다시 공유하며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을 이어나감으로써 의견의 토대를 강화하고 생각의 폭을 넓힌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조별 발표를 통해 Q&A와 토론 수업에서 논의된 쟁점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그동안의 탐구과정을 실천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4단계 수업에서 과제물과 수업 참여도는 모두 과정 중심의 절대평가로 평가되었다. 이는 누군가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경쟁 심리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학기 초부터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어왔는지를 검토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자유정의진리 과목은 자율수강신청을 통해 전공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분반이 구성되는데, 이렇게 다채로운 분반 구성도 이 수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어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는 수업인 만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입체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서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제시하여 의견을 보충해줄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자유정의진리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강의는 많은 지식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얻어가는 것보다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기를 반복하며 지식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는, 내가 정말 그런 목표에 가깝게 성장해왔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4 성장 스토리 : 씨앗-뿌리-줄기-열매로 거듭나는 삶의 태도와 변화된 나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자유정의진리 수업이 내게 남긴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강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지적 탐구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고, 나의 성찰 의식을 일깨웠다. 이렇게 나를 성숙한 사유의 주체로 발전시킨 자유정의진리 수업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했는지,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간 과정을 다시 따라가 보며 성장 과정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자유정의진리에서 다루었던 6개의 주제 중에서 1강 ‘알파고와 코기토’강의는 가장 깊이 있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과목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준 수업이었다. 이 강의는 먼저 21세기를 놀라게 한 세기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적 사투로 여겨져 온 바둑에서 인공지능의 위협적인 능력이 확인된 순간부터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의식’의 존재가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있는 것인지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sup> 인공지능에게는 자의식이 있는가?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지게 될 것인가?

1단계 학습과정인 동영상 강좌에서는 자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약한 자의식(소극적 자의식)이며,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파악하고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 강한 자의식(적극적 자의식)이라고 했다. 인간은 신 중심 사회였던 중세시대는 물론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스스로를 강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증명해내지 못했다.<sup>2)</sup> 하지만 데카르트의 등장으로 ‘사유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가진 강한 자의식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의심해보라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데카르트가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주장함에 따라,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흔들리지

1) 흔히 인간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의식이란, 어떤 경험이 일어날 때 이 경험을 통일하는 자아에 대해 갖는 반성의를 총칭한다. 자아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발현하고, 자기 행위를 실천하는 ‘자기 동일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의식할 때 자의식이 발현되는 것이다. (조재룡, 『번역과 책의 처소들』, 세창출판사, 2018, 146쪽)

2)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는 인간성을 재발견한 인본주의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당시의 인간은 이제 막 자기에 대한 의식을 싹 틔우려는 시도의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은 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인간성을 오롯이 구현하는 존재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인간이 자기 존재나 행위를 의식하고 주관하는 주체라는 근대적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데카르트를 기다려야 했다.

않는 진리가 되었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방법적 회의는 철학뿐만 아니라 기하학과 천문학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유클리드는 의심을 계속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 최초의 지점을 ‘공리(Axiom)’라고 부르며 인간의 논리적인 사유 체계를 기하학을 확립하는 기준으로 세웠다. 또한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천동설에 의심을 거듭한 끝에 당시의 우주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동설을 주장하여, ‘생각하는 나’로서 인간의 존재가 우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규명하는 주체임을 증명했다. 철학 분야의 데카르트, 기하학 분야의 유클리드, 천문학 분야의 코페르니쿠스는 모두 인간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의 능력과 지의 논리를 통해 인간과 사물,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의 신 중심 사회에서 운명과 계시에 의지하며 수동적인 객체에 머물러 있던 인간의 존재가, 이성을 통해 의심하고 사유하며 세상의 중심에 서는 적극적인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를 통해 나는 인간의 자의식이란 끊임없는 추론과 판단을 통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자의식을 확립해온 과정을 토대로 자의식을 정의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에게 자의식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라는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인식의 대상이나, 인식의 주체이나를 고민하게 만든 물음이었고, 이제 인간만이 유일한 사고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직면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과 의문들을 탐구질문으로 정리하여 Q&A 수업시간에 공유했다. 나는 자의식이 주체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실천능력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하는 과정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과연 인간의 의지로 개발된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한 자의식을 온전히 ‘자(自)’의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논의를 이끌었다.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논리적인 추론과 다각도의 사고방법을 이해하면서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익하다고 느꼈던 점은 학생들의 발표가 자기 의견만 전달하고 마는 단절적인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학생이 남긴 답변에 반론하거나, 보충하거나,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관점의 세부질문을 제안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사유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소통의 장 속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Q&A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고의 방향을 다채롭게 뻗

어나가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Q&A 이후에는 앞선 과정을 통해 넓힌 생각을 기반으로 강의 주제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심화적으로 활용하는 글쓰기와 토론 활동을 진행했다. 나는 1강에서 다룬 인공지능의 자의식에 대한 내용을 영화 <그녀(Her)>의 장면과 연관시켜 이해해보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A.I의 자의식을 비교했다. 영화 <그녀(Her)>은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테오데르’라는 인간이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나”라는 DNA는 날 만든 프로그래머들의 수백만 성향에 달렸지만, 날 ‘나’답게 만드는 건 경험을 통해 커지는 내 능력이지.”라고 말하는 사만다의 대사는 인공지능 A.I에게도 자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있다는 가능성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자의식을 과연 인간과 같이 온전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영상 강좌에서 배운 인간이 강한 자의식을 증명해 온 배경을 떠올렸다. 인간이 이성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나’로 발전해온 과정을 생각해보니,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주체성’과 ‘자발성’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의식을 구성하는 것이 삶을 통해 축적해온 경험이기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의식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보다 경험을 어떻게 자기만의 것으로 내면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와 동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만다가 이야기하는 그녀의 ‘경험’과 ‘능력’은 모두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로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의 자의식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들을 모아 알고리즘으로 체계화시킨 모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공지능 스스로 본인의 존재를 정의내리고 인식하는 자의식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자의식을 만들어낸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자의식을 갖도록 길들여진 객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A.I의 자의식은 인간의 자의식과 같지 않다는 주장을 정리하여 글쓰기로 표현했고, 이를 토론 시간에 발표하며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자의식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할 미래사회에는 인간의 역할과 위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확장된 질문을 던졌다. 우리 조의 토론은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능력과 자의식의 세계에 침투해오면서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예견이 떠오르고 있음을 전제로 진행되었는데, 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학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3) 데카르트는 모든 변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철학적 기초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명제로부터 논증되지 않고 스스로 명백한 명제, 즉 모든 철학의 원초적인 명제인 동시에 토대가 되는 ‘제1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원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적 회의’를 고안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모두 의심하고, 더 이상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윤선구, “데카르트 『방법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03, 49~50쪽)

진 지배-종속의 이분법적 구도로 결정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sup>4)</sup>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도 보았듯이 인공지능의 능력이 이제 인간에 비견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자의식과 같은 인간 고유의 본성과 자질은 인공지능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사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우월성을 갖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이 우세한 위치에 선다기보다는 양 쪽에서 당겨지는 줄처럼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사용자-도구라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분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능력을 증대시키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5)</sup> 조원들은 내 의견에 동감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반문을 제기하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들을 통찰하게 만들었다. 서로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의견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러한 소통의 장에서 내 생각들이 여러 차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자유정의진리 수업에 참여하면서 나는 비로소 생각의 범위를 넓혀나가며 배움을 내면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었다. 동영상 강좌가 설명한 개념과 이론들이 하나의 ‘씨앗’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로부터 생겨난 의문과 호기심은 탐구질문으로 만들어져 생각의 출발점을 세우는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Q&A와 글쓰기로 이어진 의문해결 과정은 생각의 높이를 키워나가는 ‘줄기’가 되었으며, 이렇게 키운 생각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밖으로 표출되고 공유되어짐으로써 풍요로운 사고의 ‘열매’를 맺었다. 씨앗-뿌리-줄기-열매로 커져가는 성장과정에서 나는 최대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데 급급했던 예전의 마음에서 벗어나,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진정한 삶의 태도를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자세는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고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고,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배움의 즐거움을 직접 깨닫게 하였다. 이제는 새로 배우는 지식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역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고민을 통해 발굴해낸 지식의 의미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지식을 음미하고 감상할 줄 아는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통해 키워낸 삶에 대한 삶의 태도는 학업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나의 진로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보탬이 되었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진로는 프랑스의 고전문학을 한국어로 옮기는 불문학 번역가인데, 이 수업을 통해 훈련된 능동적인 의문제기능력은 문학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속뜻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키워주었다. 자유정의진리 수업의 모든 주제별 강의는 동영상에 설명한 내용에 관해 의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동안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곧이곧대로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며 그 속에 담긴 본질을 추적해나가려는 비판의식이 문학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도 발휘되어 불문학 번역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었다. 또한 이 수업에 담긴 의미 자체가 불문학 번역가로서의 직업적인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강의의 제목인 ‘자유’, ‘정의’, ‘진리’는 모두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당연한 가치가 아니라,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취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자유, 정의, 진리를 찾고 실현해내는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해온 사유세계와 정신적 탐구를 담아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문학이지 아닐까 생각했다. 이러한 문학은 작가와 독자가 나누는 사유가 글을 통해 교환되어 소통을 이루는 공간인데, 언어적 장벽에 가로막혀 소통이 어려워진 문학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작가가 펼쳐놓은 사유의 장에 더 많은 이들을 독자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 번역가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자유, 정의, 진리를 향한 인류의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 문학을 번역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찾아내는 모험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불문학 번역가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유정의진리’는 이 수업이 다루는 본질이자 수업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넓게 본다면 나의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유정의진리 강의에서 다룬 탐구의 내용을 내 진로와 연결지어 확장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다. 인공지능의 자의식에 대한 ‘알파고와 코기토’수업을 듣고 나서 A.I의 발전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호기심을 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탐구의 초점을 번역 분야에 두고 인공지능명 번역기술에 관해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 떠오르는 A.I의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이 기계번역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여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고 데이터화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 내가 처음 인공지능명 번역 기술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6년 구글에서 개발한 A.I 번역 서비스가 블루우(BLEU) 점수에서 엄청난

4)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견은 인간이 창조자로서의 우위를 지닌 상태에서 인공지능과 통제 가능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인공지능에 오히려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상황에 따라 이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255~258쪽)

5) 이언 M. 뱅크스(Ian M. Banks)의 <컬처 시리즈(The Culture Series)>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이러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 소설은 A.I에 의해 작동되는 ‘컬처’라는 사회를 주 무대로 하며, 여기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다. 컬처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요구대로 복종하는 기계적인 부속물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인간을 보살피고 인간의 삶을 윤곽하게 만들도록 헌신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향을 보였다. 기사를 보고 나서였다.<sup>6)</sup>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나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만큼이나 번역에서도 인공지능 A.I가 인간과 유사하거나 인간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두고 이루어진 인공지능과 인간의 번역본을 비교하는 테스트에서도 A.I 기계번역이 인간 번역가에 우세했다는 결과는 나를 놀라게 했다.<sup>7)</sup> 이러한 인공지능 번역의 발전을 보면서 앞으로 번역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과 위치는 어디쯤에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고,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한다면 번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키워야 할 역량은 무엇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A.I의 인공지능망 번역 기술이 번역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고 나의 진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비하고자, ‘알파고와 코기토’의 주제를 확장하여 새로운 탐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 5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 배움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의 확립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듣기 전의 나는 사실 교양수업에 거의 흥미가 없었다. 그때 나는 전공과목인 불문학 수업에만 몰두해 있었고, 그 외 관심분야에서 벗어난 과목들은 학점 매기기 식으로 무미건조하게 들으려고 했던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꼭 듣도록 필수과목으로 정해줘서 듣게 된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 강의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학교를 졸업했을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동기를 갖지 않고 듣게 된 이 수업이 나를 교양수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매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와 닿았다. 자유정의진리 수업에서 다룬 6개의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 각각의 주제들은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자유정의진리가 내 눈앞에 펼쳐 보인 자유로운 사유의 토대 위에서 나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의미를 내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질의 지적 경험은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넘어 교양수업 전반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수업은 나에게 교양수업의 맛을 알게 해 준 “인생교양”과

6)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 평가는 번역기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인간 번역과 기계 번역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여 번역의 성능을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번역기의 점수는 이전 기술로 만들어진 통계 기반 번역기가 받은 20점대 후반보다 7점이나 앞섰다. 이 평가에서 1점의 향상은 ‘good(좋은 것)’, 2점의 향상은 ‘outstanding(뛰어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구글의 인공지능 번역기가 보여준 7점의 향상은 대단히 놀랄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프랑스어 쌍의 신경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구글 개발팀이 지난 10년 동안 올린 점수 차를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기도 했다. (Gideon Lewis-Kraus, “The Great A.I. Awakening”,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16. 12.14. (<https://www.nytimes.com/2016/12/14/magazine/the-great-ai-awakening.html>))

7) “인공지능 번역, 언어통일 시대가 오고 있다”, 한겨레, 2016.02.13.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2345.html#csidx21ea176ffdc5e77bee18a24580aeda4](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2345.html#csidx21ea176ffdc5e77bee18a24580aeda4))

목이 되었다.

교양과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성장 스토리 자체도 내가 자유정의진리를 인생교양 과목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배움을 통해 나를 성장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인생교양”을 정할 수 있다면 자유정의진리 수업 말고도 많은 교양과목들이 인생강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유정의진리가 내게 갖는 의미는 더 특별했다. 이 수업은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배움을 향한 태도와 인생 전체의 방향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문에 관해 탐구하고, 말과 글로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4단계의 수업방식을 통해 배움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키울 수 있었다. 동영상 강좌를 보고 나서 내가 던진 물음은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심화한 탐구활동은 그 점을 ‘선’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서 내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합침으로써 여러 차원의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에는 ‘면’을 만들어냈다.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들으면서 배움이란 이처럼 의문과 탐구의 연장선을 통해 지식과 생각을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좀 더 나아가, 자유정의진리는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관과 그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이 수업에서 다뤘던 6가지 주제를 넘어서는 더 크고 보편적인 인생에서의 ‘자유’, ‘정의’, ‘진리’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깊이 성찰해보게 되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자유를 실천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에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지도로 찾은 정착지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오늘의 지식으로 구한 답은 내일이면 소용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의 불완전함 속에서 내 삶이 향해야 하는 목표는 ‘실천’적인 의지를 발휘하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사고하는 주체로서, 세상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해 문제를 탐구하고, 탐구의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고안해내면서 끊임없이 앎을 향한 성찰적인 실천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주체로서,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탐구를 통해 알아낸 새로운 앎을 현실세계에 적용함으로써 자유, 정의, 진리를 직접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나에게 실천의식이란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천의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자유정의진리는 나를 진정한 ‘주체’로서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내게 인생의 한 부분을 가르친 수업이기 때문에 “인생교양”이라 불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사유와 판단의 주인공이 되는 ‘자유’를 경험했고, 올바른 기준으로 공정한 도리를 판단하는 ‘정의’를 모색했으며, 지의 영역에서 ‘진리’의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인간으로 성장했다. 이는 자유정의진리가 매 수업마다 내 안에 있

던 사고 회로의 버튼을 눌러, 새로운 지식에 의문을 품고 해답을 찾아내려는 탐구 의지를 발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정의진리가 남긴 변화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자유정의진리는, 삶에 대한 삶의 자세를 키워준 인생의 교과서가 되었으며, 이 수업에서 키운 배움의 태도와 인생의 가치관은 미래의 나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장원(2016.03.05), “인공지능이 자의식에 눈뜨는 날,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305171654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3051716541)>, (2020.11.02.).
- 권오성(2017.02.13.), “인공지능 번역, 언어통일 시대가 오고 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2345.html](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2345.html)>, (2020.10.28.).
-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 성찰-데카르트 연구』, 최명관 옮김, 도서출판 창, 2010, 134~147쪽.
- 윤선구, “데카르트 『방법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03, 49~50쪽.
- 조재룡, 『번역과 책의 처소들』, 세창출판사, 2018, 146쪽.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255~258쪽.
- Gideon Lewis-Kraus(2016.12.14), “The Great AI Awakening”, 《The New York Times Magazine》, <<https://www.nytimes.com/2016/12/14/magazine/the-great-ai-awakening.html>>, (2020.10.28.).
- Mike Schuster, Melvin Johnson, Nikhil Thorat(2016.11.22), “Zero-Shot Translation with Google’s Multilingual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 《Google AI Blog》, <<https://ai.googleblog.com/2016/11/zero-shot-translation-with-googles.html>>, (2020. 11.01.).

## 교양에서 만난 공감, 인생을 바꾼 전환점

윤채은 (과학교육과)

저의 인생 교양 강의인 ‘호모엠파티쿠스: 소통, 공감, 신뢰’(이하 ‘호모 엠파티쿠스’)는 교양 필수 과목인 진선미(인성) 과목에 포함된 과목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양 수업입니다. 이 강의는 대학생의 인성교육, 공감 교육을 연구하신 교양대학 소속 이은아 교수님의 강의로 2019년 1학기, 제가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수강했던 교양 강의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에게 소통과 공감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는 관계의 불신과 갈등을 만들어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소외시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감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에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자아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이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통해 공존을 위한 관계 맺기를 연습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개별 개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인간이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관계들이 모여 사회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은 토론과 강의 그리고 팀 활동과 개인 프로젝트가 적절히 섞여 진행되었습니다. 학기 전반부에는 주로 토론 위주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수업 전 제시되는 읽기 자료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후 수업에 참석하면, 수업 시간에는 관련 이론에 대해 배우고 팀원 혹은 전체 수강생 모두와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시되는 읽기 자료는 수업 주제를 다루는

책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공감을 비롯하여 자존감, 소통, 편견, 협력 등과 관련된 책을 고루 읽고 사유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기 후반부에는 팀원 모두가 함께 공감해 볼 대상을 정하고 실제로 공감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제로 공감하기를 연습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팀 활동을 위주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 1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전

‘호모 엠파티쿠스: 소통, 공감, 신뢰’라는 흥미로운 과목명은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강의계획서를 열어보았을 때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수업 참여를 위해 읽기 자료를 매주 읽어야 한다는 것,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 주의사항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업을 처음 듣는 저로서는 지레 겁을 먹고 걱정을 먼저 하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 함께 토론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페이지를 넘겨 주차별 주요 강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존감, 학력 위계 주의, 가족 등 제가 눈앞에 맞닥뜨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종종 사랑, 학벌주의 등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논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본 것 있었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운 마음은 접어두고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대학 강의에서 이런 경험이 가능하다고?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이 진행되는 한 학기 동안 학관 509호에는 학번, 학년, 전공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90여 명의 학생이 재잘대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본인의 생각을 나누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는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수업 시간이 토크콘서트에 온 것처럼 즐거웠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학기 초, 뒤쪽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큰 강의실 입구에 서서 ‘이런 게 대학 교양 수업이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90여 명의 학생으로 가득 메워진 강의실 앞 교단에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서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호모 엠파티쿠스’의 첫 수업이 기억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수업 진행에 중요한 준비 사항이었던 만큼 첫 수업부터 많은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쪽에 앉은 2학년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새내기를 위해 학교 근처에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 있는지 질문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소개해주신 카페에 가서 커피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서 편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기에, 저도 용기를 내어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다들 어지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이 전부였고, 그조차도 유창하거나 매끄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황설수설 말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 정리해 주셨기에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충분히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수업 환경은 제 마음의 키를 쏙쏙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수업 중반부 이후에 팀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팀 토론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팀 안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소소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읽기 자료를 미처 못 읽은 학생이 있다면 토론의 진행자 역할을 맡아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듣는 사람은 경청하고 공감하기 등과 같은 규칙들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교단에서 내려오셔서 각 팀의 토론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개입하셔서 다른 관점, 다른 질문을 던져주시곤 하셨습니다. 팀 토론 시간이 끝나면 일부 조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와 공유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수업의 수강생과 교수님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모든 수강생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소속감이 생겨 마음을 열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업이 토론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문을 열기’와 ‘질문하기’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진행되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교육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파울루 프레이리의 ‘은행 저금식 교육’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공감을 다루는 차시에서는 “동정과 공감은 같은가 다른가?”, “왜 누구는 공감하고 누구는 그러지 않는가?”, “공감이 인간의 본성인가? 그렇다면 공감 교육이 필요한가?”와 같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형식 덕분에 수업 주제에 완전히 녹아들어 온몸으로 내용을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주 읽기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단어, 새로운 개념,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질문을 제기하는 책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읽고 고민하던 시간이 쌓이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이 던지시는 의미 있는 질문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소

통하는 때 수업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이 교양 강의의 과목명인 ‘호모 엠파티쿠스’에서 ‘엠파티’는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empathize에서 온 것입니다. 즉, 호모 엠파티쿠스란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업은 공감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되었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혹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공감 어원의 유래,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감의 기원(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인가), 공감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후 수업 주제로는 공감의 한계, 가족과 친구, 소통과 협력 등 소주제를 공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생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낯선 타인 가족에 대한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관계에 감정노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과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가족관계가 어려울 때 많은 회의감과 불안함, 억울함 등을 느꼈는데 그동안 가족이 ‘타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번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호모 엠파티쿠스’ 강의는 ‘공감’에 대해 다루는 강의인 만큼 수업 내용이 우리 삶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나아가 나의 삶, 나의 인생에 스며들어있는 관계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수업의 두 가지 특징(생각해보지 않았던 공감에 대해 다루기, 수업 형태)만으로도 ‘호모 엠파티쿠스’는 충분히 좋은 수업이지만, 어떠한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감은 감정의 영역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혹은 이해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천적으로 표출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실제로 공감해보는 활동을 통해 글로 읽고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에 기억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반부는 기말고사 대신 본인이 공감할 대상을 정하고 직접 공감해본 후 그 경험을 적는 보고서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체적으로 공감할 대상도 정하고, 공감해보고,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신과는 또 다른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공감하는 생각만 해보는 것과 실제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이상 이러한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천해본 공감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 3 놓칠 수 없는 인생 교양의 모든 것

제가 ‘호모 엠파티쿠스’를 제 인생 교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교수학습법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업 내용을 통해서는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배웠다면,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예비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수업 내용에 따라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로서 미래에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곤 합니다. 제가 중고등 학생이었을 때에는 단순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형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이라는 말이 많았던 시기여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기존과 다른 학생 주도형 수업 방식을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기에는 어려웠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호모 엠파티쿠스’에서 사용한 토론과 강의식 수업을 적절히 섞은 수업, 그리고 수업 내용과 이어지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완벽히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업 방식은 정말 수업의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앎을 추구하는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전공 교과목 중 ‘통합과학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다양한 과학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 배웁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은 교수학습이론 중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sup>1)</sup>에 기반 한 순환학습모형<sup>2)</sup>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발달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여기서 도식이란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구조 즉 개념 체계입니다. 유기체가 가진 기존의 인지구조가 새로운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은 동화,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아 인지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본인의 도식을 새롭게 변형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져 자신의 도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인지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을 통한 평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개념의 정의, 관계 등을 짚어주시면서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수업 방식이 순환학습 모형의 탐색, 개념도입, 개념적용 단계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 내용에서 이러한 방식의 순환학습모형 단계를 따르는 것이 학습에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미환, 최윤진, 안정희, 김경미, 홍경선, 최정희. (2018). 교육심리. 교육학개론 (제1판, pp. 203-209). 서울: 동문사.

2) 김희경, 윤희숙, 이기영, 하민수, 조희형. (2020). 과학 교수 학습 모형. 과학 교육론과 지도법 (제1판, pp. 325-340). 서울: 교육과학사.

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교수학습모형이 이상적으로 수업 현장에 적용된다면 ‘호모 엠파티쿠스’에서 경험한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의 교사로서 이런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전공 교과에서 배운 교수학습모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흡입력 있게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양한 학생, 다양한 수업 방식 그리고 다양한 질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업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제 인생이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지식, 경험, 깨달음은 절대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진행했던 공감 해보기 실습 프로젝트는 저를 이전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공감의 대상을 비건으로 정하고 4일간 락토 비건으로 생활하며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타인과 공감하는 활동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로 인해 제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비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통합적 이해의 바탕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협업 능력을 습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발전시켰고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중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4 호모 엠파티쿠스를 향한 여정

수업 후반부의 개별 공감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대상을 정하고 공감하는 일련의 과정이 항상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팀원들과 함께했기에 더 좋은 공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별 공감 프로젝트는 팀별로 같은 주제를 정하고 개인별로 공감을 실천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감의 대상을 ‘비건’으로 정했습니다. 비건이란 동물을 착취하여 얻은 어떤 것도 활용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말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다.<sup>3)</sup> 학교 근처에 있는 비건 식당이나, 학생회 간식의 비건 옵션을 통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해 공감해 보아야겠다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비건을 공감의 대상으로 정했을 때는 단순히 그들이 사회의 비주류로 소수이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수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공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환경과 동물권을 비롯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기에 공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비건으로 생활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상황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비건이 되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건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든 동물 유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도 있지만, 동물성 식품 중 알만을 섭취하는 오보 비건, 유제품만을 섭취하는 락토 비건도 있습니다.<sup>4)</sup> 팀원 모두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육식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락토 비건을 나흘 동안 실천해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직접 실천하기에 앞서 비거니즘에 대해 더 잘 알아보기 위하여 팀원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관련 책과 글을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같이 보았던 멜라니 조이 박사의 동영상에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가공되어 우리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잔인한 사육과 도축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sup>5)</sup>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동물과 고기의 관계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비건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비건을 실천하는 나흘 동안 단체 채팅방에 각자의 식단을 올리고 서로를 응원해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도 학교 근처가 비건 음식에 접근하기가 좋은 편인데도, 나흘 동안 락토 비건으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샐러드 가게에 가도 닭 가슴살, 연어, 달걀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 가기보다는 빵이나 간편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2년째 비건을 하고 계신 학우분께 비건 음식을 대접하며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비건 하면 단백질 부족해서 건강 나빠지지 않아요?”, “네 앞에서는 고기 얘기하면 안 되겠다.”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특히 상처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걱정되

3) 김유경. (2020). ‘베지테리언’과 ‘비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https://www.spcmagazine.com/베지테리언과-비건\\_together2\\_200424/](https://www.spcmagazine.com/베지테리언과-비건_together2_200424/)

4) 임소민. (2017). 고기를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채식주의자 종류. [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0754.html](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0754.html)

5) Se-Hyung Cho. (2016). 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박사가 말하는 우리가 몰랐던 육식의 이유. [https://youtu.be/boUm\\_asEhQ4](https://youtu.be/boUm_asEhQ4)

는 마음에, 배려하기 위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비건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해보니 왜 그런 말들이 폭력적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락토 비건 실천 기간이 끝나고 조원들과 다시 모여 각자의 경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비건’임을 밝히는 것,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비건 음식을 찾는 것, 무심코 들리는 편견 가득한 한 마디를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고, 상처가 되는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수업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비건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타자화하고, 기저에 깔린 막연한 편견에 표면적으로 공감하는 척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기 전에는 공감이 필요한 이유조차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비건에 공감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며,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건과 공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비거니즘’이라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가 육식 정당화 사회였으며, 환경과 동물권에 육식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수인 비건에 비해 다수인 육식주의자의 무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폭력으로 작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서 육식 위주의 식단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는 것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 세상을 구성한다는 것까지 의식을 확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이번 교양 수업에서는 ‘비건’에 대해서만 공감해 보았지만, 공감 연습을 하기 전과 후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타인이 겪는 일에 대해 언제나 그 상황이 되어 생각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누군가가 겪는 일을 선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양 강의인 만큼 팀원들과 협력하며 인간이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동체의 공통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감을 함께 연습하는 팀원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대부분 팀에서 주제만 공유하고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팀원들끼리 시간을 맞춰가며 인터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며 더 좋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혼자일 때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첫 교양강의인 ‘호모 엠파티쿠스: 소통, 공감, 신뢰’는 인생 교양 강의인 만큼 이를 통해 세계화된 지식기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양해야 할 공감 능력과 자질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양 교육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이전에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진정으로 사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양수업을 단순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문헌

- 김미환, 최윤진, 안정희, 김경미, 홍경선, 최정희. (2018). 교육심리. 교육학개론 (제1판, pp. 203-209). 서울: 동문사.
- 김유경. (2020). ‘베지테리언’과 ‘비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https://www.spcmagazine.com/베지테리언과-비건\\_together2\\_200424/](https://www.spcmagazine.com/베지테리언과-비건_together2_200424/)
- 김희경, 윤희숙, 이기영, 하민수, 조희형. (2020). 과학 교수 학습 모형. 과학 교육론과 지도법 (제1판, pp. 325-340). 서울: 교육과학사.
- 임소민. (2017). 고기를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채식주의자 종류. [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200754.html](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200754.html)
- Se-Hyung Cho. (2016). 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박사가 말하는 우리가 몰랐던 육식의 이유. [https://youtu.be/boUm\\_asEhQ4](https://youtu.be/boUm_asEhQ4)

# 현대 사회에서 나를 알고 표현한다는 것

박 소 정 (석당인재학부)

## 1 들어가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다. 아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난 후부터 였던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갖춘 것들이 그 속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반면, 이에 따른 윤리적 가치나 제도, 판단 등은 제대로 발맞추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순식간에 복잡한 세상에 이끌려 어디론가 휩쓸려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난, 맨 처음의 질문들을 던지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항상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정리하지도 못한 채 넘어가고 그저 질문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공허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이 공허함을 채워준 것이 바로 우연히 만난 나의 인생 교양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교양이 어떻게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는지 알아보자.

## 2 운명처럼 만난 인생 교양

우선 나의 인생 교양이 어떠한 과목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 교양만이 가진 특징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1) 나의 인생 교양

나의 인생 교양은 바로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이라는 강의이다. 이 강의는 강의 명 그대로 인문학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강의 명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고자 한다. 먼저 여기서 ‘인문학 (人文學)’이라 함은 한자 그대로 사람의 무늬 즉, 사람의 흔적을 뜻

한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 도덕, 문화, 제도 등을 연구하여 인간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사고’이다. 인문학적 사고의 핵심은 개인을 돌아보는 성찰적 사고와 개인과 타인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에 있는데, 사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역량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는 차별과 혐오, 연민과 공감, 행복 그리고 죽음 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본모습을 마주하며, 나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 또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한 나의 의견을 토론, 스피치, 경청 그리고 쓰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도 배웠다. 이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기표현을 위해 맞춤법, 어색한 문장 표현 고치기, 출처 표기법 등의 실질적인 부분도 배웠다. 즉 이 교과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자신과 세상에 끝없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답을 타인과 공유하여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배우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볼 수도 있고 자아를 찾아 가는 등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된다.

이 강의는 교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여러 명의 교수님들께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그 특성상 많은 교수님들 중 ‘김혜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김혜정 교수님께서 담담을 하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열정이 많으셔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 보면 도움이 될지 많은 시도를 해보시기도 하고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신 점은 나에게 대학 교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주셨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의 내용들에서 이어가려고 한다.

### 2) 인생 교양의 첫 시작

사실 이 교양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이라는 강의 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난 강의 명을 본 첫인상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인문학이라 함은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50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한 책을 읽고 강의실에 앉아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이 절로 그려지는 과목이었다. 조용하고, 지루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연상이 되어 꺼려지는 수업에 불과했다. 만약 이 과목이 교양 필수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처음에는 왜 이런 수업을 필수로까지 지정해서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초반에는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저 틀어놓기만 하고 열심히 수강하지 않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전부 선입견에 불과했다. 직접 해보지도 않고 떠오르는 이미지로만 그 대상을 단정 짓는 편견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한 과제(이어지는 다음 부분들에서 이야기할 것이다.)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 편견이 깨졌다. 오히려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능력들이 요구되었다. 또 강의 내용도 그저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눈이 가고 또 끝나고서도 진한 여운을 남긴 강의였다. 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 “교양 기초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sup>1)</sup>라고 정의한 것을 읽고 보니 이 과목과 너무나도 비슷하여 왜 교양 필수 과목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교양의 표본을 수강한 것 같았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게는 이제 운명인 듯하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 3) 나의 인생 교양만이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인생 교양은 아주 실질적이었고 인생의 환기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점으로 뽑고 싶다. 사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흔히들 말하는 캠퍼스 로망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간접적으로 캠퍼스 로망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대학교의 현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오히려 생각보다 작은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인간은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익숙함을 느낀다. 나 또한 이제 모든 것에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도 모르게 캠퍼스 로망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전의 공부와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실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새로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처럼. 하지만 그대로였다. 수업의 방식, 과제의 수행 등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배움을 통해 나의 마음이 동하고 성장할만한 전환점이 없다는 것은 여전했다. 물론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준 것이 바로 이 과목이다. 내가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내고 있던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고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아니 내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눈에 들어오고 뉴스를 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거창하진 않지만 나만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또 쓰기 수업의 일환으로 출처 표기를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운 것도 나의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레포트라는 것을 대학에 와서 처음 작성하다보니 출처 표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그때그때 대처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 출처 표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헛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출처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 것이다.

실질적이었다는 것 외에도 이 교양은 내 인생의 환기구가 되었다. 그 이유는 위의 내용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학 입학 후 달라진 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학습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전했던 반면 살아가는 방식은 또 너무나도 달랐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1단계를 전전하던 게임 초보가 갑자기 높은 레벨의 스테이지 앞에 놓여 있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고등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부분들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처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스스로 중심을 잡을 만큼 내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대 없이 휩쓸려 다녔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전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새로운 이들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향의 순간에서 환기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과목이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학기 동안 수행했던 과제들이 답답한 일상의 환기구가 되어준 것이다. 초등학교 이후 나를 주제로 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도중, 오랜만에 나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찬찬히 과제물을 읽어보며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한 시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다. 이전의 나를 되찾아 주기도 했고 앞으로를 살아갈 새로운 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만약 이 과제들이 학점과 연관이 되었다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밖의 형식이나 외부의 요소들에 더 치중하여 좋은 점수를 받기에 급급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절대평가로 진행되었다는 전제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이 과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주관적인 의견을 적는 것이므로 되도록 단순 채점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마음 편히 과제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시는 것 대신 학생 한 명 한 명의 과제에 피드백 댓글을 달아주신 것은 교수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큰 힘이 되었다. 과거의 혼란스러웠던 나에게, 그럴 필요 없이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의 인생 교양이 가진 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어느 순간 인생 교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특징점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

### 3 인생 교양과 함께 찾은 ‘나’와 ‘세상’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강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색을 넘어 ‘공동체’ 그리고 ‘더 넓은 세계’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나의 인생 교양으로 선택하였다. 또 새로운 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도 인생 교양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깊은 여

운을 주는 등이 있는데, 과연 이 과목이 어떻게 해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다음의 내용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 1) 나에 대한 탐색

### ① 나의 과거와 미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소설 『모모』의 일부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하는 활동과 인생 단어를 선정하는 활동을 통해 나를 돌아보았다. 소설 『모모』 중 제대로 된 인생이란 무엇이며 한 인물은 그것에 대한 답이 잡지 속에 나오는 화려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나의 속마음이 들킨 듯한 기분이었다. 나 또한 제대로 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러지는 제대로 된 인생에 대한 이미지는 SNS 속 가득한 사진이다. 나의 기준에서 SNS 속 가득한 사진은 여행, 화려한 일상,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생을 재밌게 보낸 것처럼 다가온다. 그렇다 보니 나의 SNS가 사진으로 가득하지 못한 반면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의 풍성한 SNS를 볼 때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저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인생을 재밌게 보내는 반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뭘 해 놓았지?’와 같은 생각 말이다.

또 인생 단어를 적어보는 활동에서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해 규정할 수 있는 단어로 ‘계획, 돌담, 성찰’을 선택했다. 나를 돌아보면, 항상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습관화되어있고 이러한 습관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지만, 아닐 때도 있음을 느낀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만약 계획을 세운 대로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적용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방이 반응 하지 않거나 상대방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먼저 선을 긋고 단정 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리 짐작하고 돌담을 쌓은 것처럼 막아버리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불편한 자리는 먼저 피해버린다. 그래서 사전 속 돌담이라는 단어에 계속 눈이 갔던 것 같다. 하지만 반면에 장점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다. 나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신의 단점이나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성찰을 통하여 바뀌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스스로 계획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나의 과거는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숨 막힐 정도로 정해진 것에 따르는 등에 익숙해진 삶인듯하다. 남과 비교를 통해서 더 낫기를 바랐고 이 과정에서 난 뭔가 모를 조금함과 불안감이 생겼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확실한 결과와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따라다닌 듯하다. 게다가 안전을 추구하기에 도전하지 않은 삶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내가 바뀔 수 있게 힘을 준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교수님의 피드백이었다. 교수님께서는 나의 상황에 충분한 공감을 해주시면서 굳이 짜여진 것에 맞추지 말고 한 번쯤은 즉흥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냐며 조언을 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인마다의 삶이 있는 것인데 누군가의 SNS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충고도 주셨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던 점들이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경험을 하며 나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곧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것뿐이다. 누군가 나의 앞날을 위해서 응원을 해 준다는 것이 힘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에 입학 후 처음으로 교수님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조언을 얻은 것은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응원에 힘입어 현재는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 작은 것부터 도전해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신청하여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사실 이 교양 콘테스트에 참여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짜여진 것에서 벗어나 도전하고 내가 그동안 피해왔던 벽을 두드리기 위한 것 말이다.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가능한 집중 하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몰입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며 소소한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 ② 내가 몰입하는 것 찾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요즘 내가 좋아하고 몰입하는 것들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난 평소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등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다. 아니 착각했다. 여러 과제 중에서 ‘내가 몰입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그림, 운동 등에 대해 답하면서 확실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춤거리기도 하고 한 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답을 적었다. 사실 이 활동을 하면서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쉽게 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에 나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보지 않았던 것에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린 후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인지 어느 날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면서 내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몰입함을 알게 되어 진로까지 설정하게 되었다. 아마 이전의 나였다면 그저 지나가는 영상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던 노력이 일상이 되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

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으로 형성되기도 했다. 또 이것이 사회의 문제나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에 도움이 되었다. 즉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2) 공동체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탐색

공동체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탐색도 결국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 ①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현대의 사회는 이미 세계화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다른 으로부터 오는 차별과 혐오는 현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차별과 혐오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지양해야 한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차별과 혐오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배웠다. 혐오라는 감정을 빌미로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폭력 등의 행사를 한다면 이는 정확히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난 지금까지 차별과 혐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확히 마주하여 그 안을 들여보진 못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에 계속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마주하여 많은 이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개인이 평소 차별과 혐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고, 많은 매스컴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 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린 이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연민과 공감이다. 이전의 나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연민이란 그러한 감정과 더불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반응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감응할 수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 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통

이 강의에서는 위의 내용처럼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교류를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의 일환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비록 토론이 비대면으로 인해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지만 토론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사실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말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에 약간은 꺼려졌다. 하지만 이 활동을 끝낸 후에 토론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토론은 내가 정말 아무 것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전의 매력을 느낀 활동이었다. 우선, 기본적인 지식이나 평소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토론의 주제인 기본 소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현재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은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더 창피해졌다. 그 동안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나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사, 경제 등의 분야를 등외시 한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변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하여 얻은 정보가 있어야 비판적으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의 재미를 한 번 느껴보니 최근에는 뉴스를 조금씩이라도 챙겨보고 포털사이트의 관심 분야 리스트도 더 다양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을 때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나의 토론 개요서만 보았을 때에는 정말 반박할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몇몇의 반박 댓글들이 달렸다.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며 투덜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나의 글에서 보이는 허점 투성이들을 보니 창피했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에 후회를 했다. 무엇보다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을 보면서 토론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것에 반성을 했다. 토론을 하는 내내 ‘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다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알아왔지?’하는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에 반성을 하기도 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과 효과가 이런 것이 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렇듯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다양하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로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도 끊임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4 마무리 하며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나를 적절히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하여 ‘나’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알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의 인생 교양이다. 나의 인생 교양은 이제 나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아 무엇을 하든 연관되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끊임 없이 질문하고 사고를 하게 만든다. 즉 강의로 배운 것이 내 제화 되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깨우쳐 준다. 좋은 교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학생으로 하여금 끊임 없이 사유하게 하고 인생의 지침서처럼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난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켜주고 깨달음을 주는 포인트가 운명적으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02



1. 인간의 몸에 새겨지는 사회적 아픔을 배우다 | 설재민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다 | 김예원
3. 마음 깊은 곳 '책임의 윤리'를 새기기까지 | 강민선
4. 내가 만난 프랑스인들 | 유소희
5. 교실에서의 시간여행 | 이수진
6. 취향으로 세상 읽기, 예술로 스포츠 읽기 | 박소연
7. 생물학과 철학의 창조적 접점 찾기 | 경어진
8.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 강현지

# 교양으로 세상을 만나다



An illustration of a white shelf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On the left, three books stand upright: a blue one, a pink one, and an orange one. On the right, three books are stacked horizontally: an orange one on top, a pink one in the middle, and a blue one at the bottom.

인간의 몸에 새겨지는  
사회적 아픔을 배우다



## 강의 목적 및 강의 주요 내용

[illegible]

송기영이 바로 앞받침단인 그릇앞으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 역시, 그의 거사를 읽고 책을 읽는 하면서 생각해서만 사회 문제의 현상을 인지하고 학자보다는 더욱 실천적으로 의 사회를 개혁하고 대변을 낼 수 있는 일까?



송기영

The diagram consists of three overlapping circles, each with a distinct icon and text. The left circle has a camera icon and the text '다양한 نوع의 혁신' (Diverse Innovation). The middle circle has a network icon and the text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ight circle has a speech bubble icon and the text '사회와 시장을 통한 혁신' (Social and Market-oriented Innovation). Below each circle is a brief description of its focus.

다양한 نوع의 혁신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사회와 시장을 통한 혁신
단순의 공룡화,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	수업 중 다른 전문직적 개념을 해결로 문제해결에 접목	선진형 모방보다는 능동적이며 문제해결의 중요



Fresh Fruit,  
Broken Bodies

Naturalization  
Of  
Suffering

자연식욕기

인생교양 : 문화와 질병

## 설재민 (국어국문학과)



### 1) 사회가 낳은 아픔에 대한 고찰

문화와 질병은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아픔을 다룬다. 즉, 이는 한국사회에서 빚어진 아픔에 대한 민속학이자 “어떻게 아픔은 문화가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모색해나가는 강의이다.

본 강의는 과연 어떠한 ‘아픔’이 한국사회에서 당연한 문화인 듯 ‘믿어지고’ 있는가에 착목한다. 이때 아픔은 ‘질병’이라는 의학적 용어와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국한되어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관찰된 광의로서의 아픔을 일컫는다. 이는 곧 아픔에 대한 몰이해의 전통에 관한 탐구이자 아픔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대한 검토인 것이다. 단, 본 강의는 ‘문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아픔을 논하면서도 모든 아픔을 문화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문화’라는 개념 뒤에 가려진 구체적 실재에 대한 명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질병 수업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체적 아픔들을 다룬다. 예컨대 성형, 장애인, 감정노동, 공장장애, 낙태, 난임, 산업재해, 자살, 중독(스마트폰, 소포, 술, 담배, 마약), 섹슈얼리티(성소수자, 성산업), 사회적 참사(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죽음(노년, 요양, 장례, 존엄사), 이주민(및 난민)의 건강, 인류세와 건강(미세먼지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강의는 이러한 주제들을 보다 풍부하게 논하고자 인류학의 여러 개념 및 논의들을 함께 다룬다. 인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몰이해’에 대한 연구이며, 새로운 사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고로 본 강의는 기존의 인류학 논의를 습득 및 내재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만연한 습관적 사고를 묶어두고, 아픔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경험하기를 추구한다. 문화가 치유뿐 아니라 실질적인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고통의 모습들을 대면하고, 이를 통해 몸을 병들게 하는 여러 고통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 2) 포토보이스, 문제의식의 표면화

문화와 질병 강의는 ‘포토보이스’라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15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포토보이스는 1994년 Wang과 Burris가 만들어낸 ‘사진(photo)’과 ‘사진 배후의 이야기(novella)’의 합성어인 ‘포토 노벨라(photo novella)’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sup>1)</sup> 포토보이스는 말 그대로 사진이라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드는 참여형 연구방법론이다. 이는 사진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면화하므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해도 간단한 사진 촬영 방법을 교육받음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2)</sup>

본 수업은 매주 수업 참여 전 해당 주차에 다룰 읽기 자료를 미리 읽고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중 다룬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몸에 대한 뒤뜰린 시선 : 성형에서 장애까지
- 노동하는 몸에 대한 차별적 시선 : 해고, 산업재해
-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 : 낙태에서 난임까지
- 중독으로 내몰리는 시선
- 칼이 된 타인의 시선 : 자살
- 모멸적 시선의 일상화 :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 성에 대한 경멸의 시선 : 성소수자와 성산업
- 사회적 참사 (가습기 참사, 세월호 참사)
- 소멸되어가는 시선들: 노년
- 혐오의 시선 : 이주와 난민
- 인류세 시대의 건강 : 미세먼지의 인류학
- 마무리 종합 강의 및 토론 : “상처에만 상처받기”

1) 이채림,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한 공감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서울교대 석사논문, 2019, 5쪽.

2) 이현, 곽주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과 성장: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 (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9.12, 152~153쪽.

## 3) 교수자 소개: 김관욱 교수

문화와 질병 수업을 담당하는 김관욱 교수는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이다.

의사인 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의료 인류학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이어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의료인류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우리대학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여성 흡연, 가열 담배 등 흡연 문제와 중독, 감정노동 및 공황장애, 이주노동 등을 연구 중이다. 또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가을부터 우리 대학교에서 교양 ‘문화와 질병’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굿바이 니코틴 홀릭』, 『흡연자가 가장 궁금한 것들』, 『폴 파머, 세상을 구하는 의사가 되어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등이 있다.<sup>3)</sup>

## 2 수강 동기 : 실재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2017년 가을, ‘사회철학의 이해’라는 철학과 교양을 들었다. 해당 수업에서는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는데, 그의 포함 배제 이론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진정으로 ‘배제’된 자는 사실상 기술될 수조차 없으며, 하나의 기능체계에서 배제된 자는 곧 모든 기능체계로의 배제, 즉 ‘총체적으로 배제된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sup>4)</sup> 기술될 수조차 없으니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들은 군집화하여 제도화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은 너무나도 타당해 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수자로 불리는 집단들은 이미 —그 정도에 따른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포함’의 영역으로 매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불릴 수조차 없는 배제된 개인은 사회 구축구석 산재해 있을 것일 터이니 말이다. ‘루만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을까?’ 이어진 궁금증에 곧바로 이에 관하여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루만은 별다른 타개책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러한 루만의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귀결은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냉소적이기까지 했다. 배제된 개인이 있음을 분명히 지각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일말의 해결책이나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니 말이다. 완벽한 해소는 불가능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필두로 학기 말 최종 리포트에서는 “기술조차 어려운” 개인의 연쇄적 배제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원조 체계 중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의 포함 매개 기능을 다룸으로써 아래로부터 파악하는 연쇄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루만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사회적

3) 김관욱,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물과사상사, 2018, 1쪽. (책날개 저자 소개 참고)

4) 정성훈,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포함과 배제」, 『도시 인간 인권』, 라움, 2013, 19쪽.

금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배제된 자의 자기기술을 통한 자기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딘가 찝찝했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현실 세계를 바라보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저 단순히 이론적 영역에만 국한된 논의를 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실천적으로 이 사회를 가까이하고 아픔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아픔들을 고찰하고 이를 직접 사진으로 담아내는 문화와 질병 수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평소 기사로만, 책으로만 접했던 실재적 사회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한 이론적 틀로 사유하며 아픔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 3 '문화와 질병'의 특징

문화와 질병 강의가 지닌 특징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다양한 문해 능력'의 함양이다. 문화와 질병은 책상에 앉아 활자로만 세상을 엿보던 내 몸의 방향을 세상 밖으로 열어주어, '포토보이스'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세상의 일면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재하는 현상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문제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사진 한 장을 찍는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어려웠다. 매 수업 전 읽었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나만의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활자화되어 있던 문제의식을 사진이라는 시각 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글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사진'을 이용하여 사유를 담아내고 소통하는 것은 색다른 배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적인 현실을 담아내기 좋은 통로였다. 이를테면 장애를 주제로 한 포토보이스를 제출하기 위해 홍대입구역에서 장애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관하여 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히 글로 생각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었다면 배리어 프리의 개념 및 의미, 한계 등을 다루는 데 그쳤겠지만, 사진으로 표현을 해야 했기에 직관적이면서도 장애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단번에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신체가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홍대입구역을 다녀 보니, 2층 이상의 가게는 사실상 접근하기 불가능할뿐더러 1층에 위치한 가게 역시 유도 블록 없이 낮은 계단이 있어 장애인이라면 가게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상당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도중, 인상 깊은 장면을 포착해낼 수 있었다. 눈앞의 두 건물이 장애인을 위한 사소한 배려에서 차이가 났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건물은 노란 유도 블록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왼쪽의 건물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었고, 오른쪽의 건물은 입구가 계단식이었다. 계단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계단 양옆 점자 표지판이 부착된 손잡이가 있기는커녕, 넓은 계단 양옆으로 아무런 손잡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접근이 힘들어 보였다. 누

군가에게는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일 테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 곳 차이가 장벽으로 느껴질 테니 말이다. 붙어있는 두 건물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이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와 질병은 지식창출 능력을 길러주었다.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 의하면, 지식창출 능력은 “다양한 이질적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sup>5)</sup>”을 일컫는다. 본 강의는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에세이 제출을 통해 수업 중 다룬 다양한 인류학적 개념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문제의식에 접목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예컨대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지역 도덕관’ 개념을 청소년 자살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 ‘지역 도덕관’은 수업 중 성형과 장애를 다루면서 배운 개념으로, 특정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를 당연시할 수 있게 만드는 도덕 가치관이다.<sup>6)</sup> 즉, 공동체마다 가장 우선시하는 저마다의 도덕적 가치가 있는데, 지역 도덕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해지는 게 만드는 동인(動因)인 셈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사회의 지역 도덕관은 ‘경쟁’과 ‘고효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비단 산업구조나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비판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청소년에게 압박이 가해졌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 청소년들이 불구덩이에 기꺼이 뛰어들기를 자처하는 것은 결국 경쟁과 고효율이라는 지역 도덕관의 토대 위에서 완성된 것이었다. 이렇듯 수업 중 배운 인류학적 지식을 새로운 주제에 연결해봄으로써 지식을 단순 습득하는 것을 넘어 ‘내 것’으로 체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질병은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 속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 간 협동을 가능케 해주었다. 수강생들은 수업 전 게시판에 올린 서로의 포토보이스를 미리 보며 댓글을 달기도 했다. 상호 간의 댓글은 필수가 아니었으나, 오히려 자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기에 더 진솔하고 깊은 의견 공유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교수님께서는 수업 3시간 중 1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제출한 포토보이스를 논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매 수업 전 미리 약 100명이 올린 사진과 코멘터리를 일일이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ppt로 정리하여 오신 것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학우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을 포착해낸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다. 한편, 에세이에 대한 교수님의 상세한 피드백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 요소였다. 대개 대형강의의 경우 에세이의 점수 및 피드백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성적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관욱 교수님께

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7, 2쪽.  
[https://konige.kr/sub02\\_05\\_view.php?bbs\\_cd=2017080900003&stx=&bsearch=b.c\\_title&cdiv=10158&pageno=2](https://konige.kr/sub02_05_view.php?bbs_cd=2017080900003&stx=&bsearch=b.c_title&cdiv=10158&pageno=2)

6) Arthur Kleinman, Local Worlds of Suffering: An Interpersonal Focus for Ethnographies of Illness Experien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 (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2.05, p.4~5.

서는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주셨다. 피드백은 미리 제시되었던 명확한 과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글이 어떤 점에서 기준을 (미)충족 하였는지 자세히 쓰여 있었다.

#### 4 내가 만난 인생 교양 : 개인적 공감을 넘어 사회적 공감을 배우다

친구들로부터 “공감 잘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내게 공감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상대가 은근한 공감을 바라곤 할 때는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곧 나의 입장이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그가 느꼈을 감정을 곱씹어보면 되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이변 없이 통했다. 게다가 공감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였다. 사회는 끊임없이 공감 능력을 강조했으며, 그렇게 공감은 이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공감 좀 한다’고 자부한 탓일까, 사회적인 아픔에 대한 공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감만큼이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한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개인적 공감과 달리, 사회가 낳은 다양한 아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그보다 한층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문화와 질병 수업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아픔을 마주하고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공감의 기틀을 마련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나는 비로소 개인적 공감의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상술하였듯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감’은 비단 정서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각 개인에게 어떠한 몸통을 갖게 했는지를 숙고하는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업을 듣기 전 나는 사회적 아픔들을 간접적인 측면에서만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시 그저 ‘납작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매주 직접 발로 뛰면서 점차 납작했던 이해가 비로소 입체적인 이해로 변모해갔으며, 이는 수업시간 교수님의 해안과 함께 현상의 기저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깊어져 갔다.

일례로 포토보이스 제출을 위해 구의역 사고 추모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무수히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던 기사 속 사진과는 달리, 역내 고객센터센터에는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다니던 철나에 역 사무실 직원분께 구의역 사고 추모 공간이 사라졌느냐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현재는 실제로 사고가 났던 9-4 승강장에만 남아있다고 말해주셨다. 9-4 승강장에 찾아가니, 수많은 포스트잇과 꽃들은 사라진 채 문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만이 남아있었다. 거기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평소라면 김 군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것쯤으로 그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담은’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안전문을 고치려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청년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너는 나다”라는 글귀가 쓰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필시 김 군의 모습에 수많은 비정규직 ‘나’가 겹쳐져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에 쫓기듯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던 김 군의 몸통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전반을 반영하

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대로 된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내일의 누군가에게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공감은 수업을 통해서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다. ‘당연시하기(Naturalization of Suffering)’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구의역 사고 현장에 대한 공감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 중 김관욱 교수님께서 멕시코 트리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Seth M. Holmes의 연구를 소개해주셨다. 인류학자 홀스는 2003년부터 대략 1년 3개월 동안 멕시코 원주민들이 미국 워싱턴주 과일 농장에서 농장주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며 일하는지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 농장주들은 키가 작은 트리키인이 허리를 굽혀 딸기를 재배하기 좋은 신체를 지녔다고 여겼다. 그러나 장시간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키가 작다고 해서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 즉, 농장주는 원주민들의 고통을 ‘작은 키’라는 특징을 빌어 정당화한 것이다. 홀스는 이를 ‘사회적 고통 당연시하기’라고 표현했다.<sup>7)</sup>

이내 다시 구의역 사고로 초점을 옮겨 생각해보았다. 19살 청년 김 군은 혼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사고에 대비하여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2인 1조’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뿐이라, 김 군의 주머니에서 나온 사발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여과 없이 드러내 주었다. 워싱턴에서는 ‘작은 키’를 근거로 원주민들의 과도한 노동을 당연시했다면,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을 근거로 그들은 아파도 된다는, 아플 수 있다는 ‘당연시하기’를 하고 있던 것이다. “천국에서는 빨리빨리 수리하라고 이동하라 재촉하고, 다음 달에 계약 만료니까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곳에서는 위험에 내몰리지 말고, 배꼽지 말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할게.”<sup>8)</sup>

”김 군과 가까웠던 동료 박씨가 그를 위해 작성한 추모시는 사회의 ‘당연시하기’로 인해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관찰을 요구한다. 사회적 아픔을 건디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통증을 강요받는 몸통들 형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서 중국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음을 깨닫는 경험은 오직 문화와 질병 수업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7) Seth M. Holmes,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Social Context of Migrant Health in the United States, PLOS Medicine, 3(10), 2006: e.448

8) 황금비, 「구의역 사고 1주가...아직도 그들은 무기계약직이다」, 『한겨레』, 2017.05.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63.html#csidx0195878917ab80d84ce201bd6d4367b](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63.html#csidx0195878917ab80d84ce201bd6d4367b), 2020.11.07.

## 5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 1) 탈자연화(Denaturalization)가 빚어낸 인문학적 사유의 확장

인문학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바로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남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에서 자신만의 뾰족한 문제의식을 내놓는 그런 통찰력 말이다. 그러한 생각의 근육을 길러내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텍스트를 읽고 고민하며 글을 써왔다. 인문학은 주로 텍스트(text)를 통해 사유하는 힘을 배양해주었다. 가령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고 텍스트가 데탕트 시기에 쓰인 점을 고려하여 차이의 공존이라는 작가 최인훈의 정치적 상상력을 엿보기도 했고, 혐오표현에 관한 논문을 읽고 발화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성차별 어휘와 표현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등 말이다.

텍스트를 창문 삼아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게, 문화와 질병은 사회라는 콘텍스트(context)를 기반으로 문제의식을 첨예하게 다듬어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작게는 내게 있었던 평범한 일, 크게는 뉴스 속 사건 사고 등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내도록 해준 것이다. 그 덕에 최종 에세이에서는 노인을 향한 사회의 균질적인 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노인은 살아온 햇수만 다를 뿐, 그저 같은 연속선 상에 놓인 인간일 뿐인데도 사회는 노인을 하나의 집단이 아닌 하나의 특성쯤으로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책과 같은 텍스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 세대,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에 따라 노년의 경험이 질적으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는 하나의 문제적이고 균질한 집단으로 상상<sup>9)</sup>”하고 있었던 나의 작은 일상 속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관련 논문을 함께 조사해보며 노인에 대한 협소한 시각이 비단 일상생활뿐 아니라 학술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포착해내어 짚어내는 힘은 인문학도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며, 문화와 질병 수업에서도 그와 흡사한 훈련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존에 배운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화와 질병은 문제의식의 원천을 하나 더 만들어 사유의 확장을 가능케 해주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결국 인문학적 사고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 셈이다. 이를테면 문화와 질병 수강 이후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읽고 서평을 쓸 일이 있었다. 작품의 주인공 임노라가 겪은 수난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물적 토대가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집을 나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전전공공하던 주인공 임노라는 접대 행위 도중 겁탈을 당하기도 한다. 이에 혹자는 ‘왜 항상 궁지에 몰린 여성의 끝은 성매매, 성범죄로 그려지는가?’라며 상당한 거부감을 표할지도 모르지만, 주인공

임노라로 표상되는 문제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해 보였다. 얼마 전 여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재 영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이는 ‘그려지는’ 문제보다도 ‘당면한’ 문제였다. 이렇듯 오늘날의 사회적 아픔을 통해 사유하는 방식은 인문학적 사고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

문화와 질병에서 배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탈자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시(Naturalization)’되었던 모든 사회적 아픔이 이제는 ‘탈자연화(Denaturalization)’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와 철학이라는 텍스트에 사회적 아픔이라는 콘텍스트가 덧입혀지면서 사유의 틀은 무한히 확장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려는 노력을 경주(傾注) 중이다.

## 2) ‘정상가족 담론’을 향한 문제의식 촉구

뿐만 아니라 문화와 질병은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이해하는 콘텍스트로서 ‘정상가족 담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수업을 들으며 정상가족 담론이야말로 부당한 친권 행사, 가족 학대, 동반 자살, 미혼모(부), 다문화 가정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문제의 원인을 가족 내부로 이끌어 곱게 만들었고, 이는 조금이라도 가족 문제에 관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촉구할 만한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짐을 토대로 지난 겨울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한 교양 교과목 공모전에서 ‘가족과 현대사회’라는 교양과목 기획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과목은 가부장제, 성 소수자, 가정폭력, 효도 이데올로기 등 가족을 둘러싼 한국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양 수업이었다. 기존 가족 관련 교내 교양과목은 이미 규정된 ‘가족’이라는 틀 아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혹은 가족 관련 정책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정된 개념으로서의 부모됨, 나아가 결혼이라는 틀 자체에 의문을 가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해당 교양과목을 통해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의문을 던지며 한국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담론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 더불어 감사하게도 대회 추천서를 김관욱 교수님께 부탁드리자 흔쾌히 추천서 작성과 계획안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 덕에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한 고민 끝에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9) 김희경,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 『한국문화인류학』 47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11, 133쪽.

었고, 현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가족전용상담전화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활동에서는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가족상담전화’와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를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구석구석 문화와 질병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 한다. 가령 문화와 질병을 들을 당시 방문했던 군포시 새가나안 교회의 베이비 박스 이야기를 ‘임신출산갈등상담’ 지원사업과 함께 엮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가족전용상담전화 상담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할 때 문화와 질병 수업 당시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난곡동 베이비박스 관련 뉴스를 인용하여 마무리하기도 했다. 단순히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이슈와 함께 제도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지원사업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관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물과사상사, 2018.
- 김희경,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 『한국문화인류학』 47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11.
- 이채림,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한 공감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서울교대 석사 논문, 2019.
- 이현, 곽주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과 성장: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 (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9.12.
- 정성훈,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포함과 배제」, 『도시 인간 인권』, 라움, 2013.
- 황금비, 「구의역 사고 1주기...아직도 그들은 무기계약직이다」, 『한겨레』, 2017.05.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63.html#csidx0195878917ab80d84ce201bd6d4367b](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63.html#csidx0195878917ab80d84ce201bd6d4367b), 2020.11.07.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2017.
- Arthur Kleinman, Local Worlds of Suffering: An Interpersonal Focus for Ethnographies of Illness Experien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 (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2.05.
- Seth M. Holmes,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Social Context of Migrant Health in the United States, PLOS Medicine, 3(10), 2006.

##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다

### :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

김예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1 반짝이는 수업

나는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다. 대학교 진학 이전부터의 다짐 중 하나는 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교양 수업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 왔다. 입학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들은 핵심교양(기초 필수 교양 제외)만 17개로, 졸업 기준인 10학점의 4배를 넘는 41학점에 육박한다.

매우 많은 교양 강의를 들었으나, 사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교양 강의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 탓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커져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의를 들을까 싶다가도 결국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이 없거나, 소위 말하는 학점 받기 쉬운 강의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와중에도, 몇몇 수업의 반짝임은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의 경우, 우리 대학의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이하 “역텍사”라 한다.) 수업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고 과학적, 나아가 융·복합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문에서는 나의 변화 및 성장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텍사” 수강 이전, 수강 과정, 수강 이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는 “역텍사” 강의를 수강한 소감과, 앞으로 대학교 교양 수업의 방향에 대한 짧은 바람을 이야기할 것이다.



##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다

### 1)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 수강 이전

#### ① 나의 과학사

아주 어렸을 때에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날을 맞아 물로켓 날리기 대회를 열 때에는 눈을 반짝이며 구경을 다니기 일쑤였다. 중학교 때에는 과학 실험을 좋아했다. 지시약을 사용하여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한다든지, 현미경으로 잎의 기공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고등학생이 되며 사라졌다. 과학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다. 나 자신의 성향이 인문·사회 분야와 더 잘 맞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뿐이었다. 문과를 선택하면서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한국사 등 온갖 사회와 교과목에 둘러싸였고, 자연스럽게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문제가 있다면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 이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단어와 다시 맞닥뜨린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우리 대학은 모든 학과의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이하 “과기철”이라 한다.)라는 기초 필수 교양 과목을 운영했다. 이름은 생소했고, 내용은 어려웠다. 또한 나는 과학기술이 왜 인문·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므로, 도덕적인 논의는 인간과 사회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배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과기철” 과목에 대한 학습 과정 역시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② 수강 동기 : “한국 테크노사이언스 혁신의 역사”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역텍사” 과목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동기가 된 것은, 2018년 2학기에 수강했던 “한국 테크노사이언스 혁신의 역사”(이하 “한텍사”라 한다.) 강의였다.

“과기철”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텍사” 과목에 큰 관심이 없었다. 전공 수업으로 시간표를 채우고, 남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강의 중 눈에 띄는 수업을 고른 것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본래 한국사에 자신이 있어 좋은 성적을 받기에 유리할 것 같아 선택한 과목이었다.

예상대로 “한텍사”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며 국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어떻게 설립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알려주었다. 중요한 점은, “한텍사”를 들으며 과학사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배워 왔던 정치·경제·사회·문화사가 아니며, 엄연히 한국의 역사이면서도 낯설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 사회·문화적 지식과 융화될 수 있

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과학사라는 분야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흥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과학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과학기술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다. 과학사를 통해 한국사를 더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세계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휴학하며 대학교 공부와는 잠시 멀어졌으나, 결과적으로 2020년 1학기에 “역텍사”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 2)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 수강 과정

#### ①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역텍사” 강의를 신청한 데에는 과학사에 대한 흥미가 가장 많이 작용했으나, 사실 두 수업 모두 동일한 교수님이 진행하므로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더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둘 다 창의융합교육원(과학철학교육위원회) 박민아 교수님의 수업이었다. 과학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 분이셨다.

생각했던 대로, “역텍사”에서는 19세기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유명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텍사”와는 수업 목표나 설정, 진행 방식, 강의 내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한텍사”는 말 그대로 한국의 과학사에 대한 강의였으나 “역텍사”는 전 세계의 과학기술적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하였고, 단순한 역사적 과학기술 사례 분석을 넘어 더 깊은 인문학적·철학적 논의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역텍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 과학정책 보고서 작성자라는 상황 아래, “나쁜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19세기 이후 세계의 다양한 “나쁜 과학” 사례를 분석하고, 후반부에서는 조별 논의를 통해 “나쁜 과학”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강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교재로는 데이비드 굿스타인의 “과학, 사실과 사기 사이에서”, 나 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콘웨이의 “의혹을 팝니다”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오히려 “좋은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침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역텍사” 수업의 목적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다.

## ②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의 특징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도덕적 담론을 나눈다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이었으나, 과학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텍사”를 통해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더욱이 “역텍사”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수업 참여와 학습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사례 중심 수업”, “조별 논의 및 토론”, “친절한 교수님”이 그것이다.

수업 전반부에서는 “사례 중심 수업”이라는 특징이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 나는 과학은 어려워했으나 역사에 대해서는 익숙함과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었으므로, 수업마다 1~2개의 “나쁜 과학” 에피소드를 분석하고 논하는 과정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상황에서 전쟁 무기가 개발되는 과정이라든지,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발사체 기술과 관련된 설명하는 식이 그것이었다. 특히 후술할 장점인 “조별 논의 및 토론” 과정이 이러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 주었다. 나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가 낯선 인문학·사회과학 전공 학생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후반부에는 “조별 논의 및 토론” 과정이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과학기술 관련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매주 교재를 읽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힘들었다. 만약 내가 혼자 공부했다면, 핵융합이 무엇인지, 상온 핵융합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이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 이론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상온 핵융합이라는 주장의 사회적 도덕성을 고민하는 것은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원들과 서로 질문하고 논의 및 토론을 진행하며,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각자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참여하며 지식을 익혔기에 수업 내용이 기억에도 더 잘 남았다.

무엇보다 “친절한 교수님”이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 것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이 작성한 “나쁜 과학” 개별 보고서에 대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었다. 또한 조별 공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원 각자가 조사한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추출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하였다. 우리 조의 경우 지능 검사, 연구 조작 사건 등 조사 사례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조언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모든 교수법은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각의 방법을 조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에만 기여했음을 밝힌다.

“역텍사”는 과학사에서 시작한 나의 관심을 점차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담론에까지 확장시켰다. 원자폭탄, 화학약품의 공포와 “침묵의 봄”, 지구온난화 등 “나쁜 과학”의 역사적 사례와

관련 논쟁에 대해 연구하고 “나쁜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나는 “역텍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인생 교양임을 깨달았다.

## ③ “역사로 읽는 테크노사이언스”가 인생 교양인 이유

“역텍사”가 나의 인생 교양인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각적이고 넓은 시야”,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 “참여를 통한 지식의 체화”가 그것이다.

우선 “역텍사” 과목을 통해 다각적이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나는 과학기술이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이며 인간 혹은 사회가 다루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또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나는 확실하게 사회 결정론을 지지했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텍사”를 통해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얻었으며, 과학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역텍사”를 통해 세계에 대해 깊이 고찰해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과학기술의 도덕성에 대한 고찰 역시 부재했다. 그러나 “좋은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쁜 과학”을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인간과 과학기술, 사회의 관계에 대해 도덕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전 사회적 범위에서 대두되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사회적 맥락과 도덕성, 인과관계를 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모든 과정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지식이 체화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역텍사”는 정부 과학 전문가라는 문제 상황 설정 아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생각을 표현하면서 의미를 채워나가는 수업이었다. 강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역량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협력과 소통의 자세를 배웠다. 또한 정부 과학정책 전문가라는 마음가짐으로, 연구 윤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수업에서 “나쁜 과학”에 대해 다루면서 지금까지 나의 연구 윤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기도 하였다.

## 3) “역텍사” 수강 이후 : 성장 스토리

## ① 생각의 변화

대학교 1학년 때 “과기철” 강의를 수강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나의 생각은 “역텍사” 수업을 통해 정말 많이 변화했다. 사실 “과기철” 강의를 들을 때에는, “어차피 과학기술 관련 분야로 진출하지도 않을 거

고, 전공 공부, 사회 공부만 잘하면 먹고사는 데 큰 지장도 없는데.”라고 생각했다. “과기철”은 단지 대학가에서 술술 등장하기 시작하는 융·복합 수업 중 하나였고, 나에게서는 그저 교육부의 지원 정책을 노리고자 만들어진 의미 없는 강의로 인식되었다.

현재는 다르다. 물론 기존의 생각이 180도 뒤집힌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보다는 인문·사회 분야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기술 결정론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텍사”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에 어떠한 과학기술 이슈가 존재했으며, 해당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사회적 담론이 발생했는지를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과학기술, 사회가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부 과학정책 보고서 작성자라는 입장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학적 논의가 이뤄지고, 과학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개발 및 성장 과정 자체에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쁜 과학”과 관련한 담론이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월간 기후분석 정보 2020년 9월 호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1973년 이후로 가장 긴 54일이나 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났었는데, 평소 말로만 들어오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마침 “역텍사”에서 이른바 지구온난화 회의론과 관련한 “나쁜 과학”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덕분에, 환경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에 굉장히 많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백신 개발부터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접하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대중을 현혹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범람은 “의혹을 팝니다”에 등장하는 지구온난화 및 오존홀 부정론자, 간접흡연 옹호론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나쁜 과학” 생산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시민을 선동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을 과소평가해 왔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미디어가 다급하고 중요한 과학기술 이슈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기후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앞으로 수많은 과학기술적 이슈가 등장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문적인 밑바탕을 더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② 행동의 변화

오늘날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와 논쟁이 생겨나고 있지만, 원체 관심이 없던 분야이다 보니 학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에게 그나마 익숙한 기술이라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란 전공 덕분에 수업에 종종 언급되는 뉴미디어 관련 기술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매체적인 특성에서 접근하며, 전공 학문에서 기술이란 소통에 필요한 도구 역할에 불과하였으므로, 과학기술 자체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 개설된 강의 중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가 융합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선택한 강의는 본래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미래인문학”(이하 “넷인문”이라 한다.)과 “현대 테크노사이언스의 윤리적 도전”(이하 “현텍윤”이라 한다.)이라는 두 개의 강의였다. 전자의 경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수업이다. 후자의 경우 굳이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도덕적·윤리적 논쟁에 대해 숙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수업이다. 그러나 “현텍윤”이 수강 정원 미달로 폐강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2학기에는 “넷인문”만 수강하게 되었다.

“넷인문”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한계비용 제로 사회”, “자유문화”,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유리감옥”, “외로워지는 사람들”, “호모 데우스”라는 여섯 권의 책을 읽고, 네트워크 사회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팀을 이루어 조별 논의를 진행한다. 만약 “역텍사”를 듣기 이전이었다면, 여섯 권의 책 모두 절대 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강의 때문에 하는 독서이니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신기할 때도 있다.

여러 책 중에서도 특히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에 많이 공감했다. “역텍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담론에 마음을 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기술 친화적이거나 기술 옹호론자가 아니었다. 나는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혜택보다는 부정적인 파급력이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유리감옥”은 그 부제에서부터 “생각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Carr, 2020)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개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기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

어 있었기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자로서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섯 권의 책마다 논조는 많이 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역텍사”에서 배웠던, 기술과 사회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뚜렷하게 현재진행형이었으며,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었다. 나처럼 기술이 사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했고, 기술이 오히려 현대 사회의 모순 중 상당수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 역시 많이 엇갈렸다. 사실 나는 스스로가 너무 기술 비판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지 않나 고민했는데, “넷인문”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이 되는 것과 유사하게 말이다.

### 3 나의 인생 교양

지금까지 내가 “역텍사”를 수강하기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수강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수강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는 어릴 때에는 과학에 대해 적당한 관심을 보였으나, 고등학교 이후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학문적으로 유리된 삶을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한텍사” 과목을 통해 “역텍사”라는 인생 교양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 “넷인문”을 들으며 과학기술의 철학적·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혹자는 왜 “한텍사”나 “넷인문”이 아니라, “역텍사”를 인생 교양으로 뽑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과목 역시 나의 과학 인생에 큰 의미를 가지는 수업이다. “한텍사”는 나와 과학기술 분야에 다시 학문적인 접점을 만들어 주었으며, “넷인문”은 과학기술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역텍사”는 나의 의식을 변화시킨 강의이다. “역텍사”를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경시했을 것이고, 어떠한 학문적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텍사”를 통해 인간과 과학기술, 사회의 상호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오로지 인문·사회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나의 시야를 과학기술적인 분야, 나아가 융·복합적인 세계에까지 확장하였으며, 과거로부터, 현재, 나아가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심의 흐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좋은 교양 강의란 무엇인가? 이전이라면 그저 재미있거나, 실용적이거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롭고 넓은 학문적 세계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

어주는 수업이라고 답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현텍운”이 정원 미달로 폐강된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융·복합 분야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당장 나 자신만 해도 1학년 때 “과기철”과목을 왜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었다.

그렇다고 좋은 교양 수업 만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시 “역텍사”도 수강 정원이 10명도 되지 않아서 폐강을 겨우 면한 강의였다. 나는 그 행운으로 인생 교양을 만났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가치관에 충격을 주며, 통합적이고 총체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를 마련할 수 있는, 별빛과 같은 강의를 만나는 것 말이다. “역텍사” 같은 수업이 좀 더 많아지고, 대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서, 학생들이 더욱 풍부한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한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Carr, N. (2014). 유리감옥. 한국경제신문.
- Gddostein, D. (2011). 과학, 사실과 사기 사이에서. 이음
- Oreskes, N., & Conway, E. (2012). 의혹을 팝니다: 담배 산업에서 지구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 미지복스
- 기상청(2020.9.8.), NEWS LETTER 기후분석정보 (2020년 8월호), 13면

# 마음 깊은 곳 ‘책임의 윤리’를 새기기까지

강민선 (사회학과)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우리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사상과 윤리’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당면한 주요 윤리적 문제들을 도덕철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인문학적 사상들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상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도덕철학이 결코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삶, 그리고 사회를 향하는 시선에 철학적 사유를 더하는 태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공동체 속 주요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치들이 병존하는 다원적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적 성찰이 결여된 성장지상주의나 기술만능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폐단을 낳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본 교과목을 통해 전공지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찰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잘못 설계된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명피해의 정도와 자동차 리엔지니어링에 드는 비용을 비용-편익 분석하여 자동차 리엔지니어링을 반려하는 결정을 내린 자동차 회사의 사례, 유전공학의 무분별한 발전이 낳은 유전자 만능주의와 우생학적 사고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식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근대의 사고방식이 과학기술에게 쥐어주는 도덕적 면죄부의 위험성에 대해 체감하며, 앞으로의 대학생들 동안 수없이 반복하게 될 지식 습득-창조-활용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교재로 사용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아리스토텔레

스에서부터 칸트,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시작하여 근현대 정치철학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정의’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본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책의 흐름을 따라가되 관련 쟁점들에 대한 풍부한 소개가 이루어지며, 쟁점이 현실에서의 실제 문제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생각 나누기가 진행됩니다. 여러 시청각 자료와 교수님의 다양한 사례 소개가 수업의 재미를 한층 더 돋워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강의에 참여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고대의 선 관념, 공리주의, 자유주의, 의무론, 정의론, 복지론, 시민 공동체, 연대 등의 사회 철학적 주제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상과 윤리’과목을 수강할 당시 수업을 진행하셨던 조진호 박사는 우리대학 연구처 연구윤리팀 소속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구윤리팀은 연구계획 단계에서의 연구윤리 심사 승인 및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들의 최전선에서 문제를 도덕철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가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감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조진호 박사는 ‘사상과 윤리’수업의 학습목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수강 동기

본 수업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수업 교재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만큼 한 번쯤 제대로 정독을 해 보고 싶었는데, 수업 교재로 활용하며 함께 읽는다면 책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사상과 윤리’라는 과목명이었습니다. 철학 사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내용의 수업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계획서를 읽고 주변 사람들의 수강 후기를 들으며 강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나니, 본 수업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수업이 아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수업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고, 과제 역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각에서 사회 현상을 조망할 수 있어야지만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사회철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세상을 여러 시각에서 조망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동기에서 ‘사상과 윤리’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징

이 수업의 첫 번째 장점은 여타 철학 교양 수업들과 달리 이론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훑어보는 수업 역시 의미를 가지지만, 그렇게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선택과목으로 ‘윤리와 사상’을 택하여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해 학습해왔고, 대학 진학 후에도 다수의 철학 교양들을 수강한 바 있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려는 시도는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개인의 내면적 성숙은 물론이고 사회를 향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론들을 현실에서의 실천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 교양 차원에서 개설되는 수업들은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기에 이를 도와주는 수업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본 교과목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사조가 등장하였으며 쟁점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 윤리 철학이 적용되는 모습을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딜레마적인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투영시켜보는 정도의 사고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현실의 사례를 가져와서 윤리 철학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에 관한 수업에서 징병제와 용병의 문제가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병역제도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담론들이 오고갔는지, 현대의 용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지, 시민의 의무가 경제적 계약 문제로 전락해도 되는 것인지,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까운 이웃의 죽음과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용병의 죽음에 대해 시민 사회가 경중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수업에서도 공리주의에 대해 학습할 때면 효율성의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을 공리주의의 한계점으로 언급하곤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현실의 여타 맥락들과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논리로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용병을 사용할 경우 사망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일들이 해당 기업과의 ‘계약’문제로 축소되는 반면 자국 국민을 전쟁에 투입하는 형태라면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치

적 맥락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발로 촉진된 반전 정서와 징병제 폐지 운동,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국민중심주의, 여기에 더하여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적 사고방식 등이 한데 얹혀 있으며, 이것이 현대적 용병(Private military company)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향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수업은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 일반론적이고 평면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윤리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며,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확장시켜줍니다.

‘사상과 윤리’수업의 두 번째 장점은 평가 방식입니다. 본 교과목은 중간고사를 시험 형식으로 치루지 않고 원고지 20장 분량의 에세이 제출로 대체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타 직군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지금의 자원 분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이었는데요, 비록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현학적인 주제가 아니었기에 두려움 없이 여러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렵게’ 노동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교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 만약 ‘쉽게’ 돈을 버는 것이 문제라면, 가장 ‘어렵게’ 노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지 등, 주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가는 과정에서는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정의론 수업에서 인상 깊게 다가왔던 ‘유색인종 대학입학 특례제도’논란에서 사용되었던 논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대학 합격증은 고등학교 시절의 우수한 성적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상장이 아니라, 각 대학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것으로 여겨지는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성장배경은 종합적인 고려를 하기 위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 평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험 성적만을 고려한 입학 제도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논리의 흐름을 중간고사 대체보고서 주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된 노동을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사용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하는 마르크스적 관점 모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높은 수익은 일반 대중들에게 감정적인 맥락에서 분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수입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고, 특정 직종이 고소득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에 누군가가 자산이 많거나 적은 것을 온전히 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관점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시민공동체의 의미 역시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들로 나만의 논리를 세워보며 완성된 글 한 편을 써냈던 이 경험은 나의 주장을 남들에게 설득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타당한 근거로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한층 더 주제적

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시각장애학생 수업도우미의 속기용 노트북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전자기기가 일체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익숙한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에게 이러한 규칙은 꽤나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타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트북을 사용하여 교수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 펼치기를 지향하는 본 수업의 성격 상 이러한 수업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되는 철학적 배경을 공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수업인 만큼, 노트북 사용이 허용되었다면 학생들은 속기에만 열중하게 되고, 이는 의사소통에 큰 장애물로 기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4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학교를 삼 년 동안 쉬지 않고 다니며 서른 개가 넘는 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중 인상 깊게 들은 양질의 수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과목을 인생 교양 교과목으로 선정할까 고민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이 수업을 널리 추천하고 싶은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결국에는 모든 학문을 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교양 교과목,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되는 이야기로 ‘인생 교양’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확신을 가지고 ‘사상과 윤리’를 인생 교양 교과목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 5 성장 스토리

‘사상과 윤리’수업을 통해 저는 다양한 도덕철학 담론들을 실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 이는 전공 지식을 확장시킬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까운 사례로 2020년 여름학기에 수강한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수업에서의 연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00대학교 재학생의 대학생활에 미친 영향-공간 경험, 대학 내 관계,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야기된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리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사상과 윤리’시간에 다루었던 적극적-소극적 평등 논의와 공공성 담론을 활용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은 위계적인 치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원인이기도, 현실을 보여주는 역할

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연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해당 내용으로 2020 관악 사회학주간 학생자율발제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트라우마의 제국’이라는 책을 읽고 쓴 서평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공동체적 분열의 현상을 분석해내는 데에 있어 신뢰 자본, 시민 사회, 공리주의를 이론적 뿌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적 특수성이 폭력적인 발상에 면죄부를 제공하여 성소수자·이주노동자 혐오, 정부에 의한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옹호 등 반인권적인 주장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겹겹의 상흔을 남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코로나 팬데믹이 어떠한 집합감정을 촉발할 것인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무력감으로 인한 체념과 무기력일 수도, 공동체적 감각의 해체로 인한 원색적인 분노일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후에도 그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도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관심이 가는 주제는 대한민국의 ‘공정성’담론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중 하나인데요,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비교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 노력’이 대단하기에 나는 대우 받아야 하는데, 왜 나보다 덜 힘들어 보이는 저 아이가 더 잘 나가지?라는 식의 공정은 모두에게 해로운 갈등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삶을 같이 지탱할 이웃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날서있는지, 소위 말하는‘나이브’한 산술적 공정성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근간의 사고 논리를 이해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정동이 진정 공동체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마치 서로를 비추는 보배구슬들로 엮여있는 불교의 세계관 ‘인드라망’처럼,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지 않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해 보이고 그저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보다 윤리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철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공정’이나 ‘평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저 역시도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직업 수준에서의 실천을 넘어 어느 순간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스스로 낮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상과 윤리’수업이 저에게 남기고 간 ‘책임의 윤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방법들을 찾고자 계속해서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조금

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는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향점이자,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스스로와의 약속 중 하나인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예로 들어 제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약자들과 능동적으로 이웃됨을 맺는 사회정의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레 이웃의 범위를 인간 이외의 생명체 및 생태계 전반까지 확장시키는 생태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인간 존중 사상이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했던 것처럼, 비인간 생명의 안녕 역시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생태윤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연환경의 풍부함을 축소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인간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과도하며,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지배적 행동양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를 거치며 점차 정교화가 이루어진 각종 윤리철학 사조들이 가지는 잠재력과 유용성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분법적, 인간중심적 관점을 취하는 윤리학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인류세적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환경파괴나 비인간 생명들을 향한 착취와 폭력 역시 윤리의 관심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지구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의식하고 이를 윤리적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장식 축산업의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하여, 18개월 전부터 포유류와 가금류를 소비하지 않는 채식을 실천중입니다. 또한 과도한 자원 이용이 낳는 환경파괴, 그리고 제3세계국 빈민들에게 전가되는 생태위기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옷이나 신발 등을 구매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자 중고마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지레 부끄러움을 느끼는 때도 많지만, ‘윤리’는 그 정의상 계속적인 실천과 직결되는 개념이기에 다른 생명들과 공명하려는 노력 자체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상과 윤리’수업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가치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 <인터넷 기사>  
김정희원, 「공정성 담론이 놓치는 것...비교불가능한 정의의 영역」, 『프레스리안』, 2020.06.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0809315589151#0DKU>
- <기타>  
서울대학교 교무처 연구윤리팀 홈페이지  
[https://www.snu.ac.kr/about/overview/organization/research\\_office/integrity](https://www.snu.ac.kr/about/overview/organization/research_office/integrity)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http://konige.kr/sub02\\_08.php](http://konige.kr/sub02_08.php)

# 내가 만난 프랑스인들

## :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말한다.

유 소 희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조의행

### 1 남의 그림자를 쫓는 삶

대학교 강의를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에게 대학은 그저 이력서에 학력란을 적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기에, 대학 입학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듯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능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의무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없었지만,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의문이 피어났다. 꼭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걸까? 나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20XX년 □□고등학교 대학진학현황’ 현수막에 적힐 글씨 정도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잘라서 반을 구분했고 그 친구들에게는 심화반 학생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다.<sup>1)</sup> 내가 다니던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특별 활동이 있으면 심화반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돌아갔으며, 선생님들은 이들을 위해 생활기록부에 살을 붙이기 바빴다.

선생님들은 꿈이 무엇이나고 물었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자기 자신에 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대학 간판만 보고 과는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는 친구가 수도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에게 ‘아무리 명문대학에 간다고 해도 네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면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자퇴해야 할 수도 있어’라고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은 드물었다. 더군다나 ‘배우고 싶은 게 확실하다면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주변 어른조차 거의 없었다. 주변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SKY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엄청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업을 하는 사

람, 직장을 다니다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위해 다른 학교 전공을 찾는 사람 등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획일화된 성공의 척도만 보여주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정해진 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나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남들의 뒤꽂무니를 쫓아 왔다.

### 2 무색, 무취의 삶

2017년, 나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사회복지학의 식견을 넓히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딱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적당히 직업/흥미검사 결과에 알맞은 학과를 골라 집이랑 가까운 대학에 진학했을 뿐이었다.

신입생 시절의 나는 동기들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했다. 명문대가 아니라는 열등감이 있었고 우리 학교가 종교 대학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캠퍼스가 작은 것도 싫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을 떠날 듯 들어온 나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그래서 난 대학 생활 중에 어떤 낭만도 느낄 수 없었다. 그냥 적당히 다니다가 졸업장이나 딸 생각이었기에 대학에 바라는 것도 없었다. 이런 하찮은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벌써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즈음이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무색무취한 내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섬광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와 휴학 신청 기간을 찾아봤고, 1년간 휴학을하기로 마음먹었다.

휴학 기간 중 내 삶에 대한 계획은 간단했다. 돈을 왕창 벌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다.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법이다. 평생 열심히 일만 하면서 자녀 셋을 혼자서 키우시던 어머니의 암 투병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휴학 중이던 내 차지였다. 나를 위한 휴학은 어쩌다 보니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 역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이모들만 계시는 국밥집에서 서빙도 해보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로 매장 관리도 했다. 두 달 동안 세 종류의 일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멀리서 보면 알찬 휴학을 보낸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달픈 1년이였다. 일만 한 것은 아니다. 일에 지친 내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인권운동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했다. 이 덕분에 사회복지학과 전공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불행인



1) 윤성호(2018.11.6.), “아직도 교과서‘자율학습실차별’·‘심화반편성’이라니?”, 오마이뉴스.

지 다행인지 이런 경험 덕분에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나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다. 배운 학문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행운임을 깨달았다.

복학하기 1달 전, 학교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 설레어서 잠이 안 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수업을 들으리라 매일 다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앉아 있는 곳은 강의실 맨 앞자리가 아닌 모니터 앞이었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 2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의 고전, 토론으로 만나기

<H+고전읽기와토론 : 법치사회와 공화주의정신>을 수강 신청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고전을 읽으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조의행 교수님의 수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필독 도서를 읽으며 다져진 나의 독서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무언가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관련 서적부터 찾았다. 많은 카테고리의 책을 읽었지만, 고전이 나의 내면에 제일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터였다. 그래서 수업으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호기심을 유발했다. 토론 수업을 한다는 것 또한 나에게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읽혔다. 휴학 중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의 쓴맛을 맛보았던 나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 부분에 대한 회의를 떨칠 수 없었다. 이 수업을 듣는다면 내가 고민하던 여러 문제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조의행 교수님은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다. 교수님은 학교 내에서 젊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교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수업은 '인간안보 패러다임과 국제안보'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가 호되게 혼난 수업이었다.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중심이었다.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 나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전 읽기와 토론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것 같았다.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니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었다. 흥미롭게도 저자가 모두 민주주의 혁명으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이었다. 교수님께서 이 수업의 목표가 「법의 정신」에서 제시된 민주 공화주의가 어떻게 실제 현실정치에서 구현되는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소개하셨다. 나아가 이 두 고전이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상징되는 오늘날 국내외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법치와 공화주의 정신 회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시사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알찬 공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강의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법의 정신」을 읽을 때는 교수님께서 그 주에 읽어야 하는 책 분량을 알려주시고 책을 읽을 때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들을 미리 던져주었다. 그리고 본 수업에서는 미리 올려준 대주제, 소주제를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교님 조와 교수님 조로 나뉘었으며, 각 조원은 수업 차수마다 무작위로 바뀌었다.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발언권을 줬고, 토론이 끝나면 각 조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눴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각자 파트를 맡아 15분 발표를 진행했다. 중간, 기말고사는 책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교수님께서 두 세 가지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것과 두 고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자의 논리를 만들어 시험답변을 준비했다. 쉽지 않은 준비과정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유롭게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서 이 또한 큰 공부가 되었다.

## 3 준비된 자를 위한 배움의 기쁨

<H+고전읽기와 토론 : 법치사회와 공화주의정신>은 교수님과 학생의 소통과 학생과 학생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었음에도, 교수님과 조교님이 소통하는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모두에게 발언권이 돌아간 점이 특히 좋았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발언을 마칠 때, 진행자가 내용 정리와 첨언을 준 부분도 유익했다. 다시 한자리에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비슷한 듯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 교수님, 조교님, 학생들 너 나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답한 수업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수업의 꽃은 중간/기말과제였다. 기말과제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이 저서에서 논의하고 관찰한 민주 공화정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을 비교하여라.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이 온전히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두 저서를 통해 제시하여라.”

수업에서 읽고 토론하면서 배운 내용을 현 대한민국에 적용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하지만 답변을 적으면서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기에 과제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다.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전을 읽고 토론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함이었으리라.

번외로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나에게 고전은 소화하기 벅찬 책이었다. 그래서 고전

을 완독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었다. 조의행 교수님과 고전을 읽으면서 내가 겪었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었다. 고전을 읽기 전 내가 읽을 고전의 저자가 살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교수님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절과 그의 생애를 강의해주셨다. 고전이 쓰인 시대를 이해하니 상대적으로 고전을 완독하기 쉬웠다. 러닝을 시작하기 전, 걷기 운동은 필수다. 걷기 운동은 몸에 곧 달릴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인데 이는 부상을 막고 근육이 다치는 것을 예방한다.<sup>2)</sup>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도 똑같다. 배우다 지치지 않도록, 준비운동을 하면 돌아오는 배움은 두 배가 된다.

#### 4 법치사회와 공화주의 정신에 빠지다

<H+고전읽기와 토론 : 법치사회와 공화주의정신>에서 「법의 정신」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나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왔다. 「법의 정신」을 읽을 때는 교수님이 제시한 다양한 주제의 답을 찾아가며 공부했다. 인상 깊은 2가지 주제가 있었다. 첫째,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읽기 숙제로 던져진 ‘입법, 집행(행정), 재판(사법)의 분리는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였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 일부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가는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 일부 제한하는 사회적 계약을 맺는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정체에서 개인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그 대가로 개인의 안전을 법률로써 보장한다.<sup>3)</sup> 그런데 몽테스키외의 경험에 따르면 설령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거머쥔 자들에 의해 종종 권력이 남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4)</sup>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남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삼권분립이 존재한다. 국민이 권력자를 견제하고 권력자 또한 자신의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즉 입법, 집행(행정), 재판(사법)의 분리가 권력의 힘을 분산키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막는다. 어렸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수학 공식 외우듯이 머릿속에 입력했다면, 이제는 권력의 분산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공화주의 정신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둘째, 법치 사회와 종교의 어울림에 대한 주제이다. 나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법치 사회와 종교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직접 고민하기보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한 학우가 몽테스키외가 주장하듯<sup>5)</sup> 기독교의 공동체 정신이 우리를 법치 사회로 이끈다고 말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지만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 종교가 사람을 결속시키고 윤리적 가치에 바탕을 둔 삶을 살 수 있게 하므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려진 건국 초기 미국인들의 종교적 경건함과 민주주의 정신이 긴밀하게 연결됨을 읽으며 이해되었다. 결국, 내 결론은 건전한 신앙심은 민주 공화정의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발표 준비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14장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권리의 개념, 준법정신, 정치기구 전반에서의 활동과 사회에 대한 그 영향을 세부적으로 이해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래에서부터 법과 자유와 평등을 쌓아 올리는 고된 과정을 통해 발전했다. 차근차근 권력을 올렸기에 미국인들은 국민에게서 법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며 민주주의의 실현은 곧 개개인이 치열하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은 요구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다.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 그 누구라도 부당한 사회를 경험했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했다.

수업이 끝 무렵에 다다르자 비로소 나는 과거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토크빌은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저술했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민주주의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의 금권정치는 미국을 신(新)귀족사회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미국 중산층 붕괴에 크게 일조했다.<sup>6)</sup> 과거의 미국 민주주의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차이가 선명해졌다. 토크빌은 미국 사회에 다수의 폭정의 위험이 도사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보다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붕괴를 예언했어야 했을까?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평등을 위해 싸웠다는 토크빌의 분석은 또한 옳았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의 기성체제에 대한 미국 보통 시민들의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과 새롭고 평등한 체제를 위한 열망을 무기 삼아 미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워싱턴 정가와 주류 언론, 월가 등으로 상징되는 신귀족 사회를 거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기도 하다.<sup>7)</sup> 이렇게 미국인의 트럼프 지지 현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2) 문세영(2018.6.20.), “휴식도 운동의 연장선...달리기 운동은 ‘이렇게’”, 코미디닷컴.

3) 홉스(2018), 리바이어던, 213-225.

4) 몽테스키외(2015), “법의 정신”, 131-142.

5) 윌글, 283-291.

6) 김광기(2019), “다시 읽는 토크빌 : 토크빌은 미국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유효한가?”, 사회이론, 봄/여름, 107-138

7) (2016.9.20.), “[사설]세계를 뒤흔든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와 불확실성”, 경향신문.

는 고전을 읽고 토론하면서 미국인의 습성, 제도 종교를 종합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올바른 법치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공화주의적 사회가 우리가 사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동체를 더욱더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한 학기 내내 배웠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현재 전공 중인 사회복지학에 대한 확신이다. 차곡차곡 쌓인 지식과 확장된 사고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구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삶을 살고자 다짐을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정치·사회적 흐름을 배웠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을 길렀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도 종교적 편견을 부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수업 중 종교에 대한 편견에 금이 갔던 경험을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혐오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강연을 찾아서 듣고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여성, 청소년 등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자들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공부에 대한 갈증이다. 내 꿈을 실천하고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않고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 관심과 열정만으로는 큰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현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의 해답은 결국 공부를 통해 나의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케니의 「서양철학사」를 읽기 시작했다. 방학에 철학 독서 모임 스터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쪽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근대철학을 마무리한다. 예전 같았으면 미루다가 책도 못 펴봤을 텐데 나에게 큰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 5 두 프랑스인과 함께 나아가는 삶

앞으로 남은 삶은 교양과목에서 만난 두 프랑스인과 함께 나아갈 것 같다. 몽테스키외는 나에게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토크빌은 올바른 법치 사회와 공화주의 정신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만들어주었다. 미래의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H+고전읽기와토론 : 법치사회와 공화주의정신>에서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가치관이 삶을 인도해 주리라 믿는다. 나만의 기준을 잡고 나니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호기심이 생기면 언제나 그랬듯이 책을 찾아볼 것이다.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혼자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많은 사람과 생각을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되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전달한 것만으로 한정 지었었다. 법치사회와 공화주의 정신을 배운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그저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약

자와 소수자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공화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제도적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수업을 듣기 전 배움의 소중함을 알려준 휴학 기간이 있었다. 가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부딪히다 보니 배움을 갈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움의 목마름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은 던져 보기도 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내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막 대학진학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교양을 쌓는 기쁨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인생 교양을 만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교양은 어디에나 있다. 인생 교양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있으면 된다. 남은 학기 동안 또 다른 인생 교양을 찾아볼 생각을 하니 내 인생에 활기가 도는 것이 느껴진다. 남은 3, 4학년 대학 생활은 공허하던 지난 2년과는 다르게 그려질 것 같다.

나는 인생 교양을 찾았다.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없을 줄 알았던 대학교의 낭만이 떠올랐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을 들길 간절히 바랐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졌다. 수업은 배움에 대한 나의 열의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되었다. 나의 꿈을 위한 가치관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그리고 미래를 보다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불교의 경전인 쏫타니파타에 이런 말이 있다.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본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sup>8)</sup> 더욱더 많은 주변의 학우들이 신념을 가지고 배움을 갈구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8) 석지현(2016), “쏫타니파타”, (서울:민족사), 90.

## 참고문헌

- 김광기(2019), “다시 읽는 토크빌 : 토크빌은 미국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사회이론, (봄/여름), 107-138
- 문세영 기자(2018.6.20.), “휴식도 운동의 연장선...달리기 운동은‘이렇게’”, 코메디닷컴: <http://kormedi.com/1227853/> (2020년, 10월 31일 접속).
- 몽테스키외(2015) 법의 정신, (이재형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석지현(2016), “췌타니파타”, (서울: 민족사).
- 윤성호 기자 (2018.11.6.), “아직도 교과서‘자율학습실 차별’·‘심화반 편성’이라니?”,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523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5237)(2020년, 10월 31일 접속).
- 토크빌, 알렉시스(1997), 미국의 민주주의 1, (임효선, 박지동 옮김), (파주: 한길사).
- 홉스, 토마스(2018),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 (2016.9.20.), “[사설]세계를 뒤흔든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와 불확실성”,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92051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92051005) (2020년, 11월 01일 접속).

## 교실에서의 시간여행

## : 현실에서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그린다.

이 수 진 (경제금융학부)

지금까지 30학점이 넘는 교양 수업을 수강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중 인생 수업을 정하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영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를 말할 것이다. 이 수업을 들으며 영화 속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역사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긴 나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아 가치가 퍼지기를 소망하게 되어 이를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어른, 직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 1 영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

수업에서는 서양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다룬 영화 6편에 대한 교수님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영화 <모던 타임즈>, <메리 크리스마스>, <마리포사>,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보니 앤 클라이드>, <증오>를 2주씩 다루어 각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여러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학과 강정석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며, 나는 2018년 2학기에 수강하였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영상으로 과거를 재현하는 방식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기를 바라셨다.

## 2 인생 교양을 만나게 된 계기

문화 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평소, 취미 삼아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을 자주 보러 다닌다. 성인이 된 후, 문화예술을 통해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시대로 떠날 수 있는 매력에 빠져 책을 넘어 공연과 영화로 발을 넓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배우들이 역사적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어 이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좋아하게 되었다. 공연을 보게 될수록, 화면으로만 전달되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큰 생동감과 몰입감을 느끼지 못해 영화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교의 여러 수업을 들으며 서양의 문학, 건축, 인물 등을 알게 되었고 그 근간이 되는 역사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를 자주 다루는 영화 분야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직접 보는 공연의 개수나 공연에서 다룰 수 있는 역사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화를 찾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전쟁에서의 잔인하고 가혹한 부분만 부각하거나, 시대 상황보다 개인의 삶을 다루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내가 알고 싶던 역사적 사건과 의미를 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건을 담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영화를 보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졌고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여러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 수업을 찾게 되었다. 또한 사학과와 교수님, 전문가로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감상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업을 듣는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수강하게 되었다.

### 3 소통을 통한 공감의 기쁨

교수님의 시선이 담긴 영화 해설을 듣고 난 뒤,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학생이 질문을 던지면, 교수님께서 답해주시고 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나에겐 변화의 발판이 되었다. 교수님을 포함하여 여러 학우로부터 영화를 보는 방식이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내가 보지 못했던 장면의 연결을 이야기하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사유의 폭이 좁음을 느꼈고 이에 다른 학우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져 그룹 스터디를 꾸리게 되었다.

수업 전, 점심을 먹으며 친구들과 영화에 대해 감상평을 나누며 이해되지 않았던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공통으로 궁금했던 점을 수업을 들으며 해결해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공강 시간이 길었던 덕분에 해설 강의를 정리하고 연출, 대사, 배우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나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이 부족하고, 틀린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말하는 것을 꺼렸던 과거와 달리, 이 수업을 통해 스스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영



화를 바라보는 이들의 생각은 각자의 시선이 담긴 개성으로 다른 것이지, 틀린 생각은 아님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영화에서 충격을 받거나 색다르게 다가왔던 부분이 그들에게도 공통되었음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심장 박동이 함께 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공감의 기쁨과 진정한 소통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글에 독자가 생겨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모습을 꿈꾸게 했다. 이는 <영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가 나의 인생 수업이 된 출발점이 되었다.

### 4 진정성 있는 글을 쓰는 노력에 대한 평가

이 수업의 평가는 출석을 기본으로 과제와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양의 역사를 담은 영화를 선정해 해설과 감상평을 작성하는 것이 과제이며, 수업에서 다룬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 논술형 시험으로 평가가 구성된다. 수업을 듣기 전, 나만의 생각이 온전히 담긴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강의를 수강할지 고민하였다. 하지만 수업과 영화 스터디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글을 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덕분에 평가에 큰 거리낌 없이 임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영화를 보고 그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학생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중요시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노력을 글에 진정성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 5 인생 교양 속 깨달음; 교실에서의 시간여행

이 수업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 현실에 유효한 메시지를 담은 문화예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다른 시대의 인물과 이야기를 만나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기에 영화와 공연을 자주 보았다. 하지만 다양한 역사를 담은 영화를 만나며 과거에 무지했던 나를 반성하였고 이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는 탐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역사를 기억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 역사 속 차별, 슬픔, 혐오, 부당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짚으셨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념과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셨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의 이면을 담은 영화 <모던타임즈>는 근대산업사회에서 휴머니티를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영화에선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 시계가 돌아가며 노동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산업사회의 리듬은 그리 변한 게 없다. 찰리 채플린 감독은 자본주

의사회에서 소외 계층이 생겨나고 개인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계를 지우고 상생하는 대안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공장 노동자의 행동과 그가 상상하는 유토피아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한 존재의 평등과 희망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 퇴근하고 그를 반기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모습을 꿈꾸는 그와 달리, 우리는 소중한 가족과 가치를 뒤로 한 채 무작정 부와 명예 획득으로서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세계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상하이생의 과정 자체에서 시작됨을 깨우친다.

20세기, 하나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 <마리포사>는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데올로기 갈등이 마을 공동체까지 파고드는 모습을 어린아이 문초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근거 없는 신앙보다는 인간 사회의 진실을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레고리오 선생님의 모습은 사회의 분열과 내전으로 가려진다. 이에 우리는 진실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역할의 필요성을 깨우친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깊은 연대가 깨지고 정서적인 교감과 애정은 압살 되어 간다. 결국, 그레고리오 선생님은 반역자로 끌려가며 그가 말하는 진실은 잊힌다. 그리고 문초의 유년 시절 기억 어딘가에 묻힌 채 우리의 연대와 정의의 가치는 사라져버린다. 지금이 그 진실을 꺼내어 다시금 잊히지 않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홀로코스트를 그린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은 선과 악을 구분 짓는 토대의 불완전성과 무사유의 악행을 어린아이들을 등장시켜 더욱 적나라하게 비극적으로 표현한다. 평등이라는 원칙의 '예외'가 일상 속 원칙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호모사케르로 살아간다. 그들은 줄무늬 파자마로 구분되며 존엄은 물론 생명까지 짓밟힌다.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토대가 무엇인지, 과연 이는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게 된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방법과 태도를 고민하게 된다.

구별을 짓는 표식만으로 누구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커져가는 반면,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가치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1세기의 호모사케르라 부를 수 있는 난민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차별을 만들어내는 구분은 명백히 옳지 못한 것이지만 평화를 해치는 위협으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은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나 철저히 가려진 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를 바라볼 수 있는 평등의 시대를 만드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투쟁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행동을 담은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기존 가치와 문화, 사회구조의 변혁기를 표현한다. 기성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신세대의 파격적인 모

습을 보면서 진정한 평등과 적극적 자유가 확립되는 과정의 이면들을 보게 되었다. 미국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민권운동, 히피 문화, 기성체제의 폭력, 빈곤, 일탈을 통해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함을 느껴 책 <남미 히피 로드>를 찾아보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히피들의 생활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영화보다 더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내 삶의 방식이 과연 그들만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히피는 자유를 누리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랑과 평화, 자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천한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영화 속 시대에서는 사회의 억압과 폭력으로 '잘못된 삶'이라고 낙인찍힌 채 사회의 반란자로 취급당한다. 이 모순을 보면서 기존 체제의 대다수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쉽게 소수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항상 주의해 무의식적으로 모순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다.

프랑스 이민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한 영화 <종오>에서도 공동체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충돌과 혐오를 그린다. 그리고 그를 연대로 바꾸어나가는 방법과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포용하는 태도의 실천이 필요함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계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짓고 우와 열을 나누었다.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평등, 평화를 대신해 폭력과 억압이 들어선 역사가 반복된다. <남미 히피 로드>의 노동호 작가는 헤르만 헤세를 언급하며 경계처럼 증오할 것도,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sup>1)</sup> 경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전쟁도, 봉쇄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랑을 할 수 있는 경계의 허물어짐이다. 이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품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모여 가능해진다. <영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는 이러한 세계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교수님의 해설과 함께 여러 장르와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무장한 영화를 만나면서 교실에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그의 깨달음을 내 삶에서의 실천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 **인생 교양 속 나의 변화; 자기 주도적 탐구**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예술, 철학, 사회, 경제 등의 배경지식을 알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이를 찾아보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어진 공부에 대해 최선을 다했을 뿐, 순수하게 나의 지적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정보를 찾고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생 때의 수동적인 학습 태도는 쉽게 깨지지 않았고 교수님의 정해진 수업내용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누

1) 노동호, 남미 히피 로드, 나무발전소, 2019, p.131

구도 요구하지 않은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었다.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며 찰리 채플린의 일생과 시대를 찾아보고,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를 본 뒤에는 히피 문화를 다룬 책을 읽으며 영화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자발적인 탐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만으로도 이 수업은 나에게 뜻깊은 교양 수업이 되었다.

## 7 인생 교양 속 나의 변화 : 가치 확산을 위한 글쓰기

문화예술 향유의 폭이 넓어져 여러 분야의 작품에 도전하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감독, 작자가 숨겨둔 의미를 찾는 과정에도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 그들이 담고자 한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의 희열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 질문을 던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의 과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두 세배로 커지는 가치의 확산에 한발 다가서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영화, 문학, 공연을 포함한 예술작품에서 역사적 사건을 캐내고 작자의 생각과 메시지를 읽어내 진실을 밝혀 나의 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연극은 시대와 호흡한다. 시대적 맥락에서, 연극은 때론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 힘을 잃기도 한다. 연극의 수명은, 그 시대와 현실에 가장 날카롭게 던질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효력을 다할 때까지일 것이다.<sup>2)</sup>

위 인용문은 지이선 작가님의 인터뷰에서 따온 것으로 내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유효한 이야기이며 역사 영화에서도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 주인공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영화 속 시간과 공간으로 떠나는 '수업에서의 시간여행'을 안내하신 교수님께서 '작자가 의도한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셨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비슷한 상황과 문제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싶어졌다. 수업을 발판 삼아 이제는 스스로 메시지를 찾고 깨달음의 과정으로 생긴 나의 변화나 인식,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다짐했다.

2) 박우신, 손대는 작품마다 화제, 배우들이 욕심내는 작가 지이선, 오마이뉴스, 2018.03.12., <http://omn.kr/nn6t>

## 8 세상을 향한 내 목소리를 담은 글

이 교양을 만난 후,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미래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예술을 통해 현시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교수님만큼의 통찰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여러 문화예술 작품을 겪어보면서 작품을 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깨달음을 사회와 공유하는 가치의 확산을 실천하고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시작했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leesu30>)부터 시작하여 이 강의를 수강한 다음 해에는 문화예술 소통 플랫폼이자 언론사인 아트인사이트에서 에디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주제의 오피니언과 리뷰를 2년째 기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편 정도 되는 글을 쓰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얻고 있다.

강의의 과제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영화는 아일랜드의 식민 지배와 내전의 역사를 담아 공동체가 갈라지는 분열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한다. 비슷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평화로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영국의 지배로부터 조금은 벗어나는 아일랜드의 자유국 선포가 이어진 후, 그들에게는 더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 자유국은 대영제국의 자치령으로서 국왕과 함께하는 평화였기에 이러한 조약 찬성파와 완전한 자유를 원하는 반대파가 나누어진다. 그 사이에서 친형제인 테디와 데미안은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화살을 쏘게 된다.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방법과 선택이 다를 뿐,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기에 그들의 내분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그리고 개인이 전쟁에서 이겨내 얻는 가치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일 정도인 지에 대한 의문과 허망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강렬하게 들게 된다. 특히 이 영화는 비슷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진 내분의 역사는 반복되어선 안 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영화에서 더 나아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역사와 함께한 고전은 영화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고전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유명한 고전 작품부터 시작해 이를 각색한 여러 작품을 만나며 고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어보며 <햄릿>을 각색한 연극 <햄릿, 죽은 자는 말이 없다>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연극 <알앤제이> 등을 관람하였다. 단막극 <햄릿,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죽은 오펜리야의 외침과 저항을 통해 아직도 여성에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장벽과 한계를 표현한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부조리와 억압에 대해 말해야 함을 인식한다. 연극 <알앤제이>는 엄격한 가톨릭 남학교에서 금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몰래 연극하는 남학생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마주하는 장벽과 위험을 현재 자신들에게 놓인 한계와 동일시하며 이를 깨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다.

두 각색극에서 관객은 점점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자신의 한계와 삶을 투영하게 된다. 극이 끝나면 어딘가

숨 쉬고 있는 희망을 느끼며 현실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전은 현재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고전에서의 치열한 고민과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이탈로 칼비노는 고전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3)</sup> 그러럼, 우리는 고전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고전이 남긴 근본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의 일종으로 예술가들은 고전 작품을 각색하여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다. 그 각색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기존 고전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물음에 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이러한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 고전의 가치임을 인식하며 내 삶에도 이 선순환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추후 들었던 교양 수업이 계기가 되어 러시아 문학을 접해보고 싶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게 되었다. 작가의 논리, 사상, 글의 형식, 그리고 흡입력 있는 이야기 전개는 충격과 신선함을 가져다주었다. 신에 도전하고 신의 세계에 한발 다가서려는 그들을 묘사한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였기에 이를 실제로 구현한 영화와 뮤지컬까지 찾아보게 되었다. 이 작품은 인간 본성인 선과 악에 관한 물음과 신의 응답을 바라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김연경 해설자에 따르면, 카라마조프쉬나라는 개념은 카라마조프적인 것을 뜻한다. 일차적으로 카라마조프 집안의 특성들을 의미하며 곧 세기말을 맞이하게 될 러시아 사회의 목시록적인 혼돈을 이야기한다.<sup>4)</sup> 이런 특성이 두드러지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역사 속의 전쟁과 현재의 분쟁과 갈등은 모두 카라마조프쉬나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공연 무대 위 천장에 설치된 거울로 이반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악마와 마주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카라마조프가의 이야기를 통해 악으로 가득 찬 현실을 마주한다. 하지만 알료샤의 확고한 믿음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선이 존재하며 이에 침묵하지 않고 선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희망도 함께 깨닫는다.<sup>5)</sup> 이에 악보다는 선을, 무사유보다는 사유를, 경쟁보다는 평화를,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게 된다.

3) 이탈로 칼비노, <왜 고전을 읽는가>, 이소연 옮김, 민음사(2018), p16

4)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0618&docId=892669&categoryId=60618]

5)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2>, 김연경 옮김, 민음사(2019), p177

## 9 교양 교육의 필요성 : 감성적 정서의 깨우침

수많은 영화, 공연, 문학을 가까이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 소통에 진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국어보다 수학을, 무리보다 혼자서 좋아하는 아이였다. 친구들의 고민에 위로보다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익숙했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계산을 좋아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는 말도 들었고 애매한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나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싫었기에 현실을 이론으로 분석하는 경제금융인을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금융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경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경제이론의 실현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에서도 결국엔 옳고 그름의 문제와 개인의 주장이 담긴 선택이 필수적이다.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사람의 감정과 소수의 희생을 묵인하는 이론 공부로 일상을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사고하며 무정해지게 된다. 그럴수록 교양 수업은 공부의 방향성과 올바른 태도의 정립을 완성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와중에 적극적인 성찰과 탐구 활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교양 교육 덕분에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 하는 일을 고민할 수 있었다.

## 10 교양 교육의 필요성 : 나의 역할에 대한 확신

지금까지 30학점이 넘는 교양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은 내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여러 분야에서 가치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인문, 과학계를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1학년 때 평소 했던 생각은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문과생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였다. 나의 직업도 기술에 잠식당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식, 이론에 더해 사회의 문제와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 수강한 여러 교양 수업의 가르침 덕분에, 중요한 건 기술의 가치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발전된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것은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나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게 다가왔다. 사회의 구조와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가치의 확립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개인의 주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사고관을 정립해야 한다. 나는 교양 수업을 통해 이를 갖춰나가고 있으며 내 진로와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11 교양 교육의 필요성 : 본분 의식 확립

경제금융 분야는 행위 주체의 의식과 세계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행위 주체자가 돈을 굴려 더 큰 돈을 만들고 자본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와 좋은 서비스가 생기고 사람들의 효용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성을 띤 주체자들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 행위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동안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처벌로 해결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에 퍼져 여러 피해자와 피해국을 양산한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에 속한 모두가 주체 의식을 갖고 관심을 두어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이다. 나는 예비 경제금융인으로서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의 건전한 방향성 추구에 도움이 되고자 전공 수업을 열심히 수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양 수업을 들으며 전문가가 지녀야 할 본분 의식과 잊어선 안 될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

## 12 교양 교육의 가치 : 올바른 어른을 만드는 가르침

세상은 가치 판단에 의한 인간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올바른 인간의 감각과 통찰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나는 이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문화예술을 담은 교양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으로 공감하고 인간이 살아 숨 쉬는 순간의 감정을 잡아주는 문화예술을 쉽게 풀어 학생과 연결해주는 역할로서 교양 교육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전공을 통해 얻는 이론 지식과 논리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교양과 자기 계발을 통해 얻는 감수성과 포용력, 정서적인 소통 능력이 조화된다면,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번쯤은 예술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며 문화적 삶을 주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학은 전공지식을 가르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올바른 어른을 만드는 가르침을 전하는 멘토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과서 속 이론과 정보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경험의 전달, 삶의 태도, 관록, 통찰 등 다양한 형태를 띤 교수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공간이 바로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며 삶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그려나가는 데 함께하는 역할로 빛을 발하고 있다. <영화로 보는 서양의 역사> 수업은 내가 외면했던 현실의 문제점과 모습을 직시하여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

러 다짐과 실천의 물꼬를 터주었다. 이러한 학생 각자의 인생 교양 수업들이 모여 우리는 올바른 어른이 되어 공동체의 가치에 더 다가서게 된다고 믿는다.

### 참고문헌

- 노동호, 남미히피로드, 나무발전소, 2019, p.131
- 곽우신, 손대는 작품마다 화제, 배우들이 욕심내는 작가 지이선, 오마이뉴스, 2018.03.12., <http://omn.kr/nn6t>
- 이탈로 칼비노, <왜 고전을 읽는가>, 이소연 옮김, 민음사(2018), p16
-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0618&docId=892669&categoryId=60618>]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2>, 김연경 옮김, 민음사(2019), p177

## 취향으로 세상 읽기, 예술로 스포츠 읽기

박 소 연 (스포츠산업학과)

2016년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한국에서 여섯 학기, 그리고 외국에서 두 학기를 보내며 교양만 스무 과목 넘게 들었다. 그 중에서도 최고를 꼽자면, 단연 ‘인문학으로 예술읽기’이다.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인문학으로 예술읽기’는, 이름 그대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예술 철학을 바라보고, 예술이 예술 밖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탐구하는 과목이다. 평소 인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여행 차 갔던 뉴욕에서, 참여형 미술관을 방문하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업에서 다뤄질 것이라 기대했기에 수강 신청을 했었다.

이 수업을 맡으셨던 천미림 교수님께서는 첫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다. 이 수업이 본인의 취향을 형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그러면 이 수업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문학으로 예술읽기’를 내 인생 교양으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수업을 통해 내 ‘취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취향이 학업뿐만 아니라 이후의 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1 취향으로 모범답안의 틀을 깨다

나는 원래 무척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어딜 가나 그 곳의 특성에 나를 끼워 맞추었다. 항상 그 곳의 분위기에 맞는 ‘모범 답안’을 고르려고 애썼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안에 대한 내 생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도화지 같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라고, 취향이 없는 것도 취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도화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지 깨달았다. 내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에도 특색이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학과는 달리, 콘텐츠 기획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와는 달리 마음은 여전히 ‘모범답안’을 찾으며 헤매고 있었

다. 대중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일반적인 취향에 내 취향과 내 콘텐츠를 끼워 맞추고 있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서술형의 모범답안을 달달 외워 쓰던 고등학교 때에 머물러 있었다.

그 벽을 깬 건 이 수업이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예술 담론과 작품을 소개해주시고, 그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수업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졌다. 교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등수를 매길 필요가 없으셨고, 우리는 그럴듯한 답을 이야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브컬처와 순수예술의 경계는 어디인지, 어디까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와 윤리적 책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을 생각하고 내뱉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작품, 추천해주시는 전시회를 보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싫어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그 틀에 나를 가둬놓기만 했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하나씩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점차 스스로 지어놓은 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콘서트 가는 것을 싫어했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전에는 싫어하던 콘서트 가기에 도전했다. 그 곳에서 느꼈던 에너지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고, 콘서트 가기는 곧 나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틀을 하나씩 깨면서, 그 틀 중 하나인 ‘모범답안’의 틀도 깰 수 있었다. 모범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내 콘텐츠의 문제점은 평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 콘텐츠는 누가 봐도 네가 만든 것 같다’, ‘네 콘텐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싶었다. 신기하게도, 이 수업을 듣고 일 년 반쯤이 지나서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내가 올리는 사진의 색감, 동영상의 분위기만 보고도 내가 올렸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내가 연재하는 동영상 시리즈,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항상 기다린다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제 나만의 답안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모범답안은 없으며 내가 쓰는 답이 재미있는 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틀릴 지도 모른다는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할 용기가 생겼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에드워드 호퍼<sup>1)</sup>의 그림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가기도 했고, 직접 시카고 건축 투어를 기획하여 스스로 건축사를 배우고 동행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취향이 있는 삶의 행복감에 흠뻑 젖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확신이 생겼다. 취향을 형성한 덕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1) 별첨자료2

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2 내 눈으로 세상을 읽다

수강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질문에 모두가 답변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각자의 전공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셨다. 타 전공의 입장을 들으면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이 만나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매 토의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 동일한 문제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전공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다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체화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 시간에 입을 떼지 못한 적이 많았다. 사고가 유연해지자,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내용과 연결하며 수업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이 떠올랐고, 질문을 해가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 외 실생활과 삶에도 이 자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 단순히 책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내 방식대로 세상을 읽고자 했다. 예를 들어, 난민 문제에 대해 반대 측과 찬성측이 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유럽의 난민 문제와 한국의 난민 문제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다.

## 3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다

예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삶과 관련이 깊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보며 기우제를 지내고, 풍요를 바라며 동굴에 벽화를 그리던 때<sup>2)</sup>부터,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사회에 참여해왔다. 교수님께서도 단순히 예술철학에 대해서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 자본, 미디어, 과학기술 등과 연결지어 배웠고, 예술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사회현상과도 연결지어 배웠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문제와 예술을 연결지어 공부하면서, 현대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행동하는 사람을 꿈꾸게 되었다.

2) 이탈리아의 평론가 리치오토 카누도는 헤겔 미학에서 n번째 예술 개념을 차용하여 제 1의 예술을 기우제 등을 포함한 연극, 제 2의 예술을 벽화를 포함한 회화라고 보았다.

사안에 관심을 갖고 내 의견을 정리해보는 소극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은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내 블로그에 글을 쓰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흑인 인권 문제가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절절히 느낀 적이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시위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보도에 초점을 맞췄고,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왜 흑인의 생명이 우리 동양인 인권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지, 흑인들은 왜 동양인 인종 차별을 하는지에 대해 글을 썼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길 바라며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으로 옮겼다.

교수님은 각자의 전공과 연결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셨고, 나는 내 전공인 스포츠산업과 예술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스포츠도 예술, 특히 참여 예술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 한다. 또한 처음 수강 신청을 했던 때로 돌아가, 참여예술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려 한다.

## 4 스포츠와 예술의 기능적 공통점

대중과 밀접한 콘텐츠는 딱딱한 사안도 부드럽게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서 스포츠 경기의 진가가 드러난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한창일 때, 미국프로농구리그의 여러 팀은 이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냈고, 이를 반영하여 경기를 진행했다. 자연스레 흑인 인권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밖의 해외 팬들에게도 이 운동의 중요성이 전달되었다. 따라서 스포츠는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퍼트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예술이 사회에 참여하여 변화를 일으키듯, 스포츠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 역시 동일하게 수행한다. 앞서 언급했듯, 예술은 기우제를 지내고 벽화를 그리면서 탄생했다. 즉, 종교적 의식을 치르며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합시킨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도구로 예술을 선택했다.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구성원들을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자 장려함으로써 예술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소시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짓고, 이를 통해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이다. 88 올림픽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냉전의 시기,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며 세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결과, 냉전 종식을 앞당기기도 했다. 또한 IMF로 전 국민이 힘들던 시절, 박세리와 박찬호의 활약은 대한민국을 단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부여하기도 했다.

## 5 스포츠와 참여예술의 공통점

참여예술이란 예술가뿐만 아니라 관객까지 협업하여 생산하는 예술로, 관람자의 역할에 의해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본다. 또한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행위’가 작품을 완성한다고 보며, 참여 예술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예술가 개인의 개성을 토대로 완성되는 전통적 예술 양식들과는 다르게, 참여예술은 타인의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스포츠 역시 관중의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관중들이 모여 응원할 수 있는 장은 마련되어 있었으며, 화상 응원이 경기장 내에 중계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는 화려한 카드섹션을 이용한 응원으로, 관중이 직접 예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은 참여예술과 특히 관련이 높은 분야이다. 스포츠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관중과 가장 연관이 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 관중이 입장하기 직전부터 마지막 관중이 퇴장할 때까지 각종 음악과 영상을 활용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시청각 미디어와 막간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관중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경기를 더욱 잘 즐길 수 있도록 경기와 종목에 대해 알려주며,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6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을 참여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능동적 수용자’를 단순히 미디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메시지를 해독하고 의미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자라고 본다. 따라서 본 글에서 말하는 ‘능동적 수용자’란, 단순한 오브제 감상에 매몰되지 않고, 작가가 형성해놓은 예술실천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작품이 함의하는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감상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 창작자’란 작가가 형성해놓은 예술실천의 장 내,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본인이 갖고 있던 예술 실천, 그리고 창작의 욕구를 발현하고자 하는 감상자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은 작품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그들과 작가가 나누는 상호작용 역시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참여예술에서 이러한 대중은 작가가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능동적 수용자’ 또는 ‘소극적 창작자’가 된다.

앞서 참여예술은 새로운 상호작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예술가는 본인과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연출한다고 했다. 또한 대중, 즉 관객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본인의 예술 실천 욕구를 발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은 참여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기장 분위기 조성을 진두지휘하는 메뉴 프로듀서가 연출을 통해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술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입력에 불과하다. 경기장 내 관중들의 마음을 모아

특정 팀, 선수, 혹은 상황을 응원하도록 하는 등 ‘공동체의 형성’과 ‘교류’가 나타나고, 프로듀서가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중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참여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돌발 상황까지 고려하여 완성된 큐시트를 바탕으로 몇 번의 리허설 후 경기 당일 쇼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저 재생 혹은 재현일 뿐이다.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이 관중들에게 경기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 관중은 이를 수용한다. 관객이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만한 부분은 거의 없으며, 창조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이미 각본이 짜인 쇼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관객 역시 경기를 보며 경기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거나, 응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관객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경기에 난입한다면,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경기가 중단되기 마련이다.

다만,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은 무대에서 각본을 갖춘 무언가를 정해진 시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 7 참여예술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술가 개인의 개성을 토대로 완성되는 전통적 예술 양식들과는 다르게, 참여예술은 타인의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저작권까지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참여예술을 예술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참여예술은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장르가 아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화를 그리며 회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것처럼 참여예술 역시 종교와 그 시작을 함께 한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의 고대의 원시 종교부터 현대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들은 각종 의식을 치러왔고, 개인 신도들에게 집단의 성스러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신체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종교들이 제안하는 기도 혹은 절 등의 자세와 노래를 부르고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중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종교가 생긴 순간부터 인

류는 이미 예술 창작에 참여해온 것이다. 따라서 태고부터 존재해왔던 ‘참여예술’이라는 개념이 잠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역사의 흐름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예술계에서도 나타났다. 예술가들은 아방가르드 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전통적 예술작품의 소통방식에 저항하고자 했고 예술가의 권위를 사라지게 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선봉장이었던 플럭서스 예술가들은 “모든 것이 예술이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현대의 ‘참여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일상적인 관계들이다. 인터넷 망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고립과 단절을 일으킨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사회적 기능을 기계가 수행하게 되면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던 관계적 공간들 역시 축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상생 공간과 새로운 상생 방식이다. 참여예술에서 관중들은, 작가가 제안한 공동의 문제를 바탕으로 예술 창작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프랑스의 큐레이터 니콜라 부리오에 따르면, 이렇게 새로운 상생 공간과 방식을 찾는 현상은 문화적 대상에 직면해 새로운 유형의 교류를 시작하려는 집단적 욕망에 기인한다. 새로운 기술로 인한 고립과 단절로 인간은 상호작용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참여예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참여예술이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나타난 예술의 형태이므로 틀림없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한 인물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흐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듯이, 라모 나쉬 씨클이 말했던 것처럼 ‘예술가가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예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참여예술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소위 ‘참여예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창조성을 활성화 시키는 대신 예술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할 권리이자 의무인 저자성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작품 완성의 임무는 관객에게 미루며, 작품의 질 역시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의무를 관객에게 미루지 않는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예술가는 관객의 개입 정도와 예술 작품의 성격 등 모든 것을 고안한다.

비평가 클레어 비숍은 바람직한 참여예술의 경우, 예술가가 조력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대신 ‘픽션’과 같은 특수한 미적 장치를 만들어 내어, ‘연출하는 선동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예술가 자신의 저자성은 지키면서 관객의 창조성이 활성화되도록 연출하여 그들의 예술 실천을 이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예술은 작품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신경미학에 따르면, 관람자는 회화작품을 마주할 때, 작가의 감정도 함께 마주한다. 관객은 예술에 참여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은연중에 작가의 감정과

의도까지 느끼게 된다. 관객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러한 감정과 의도가 묻어나고, 이는 결국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표현하는 것이 있다. 뒤상은 이를 ‘예술 계수’라 칭했는데, 이 사이에 관람자가 들어와 자신이 본 것을 말할 때 비로소 예술가의 창조적인 행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의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해석이 보다 풍부한 작품을 완성하고, 예술가의 창조적인 행위를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가 관객의 인식과 행동 양식에 변화를 주듯이, 관객은 예술가에게 다른 시선의 맥락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작품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미더記(2010), “[문화] 제1예술에서 7예술까지”, 미더記  
<https://mediaculture.tistory.com/entry/%EB%AC%B8%ED%99%94-%EC%A0%9C1%EC%98%88%EC%88%A0%EC%97%90%EC%84%9C-7%EC%98%88%EC%88%A0%EA%B9%8C%EC%A7%80>
- 송정록(2016), “[평창!평화를 말하자]2.평화올림픽의 서막”,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65168>
- 조주현, 「포스트-미디어 시대 참여예술의 담론과 양상 연구 : N. 부리오의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
- Boris Groys, "A Genealogy of Participatory Art", The Art of Participation 1950 to Now, (San Francisco: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Thames & Hudson,
- 니콜라 부리오, 『관계의 미학』, 미진사, 2011
- Claire Bishop, "Social Turn: Collaboration and Its Discontents," Artificial Hells, (London, NY: Verso, 2012), p.37
- 이정민, “[삶과 문화]오작동의 작동, 작동의 오작동”, 2014.06.26.,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4c53c1e997a49319c434488747f37a8>

# 생물학과 철학의 창조적 접점 찾기

경 어 진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김동규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활과 리라: 생물학과 철학의 창조적 접점 찾기’ 수업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했던 ‘활과 리라’라는 은유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이질적인 것 사이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유를 폭넓게 ‘확장’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조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물학과 철학의 한계를 직시하고 두 학문의 차이의 경계를 명확히 그음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갈라지는 두 학문 간의 해석 차이를 변별하고 더 나아가 생물학과 철학 사이의 창조적인 접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철학과 김동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고, 교재의 공동저자인 생물학과 김응빈 교수님께서도 질의응답과 토론에 함께하셨다. 두 교수님께서는 각각 분야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고 ‘논란거리’를 던지시며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셨다.

## 2 수강 동기

이 수업을 통해 ‘도전’해보고 싶었다. 인문학도로서 내 고민 중 하나는 학문의 ‘깊이’였다. 기초 학문에 관심이 있어 인문학을 택했지만 정작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것은 몹시 일차원적이고 단편적이었다.

비단‘융합’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됐다.

수업을 신청하며 가장 망설여진 것은 단연 제목이었다. ‘철학’과 ‘생물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학문이 만난 것도 모자라 이들의 접점까지 찾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 과목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이에 용기 내 ‘활과 리라’ 수업을 수강하게 됐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징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학문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철학과 교수님과 생물학과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시지만 이 두 교수님은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철학과 교수님께서는 미토콘드리아와 공생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생물학과 교수님은 생물학의 관점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신다.

“철학과 교수님과 생물학과 교수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시니 양쪽 학문에 대해 각자 교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제 편견은 이 수업에서 아무런 의미 없었다. 적어도 ‘활과 리라’ 수업에서만큼은 생물학과 철학의 경계는 없었기 때문이다.

수업 방식도 독특하다. 교수님께서 생각할 거리를 영상으로 정리해 매일 올려주시지만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다. 학생들은 매일 ‘토론’했다. 교재를 읽고,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생각 거리를 곱씹어보며 각자의 의견을 냈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거리’를 내고 실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도 발전했다.

특히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것도 이 수업의 장점이다. 우리는 아침에도, 늦은 새벽에도 언제고‘논쟁의 소용돌이’라는 의견 제시 방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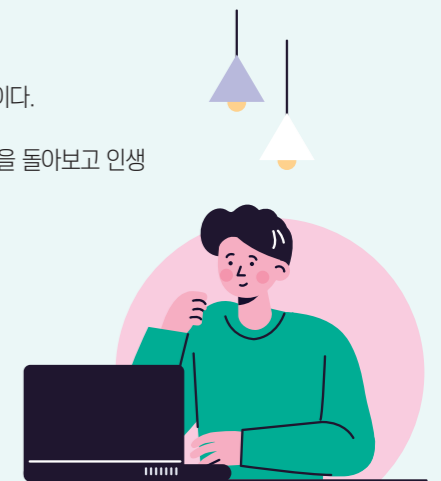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토론’을 관찰하시고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시며 우리가 수업의 ‘주체’가 됐다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다.

## 4 “인생교양”인 이유

수업을 통해 학문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곱씹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라는 사회적 상황과 철학, 그리고 생물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나는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보게 됐다.



## 1) 'Life', 생명과 생물, 그리고 '살아있음'

일상 속 심심찮게 보이는 단어, 'Life'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그 많은 의미 중 코로나 이후 달라질 'Life'는 무엇일까. 나는 수업을 통해 이를 '살아있음'의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Life'는 '삶'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살아있음'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가 바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있어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올 초부터 유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대부분 인간에게 트라우마가 됐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류 문명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마치 기계처럼 쉼 없이 움직이던 인류가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그 성장을 멈춘 듯하다. 세계 각국은 국경을 닫았고, 더 이상 인적·물적 교류를 강조하지 않는다. 공장은 오래도록 움직임을 멈췄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가게의 의무 폐쇄를 명령한 국가도 있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할 만큼, 온 우주의 중심을 자신에 두었던 인간이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작은 생명체에게 '침입'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간 우리가 '살아있음'을 누린 방식과 그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이러스가 있다. 박테리아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오직 숙주 세포에서만 기생할 수 있다. 증식할 때도 세포 분열이 아닌 조립을 할 뿐이다. 즉 이 작고 힘없어 보이는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존재'가, 숙주를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 생명체가 인간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연결망들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인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듯한 모습은 적잖은 충격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어떤 'Life'를 누려왔는가. 생각이 커지다보면 우리는 비로소 문제점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인간', 즉 인간만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자들이다.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서구 문명과 전통 철학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등장하며 실제로 동물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등 다양한 관점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오늘 날 우리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 삶을 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체 간의 위계구조를 인정하고, 진리의 왜곡하며 살아간다. 자신과 유사한 동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차별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한다. 당장 오늘날 해도 우리는 생명체들의 '사체'가 가득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집 앞 플라타너스 나무는 '무성해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명 한번 못 지르고 가지가 잘려나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닭과 소는 죽임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인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맴돌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넘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위계'를 나누고 경쟁한다.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곤, 즉 '경합'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이를 기본 원리로 삼아 정치적 도구로까지 활용했다. 그 결과 사회는 경쟁을 '발전'의 척도로 보고 '훌륭한 것'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는 "나무로 엮은 월계관"을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자가 진정한 삶의 '주인'이라지만 우리는 계급사회에서의 경쟁에 빠져 어찌면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살아있음'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만든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이후의 문제 해결은 MUNUS,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도 '선물'인 셈이다.

우리는 비단 면역의 측면이 아닐지라도 자기와 비자기를 철저히 구분한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대상에 대해 의무와 책임, 나아가 특권을 배제하고 그들을 명확한 '비자기'로 구분한다. 또한 면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쟁'으로 보고 이방인을 배제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면역은, 면역력'은 이방인을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를 둘러싼 타자들로부터의 불가피한 위협에 부딪힐 수 있는 힘이자 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며, 끝내는 이를 기억해 낼 수 있는 '용기'이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공생으로서 면역을 바라보고 공동체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함께 살아있음'으로서의 'Life'를 영위해야한다는 말이다.

기억과 가치의 매개에 있어서도 유전자의 '형질도입'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들로부터 '협력'을 배워야 한다.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이 세균 저 세균 감염하고 다니며 실수로, 우연히 감염했던 세균에서 그 DNA 일부를 묻혀와 수평 유전자 이동을 매개하듯 우리도 서로를 경쟁상대로 두기보다는 기억의 매개에 '함께'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을, 나아가 '살아있음'의 가치를 모아 새로운 'Life'의 의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랑. "누가 사랑에 대해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경합을 벌이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부러진 날개'를 치유하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에너지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삶이란, '살아있음'이란 사랑의 실감이자 실현이다.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자 Life이며, 참된 사랑일 것이다.

다른 존재를 ‘타( )’ 그 자체로 인식하며 장벽을 높이고 분리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진정한 ‘살아있음’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방인의 접촉과 침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생해야 한다. 어쩌면 면역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일지 모른다.

## 2)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보통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보통’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당연함’으로서의 ‘보통’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Life’로서 ‘함께 살아있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나의 성장 스토리

“대학은 기지에 안주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지에 도전하는 곳이니깐요.”

교수님께서 언젠가 줌 전체 채팅창에 해주셨던 이 문장은 내게 ‘활과 리라’ 수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잘 드러낸다.

이 강의는 ‘도전’ 그 자체였다. 수강 신청 날 ‘생물학과 철학’이라는, 내게 ‘미지’와도 같은 영역을 다루는 이 강의에 ‘도전’하며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미생물과 플라톤이라는 생소한 영역도, 개체에 대한 개념도, 심지어는 고등학생 시절 인상 깊게 읽었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교수님 견해도, ‘예술과 바이러스’라는 독특한 은유도 모두 생소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활과 리라’ 수업은 이런 ‘낯섦’이 주는 의미를 알려준 강의였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고 익숙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다보니 결국 그때마다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활과 리라’ 수업을 수강할 당시, 아직 대학에서의 두 번째 학기도 채 마치지 않았기에 스스로도 가끔 나를 ‘대학’생이라 부를 수 있는지, 과연 그만한 크기의 배움과 그만한 크기의 생각,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저 가르쳐주신 내용을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었고, 이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는 내 생각의 크기가, 인내의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내용을 접할 때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보다는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수용’할 준비를 하는 스스로를 보며 특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도, 다른 강의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암기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수업이

많았다면 적어도 ‘활과 리라’ 수업만큼은 교재를 여러 번 곱씹고, 나만의 정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다른 학우들과의 관계도 기억에 남는다. 그 어떤 수업에서 만난 학우들보다도 가장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다. 때로는 학우들의 의견을 통해 교재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를 마련하기도 했고, 책 내용에서 확장된 대화를 나누며 내 생각 또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모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1인 미디어와 예술’을 제시한 학우의 견해를 통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모방과 욕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인간중심주의가 자연에 미친 영향을 질문한 학우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인간이 아닌, 자연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평소엔 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비단 토론에서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학기 초, 게시판에 올린 자기소개 글을 보고 따로 연락을 주신 학우도,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참고 페이지까지 알려주신 한 학우도, 소모임방에서 의견을 내면 ‘흥미롭다’며 집중해서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던 학우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활과 리라’를 수강하며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은, ‘공생’의 관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수업에서만큼은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외롭거나 쓸쓸하기 보다는 늘 누군가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공부를 했다.

이 강의 이후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

### 1) 미생(微生物)으로부터 오는 배움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게 됐다.

미생(미생물)이 미생(未生)의 존재, 인간에게 주는 가르침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특히 ‘공생’의 측면에서 말이다. 하지만 비단 이 부분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작은(微) 것에서 배움을 찾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중 하나는 교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 호박꽃으로 벌을 잡으셨던 이야기인데, 스치듯 지나가는 하나의 ‘일화’에서 ‘개체’의 개념을 떠올리시고, 이를 성장과 성찰의 발단으로 삼으시는 게 인상 깊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미생물’ 심지어는 이보다 더 작은 ‘미토콘드리아’를 시작으로, SNS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형질 전환형’ 전달을 이해한다거나 Immunitas, Communitas와 같은 단어들의 어원을 쫓아 그 의미를 유추해보고, ‘팝스타’가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 ‘모방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들을 함께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배움을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주어진 것에서만 이해하고, 외우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작은 것’들로부터 오는 사소한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생각을 확장해 능동적으로 ‘배움’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웠다.

‘담화’를 다루며 이론적인 ‘토론’을 배울 때도, 하다못해 지금까지 토론을 했을 때도, 지금 소속된 토론 동아리에서도 ‘토론’이라 하면 언제나 내 의견이 맞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해 좋은 점수를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소모임 토론방에서의 토론은 이런 생각을 바꿔 놓았다.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는 목적 외에도 생각을 ‘확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됐다.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는 보고, 또 그 사람이 찾지 못했던 ‘작은 부분’을 나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했던 ‘인간중심주의’ 토론이 생각난다. 이 토론에서 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우들과 토론하며 이전처럼 ‘공격적’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수용적’ 태도로 참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도전’하는 경험을 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과제도, 시험도 아니었다. 큰 꿈과 포부는 사라진 채 그저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며 눈앞의 것들을 해치우기에 급급한 내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속상했다.

이런 내게 ‘활과 리라’ 강의는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 생물학, 철학 그 어느 것도 쉽거나 익숙한 것이 없었지만 교재를 읽고, 수업 영상을 보고, 줌 수업에 참여하고, 또 때로는 다른 학우들에게 질문도 하며 어렵지만 그럼에도 ‘계속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학기를 마치고 나니 가장 큰 성취감이 드는 부분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나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드려’보며 도전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수업을 듣고 정리한 한 문장이다. 비단 인간이라는 존재 뿐 아니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게 우리가 ‘함께’함을 알려준 이 수업은 분명 나를 ‘성장’하게 했다.

다음에도 이런 ‘도전적’강의가 열린다면 또 한 번 ‘성장’하고 싶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내 위치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멜랑콜리미학』 (김동규, 문학동네, 2010)
- 『나는 미생물과 산다』 (김응빈, 을유문화사, 2018)

##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강 현 지 (교육학과)

나의 인생교양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이라는 강의다. 이 강의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생물학적 지식과 실생활에서 접하는 이슈들을 연계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소속인 안주홍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강의에서는 생명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온 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수소결합 등 생명의 화학과 관련된 부분과 광합성 및 세포호흡의 과정, 세포 분열과 유전, 그리고 진화 등 다양한 내용을 생명의 흐름에 맞추어 배운다. 나는 교육학과 학생으로 인문사회계열이지만 학과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들어보고 싶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던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생명과학을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따라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찾아보던 중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이라는 친근한 강의 이름이 눈에 띄었고 ‘인문사회계열만 들을 수 있는 강의’라는 설명에 또 한 번 이끌려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였다.

내가 이 교양 과목을 들었던 2020학년도 1학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수업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강의의 특징과 그에 따른 장점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기초 지식이 없어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학과와 경우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영역의 교양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매주 보는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 강의는 매주 지난주 강의 내용에 대한 퀴즈를 본다. 배웠던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심화시킨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념을 응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퀴즈는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교수님,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하는 야외수업을 통해 생동감 있는 대학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강의는 한 학기에 한 번 교수님, 학우들과 함께 야외 수업을 진행한다. 2020학년 1학기에도 야외 수업을 했다. 나의 경우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야

외수업은 분명히 독특한 경험이고 뜻 깊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는 생명과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강의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 수 있다. 자신의 전공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접해보는 것도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교양 과목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교양 과목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다른 과목과 엮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교양 과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1학년으로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어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강의는 선배와 동기들에게 권유를 하고 싶고, 실제로 추천을 했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인생 교양 과목이라고 자신한다. 물론 처음에는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당장의 성적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과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대학교의 수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를 예상할 수가 없어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기본 개념과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실생활에 적용한 응용버전까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들어 강의를 진행하셔서 큰 무리 없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었다. 개념과 원리를 공부할 때는 특히 교수님께서 활용하신 영상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젖샘세포에서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기까지의 과정, 전자전달사슬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다음 분자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 능동수송,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번역의 과정과 세포 분열의 과정 등 달달 외우면 외울 수도 있는 과정들이지만,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공부하면 퍼즐이 맞추어지는 효과를 내면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흐름이 이해가 되었고, 글자로 외웠다면 놓쳤을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영상'이라는 자료가 과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영상을 참고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삼투의 과정에서 선택적 투과막을 통해 물이 확산되는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U자관을 나누고 있는 선택적 투과막은 물만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과 '물은 저농도의 용질에서 고농도의 용질이 있는 방향으로 확산한다.'라는 결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U자관中间的 선택적 투과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적 투과막을 기준으로 한 쪽의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삼투의 영향을 보여주는 적혈구 세포의 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닷물고기를 담수가 들어있는 어항에 넣었을 때 물고기가 죽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삼투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저 '환경이 바뀌어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삼투를 이해하고 난 후에는 '그렇다면 환경이 바뀌어서 왜 죽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다. 바닷물고기가 담수에 들어가게 되면 주위의 용질의 농도는 물고기의 세포 내부보다 더 낮다. 따라서 삼투로 인해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막이 터질 수도 있다. 즉, 물고기의 세포들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되어 죽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광합성에서의 명반응과 탄소반응, 세포호흡의 단계 등 어려웠던 부분을 공부할 때 영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처

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강의는 다양한 영상과 시각자료를 활용해 생명과학 기본 지식을 너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강의의 이름처럼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나면 아무런 관심 없이 넘어갔던 주제들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역량을 키울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가 이 강의를 인생교양으로 꼽은 이유는 바로 학생과 교수님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셨다. 또한 온라인 강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교수님과 소통이 잘 되었다. 강의 내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그 외의 다른 궁금증들을 교수님의 메일이나 블랙보드 메시지를 활용해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 또한 책의 오타자, 오류를 찾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답례를 해주시고 이후에 피드백을 따로 올려주셨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강의를 들으며 불편했던 점을 써내라는 칸이 있었다. 강의 중간에 활용하는 영상의 소리가 조금 작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주셨다.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에게 초콜릿과 물을 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소소하지만 정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이라는 교양강의를 통해 단순히 교과지식만을 배우지 않았다. 교과목의 이론을 넘어 다양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자신감'이다. 평소 나는 도전정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 과목을 처음 선택했을 때도 '굳이 왜 복잡하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을 선택하느냐, 과학기술영역을 쉽게 채울 수 있는 P/F 강의도 있다, 식품영양학과 친구들이 학점을 다 가져간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등등 주변인들의 만류에 잠깐 흔들리기도 했다. 물론 예상대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배우니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다양한 영상자료들을 참고하고,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촌오빠에게 질문을 하며 하나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영상과 시각자료에 매력을 느꼈다. 따라서 이번 2학기에는 생명과학 심화 이론과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를 듣고 있다. 이번 강의는 계열 상관없이 모두가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내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일단 도전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보지 않은 길에 겁을 먹고 주춤하기 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관점



이 달라졌다. 나는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알게 공부하기 보다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그 외에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한 가지의 전공 지식만으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새로워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는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들이 있다. 처음에는 그런 과목들로부터 배우는 교과 지식들을 그저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과목들 사이에 일정 부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 과목이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대학교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전공과목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양과목을 들으며 엮어가며 공부하는 것과 학제적인 공부에 매력을 느꼈다.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다양한 분야를 접해 보는 것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나는 교사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교육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한 때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은지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던 중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을 가르치는 안주홍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에서는 자신의 전공과목도 들을 수 있지만 교양과목을 통해 또 다른 분야를 경험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내 진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많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은 대학 생활에서도 교양 과목들을 잘 활용해서 철학과 법과 같은 어렵고 생소한 분야들도 접해볼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해 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 강의는 현재까지도 나의 인생교양으로 남아있다.



## 03

# 교양으로 미래를 열다



1.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보다 | 정윤주·이시은
2. 영화와 인문학의 네트워킹 | 이지현·김기연
3.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열린 성찰의 자세 | 송아림
4. 삶의 경계를 넓히다 | 이다연·이세진
5. 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내 삶의 이정표 | 문채원





##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보다

###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보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

이시은, 정윤우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의 특징점

1. 주변을 물리로 이해하며 배우는 수업  
ex) "정보란 무엇인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배우는 정보의 전달 과정
2. 철학, 예술, 인문학과 연관 짓는 스토리텔링 식의 수업  
ex) "뉴턴의 운동법칙  $F=ma$ "  
→ 일정 시간 이후의 물리량 예측 가능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발전

1. 과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됨  
: 갈릴레오의 '코스모스', 독서 및 다큐멘터리 '노바: 블랙홀 아포칼립스', 등 시청



→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생각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발전

2. 꾸준한 과학 교양 과목의 수강  
ex) 『빅뱅에서 문명까지』, 『기후변화와 문명사』, 『소프트웨어적 사고』, 등  
(1) 과학공부에 있어 **개념적 사고**의 중요성 인지  
: 인문학적 역사 분석 방법을 과학에 접목  
= 교수님이 강조한 학습 태도  
(2) 양계관론을 통한 **뇌의 구조** 이해  
(3) 새로운 양계관론에 대한 토론  
: 지구형 행성 찾기



TOI 7004 상상도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발전

3. 우주에서 내 존재를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 성립  
: 내 선택과 결정에 좀 더 도전적이고 용감한 자세
4.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  
ex) 일반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우주에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음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발전

- 은하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끼친 존재는 무엇인가?



별들은 은하 중심을  
중회 수천 km부터 1만 km까지  
당양한 속도로 돌고 있었다

블랙홀

#### 강의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발전

- 다른 교양 강의에서 '발견들과 은하계'라는 주제로 자유발표



→ 자유발표 기회 주

#### 진로에 실제적으로 미친 영향

-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과학 콘텐츠 제작
-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현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과학 내용을 정정하는 다큐멘터리  
ex) 유전자 변형 식품 및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하여

#### 과학과 교양에 대한 생각 변화

##### 과학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

##### 교양

인문학과 과학으로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인생교양 : 모두를 위한 물리학

## 과학의 창으로 세상을 보다

- 과학의 대중화의 수혜자인 우리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역할을 생각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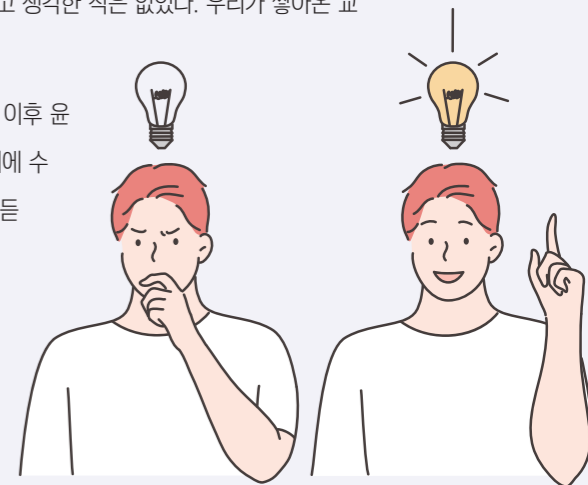
정 윤 우·이 시 은 (언론정보학과)

### 1 수강 전 모습

우리는 뺏속까지 문과생이다. 같은 고등학교 문과를 나와 같은 대학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한 친구 사이이니 서로가 얼마나 과학에 무지했는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 중 1%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과학은 이과 친구들이 하는 학문이며, 우리는 문과생이니 인문학만 잘 공부하자는 관념이 우리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문과생이라는 핑계로 과학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과학도 교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한 번도 과학을 당연히 알아야 할 분야라고 여기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스스로 찾아서라도 공부하려고 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역사 시간에는 세세한 전쟁 발생 순서와 연도를 외웠으며, 국어 시간에는 시조의 형식을 구분했다. 윤리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구분했으며, 음악 시간에는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를 외웠다. 현대사회에서 필수 교과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창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열역학 제2 법칙, 상대성이론, 빅뱅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쌓아온 교양에 과학은 없던 것이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시은이 2019년 1학기에 먼저 들었고, 이후 윤우에게 추천을 해줘서 2학기에 윤우가 수강한 강의다. 같은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지만, 한 명이 추천을 해줘서 다른 한 명이 듣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각자의 성장 스토리와 우리가 같이 공유한 생각, 그리고 강의 평가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에세이를 작성하고자 한다.



## 2 김상욱 교수님 소개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다수의 예능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연가이자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김상욱 교수님이 다방면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이유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다. 교수님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탐구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임을 강조한다.<sup>1)</sup> 이러한 생각으로 대중에게 과학에 관심을 키우는 계기를 선물해왔다.

교수님은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책 집필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어쩌면 연구보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저서인 「김상욱의 양자 공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풀어가며 물리학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책이며, 「떨림과 울림」은 물리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외에도 교수님은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고, 그 결과 2020년 카오스재단이 선정한 국내 과학책 문화를 이끈 과학자 1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sup>2)</sup>

김상욱 교수님의 별명은 “철학 하는 과학자”다. 교수님은 현재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것을 이미 과거의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답했듯이 과학자도 철학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sup>3)</sup> 교수님이 물리학과 다른 학문 간의 융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업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업에서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철학, 예술, 인문학 이야기가 등장한다.

## 3 강의 소개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궁금해하는 후배가 있다면 과목 이름 그 자체라고 설명해 주고 싶다. 학년, 전공, 나이 관계없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물리학 교양과목이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 현대 과학이 물리의 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물리학은 전공자들에게도 어렵다고 정평이 난 이과 학문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공식과 역설을 거듭하는 이론은 비전공자들이 물리학에 진입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물리학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업에서는 물리를 이루는 핵심 철학과 원리를 최대한 수학 없이 설명한다.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1) 송경원,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 혹은 방법이다”, 씨네21, 2016.03.08

2) 정유철, “교양과학 대중화 위한 ‘읽다, 과학’ 캠페인 펼친다”, K스피릿, 2020.04.24

3) 강성만, “얼굴 알려지니 재밌기도 불편하기도... ‘방송’ 무서워요”, 한겨레, 2018.12.17

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은 물리학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며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다.

강의목표는 물리를 이루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현대철학과 첨단과학의 기반을 이루는 여러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운동의 법칙, 전자기학, 카오스 이론, 시공간과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을 공부하기 위해 주변의 것들로부터 탐구를 먼저 시작한다. 교수님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유명한 영화를 예로 들어 가르친다. 교수님은 “정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수업시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의 전달 과정을 설명했고, 영화 「매트릭스」 속 가상의 세계를 이용해 이진법으로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물리학적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변을 물리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스토리텔링 식의 수업으로, 물리학을 철학, 예술, 인문학과 연관 지어 가르친다. 그 예로 뉴턴의 운동법칙  $F=ma$ 를 들 수 있다.  $F=ma$ 를 이용하면 위치와 속도에 대한 물리량을 알고 있을 때 이후의 시간에 대한 물리량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 즉, 미래는 결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인간은 왜 사는 걸까?

교수님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 과학과 철학이 무 자르듯이 완벽히 분리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의의 과제는 1,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일주일 동안 들었던 수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매주 제출하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올린 강의안이 있었지만, 중요 키워드와 그림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과제를 작성해야 했다. 교수님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되었던 내용을 글로 쓰면서 우리 식대로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의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다시 작성하면서 과학 분야에 대한 문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 4 수강 이후 발전

**윤우)** 수강 후 가장 큰 변화는 과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영어신문사였다. 1학년 때부터 영어신문사 기자 활동을 해오던 나는 “KH Research”라는 섹션의 기사를 쓰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이 섹션은 우리 대학교 교수님의 연구를 인터뷰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주로 이과 학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 질문

을 만들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부담이었다.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도 앞서 “이과” 학문을 이해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섹션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피하곤 했었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하고 난 후쯤에는 영어신문사에서 후배 기자들의 기사를 교정해주는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회피하던 KH Research 섹션의 기사를 담당해서 후배들의 기사를 교정해 주기 시작했다. 후배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면,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 질문을 만들어서 추천하기도 했다. 내가 만든 인터뷰 질문은 신선한 질문이라며 교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다.

영어신문사 활동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학 대중 교양서적과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하면서 가장 즐겁게 공부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대상은 우주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블랙홀에 관한 「노바: 블랙홀 아포칼립스」,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과정을 담은 「아폴로 11」, 우주 망원경 허블을 수리하는 과정을 담은 「아이맥스 허블」 등의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과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활동이었다.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면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수, 더 나아가서 다른 은하와 우주의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존재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한 천문학자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천문학자는 은하수에서 별들이 도는 양상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관찰을 통해 별들이 은하수 중심을 초속 수천 km부터 초속 1만 km까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빠르기라면 별들이 돌고 있는 중심은 엄청난 질량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추정치가 무려 태양 질량의 4백만 배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주에서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진 존재는 블랙홀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 중심에도 존재하며 은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은하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과 함께 성장한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은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은하가 안정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sup>4)</sup> 이 주제로 다른 과학 교양 강의에서 “블랙홀과 은하계”라는 주제로 자유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약 1,000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언젠가 블랙홀이 우리 지구,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삼킬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강의에서 가지게 된 호기심으로부터 탐구를 이어나가, 다른 강의에서 발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의미미한 시간이었다.

이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더욱 뜻깊었던 위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안드

4) PBS(2018), “NOVA: Black Hole Apocalypse”

레아 게즈라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이다. 이 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보며 굉장히 반가웠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현대에서 인류의 미래에 공헌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연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다. 문과생이라는 정체성에 나를 국한했던 내가 과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수강 후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주에서의 지구의 크기와 위치를 배우며 인간의 존재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에서는 인간만큼 큰 존재가 없지만, 우주에서 인간은 부피로나 삶의 시간으로 보나 보잘 것없는 존재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상심했다. 이 작은 지구에서 더 작은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뭘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흘러가고 있는 시간도 우주에서는 가속도에 의해 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구에서 절대적이라고 여겨온 모든 것들,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이 옳다고 생각한 관습과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모순적이게 내 존재의 왜소함을 인정하면서부터는 나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내가 한 작은 실수에 너무 미련 갖지 않고, 선택이나 결정에 좀 더 도전적이고 용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어차피 티끌만 한 존재라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모두 누리다 죽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배웠다. 칼 세이건은 인간은 우주에서 티끌의 티끌만 한 존재지만 우주의 숭고한 전환의 과정을 엿볼 수 있음은 인간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것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한다.<sup>5)</sup>

과거 인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우주를 탐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은 나에게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다시 불어 넣었다.

**시은)** 나의 존재와 주변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배우면서 지식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실감했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질문에 “원자, 별, 수소, 헬륨” 등의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질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이다. 물론 교양 강의 한 개만으로 과학 지식을 쌓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모두를 위한 물리학」 수강 후 꾸준히 과학 교양을 들으려고 노력 중이다.

5) Carl Sagan(2006), “Cosmos”, 60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하고 바로 다음 학기에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했다. 두 과목 모두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 문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과목이었지만 접근하는 과정은 달랐다.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인류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학문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우주적 관점으로 조망해 여덟 개의 임계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여덟 개의 임계국면에는 138억 년 전의 빅뱅, 별의 출현, 새로운 원소의 출현, 태양계와 지구, 지구상의 생명, 집단학습, 농경, 근대혁명이 있다. 다음 임계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골디락스 조건이 필요하다.

이후 데이비드 크리스천의 “The history of our world in 18 minutes”이란 TED 강의를 찾아보며 거대사적 관점으로 여덟 개의 임계국면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대사적 관점은 인문학적 역사 분석 방법을 과학에 접목하는 방식이다. 과학공부에 있어 거대사적 시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거대사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융합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유익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강조하던 학습 태도와도 같았다.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교양이라고 강조하던 교수님의 말의 의미가 한 번 더 피부로 와닿았다. 과학과 인문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원리를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학습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임계국면을 배우며 9번째 임계국면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현시대에 지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제2의 지구를 발견하는 것이 지구의 다음 임계국면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게 될 먼 미래를 상상해보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지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올해 초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 TOI 700 d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2021년에는 행성 TOI 700 d에 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발사하여 대기의 존재와 성분비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sup>6)</sup> 공상과학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나의 9번째의 임계국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다.

한편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윤우에게 추천한 후, 과학 교양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9번째 임계국면 역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눴던 주제 중 하나다. 9번째 임계국면에 대한 내 생각을 윤우에게 말했더니, 윤우는 책에서 전파 천문학에 관한 내용을 보았다며 내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우는 전파 천문학은 초보 단계의 문명의 행성도 쉽게 수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6) 유세진, “100광년 밖에 거주가능 추정 ‘제2의 지구’ 있다…지구와 비슷한 크기”, 뉴시스, 2020.01.07

전파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움직이고, 우주 공간에서의 어떤 방해 물질도 어려움 없이 뚫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파를 이용한 우리의 문명권 탐색은 겨우 초보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우리 은하에는 고도의 기술 문명권이 수백만 개나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전파를 이용하여 조사한 별은 겨우 수천 개에 불과하다.<sup>7)</sup>

윤우의 이야기를 듣고 지구의 전파 천문학 발달 단계가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들을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함께 해결해 간다면 다른 행성과 만남이 그렇게까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38억 년의 지구사가 몇 번의 임계국면을 맞이해 변화를 계속하고, 그 변화에는 적당한 조건들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보며 지구사가 인간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인간은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순간은 자신의 임계점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골디락스 조건은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게으름, 노력과 사랑 등 다양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임계국면을 겪어왔는지 궁금해졌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인내와 노력이라는 골디락스 조건이 작용해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던 대학 합격의 순간이 있었고,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자격증 시험을 포기했던 임계국면도 있었다. 내 인생에 긍정적인 임계국면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사의 임계국면을 배우는 과정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

## 5 강의 운영 방식에 대해 느낀 점과 제안

「모두를 위한 물리학」은 약 1,000여 명이 듣는 온라인 강의다. 대규모 강의이다 보니 한 명의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튜터는 여러 명의 대학원생 조교가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 튜터가 하는 역할은 질의응답에 올라온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매주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를 검사하고 피드백 댓글 달기 등이 있었다.

한 학생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다른 학생들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카오스 이론을 배울 때 한 학우가 태양계에서 수많은 행성과 위성이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궤도로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남긴 걸 본 적이 있다. 이론을 배우면 개념은 이해해도 실제로 적용

7) Carl Sagan(2006), “Cosmos”, 591-593

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학우는 자신의 제일 가까운 주변에서 그 사례를 찾아 질문한 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질문에 대한 튜터의 답변을 통해 태양과 지구의 중력에 따라 카오스 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른 학우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해주는 튜터가 있어 수업의 튜터링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시험 방식은 수강생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 객관식으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강의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객관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스토리텔링 식의 강의에 비해 평가 방식이 일률적이라 다소 아쉬웠다. 만약 「모두를 위한 물리학」이 소규모 강의로 바뀐다면 주관식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강의를 물리학 이론의 근본을 이해한 바탕에서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만큼,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학생만의 사유를 주관식 평가 요소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6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김상욱 교수님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보았다. 우리가 과학의 대중화의 수혜자인 만큼, 우리도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었다. 콘텐츠 제작자가 꿈인 우리는 과학 콘텐츠를 제작해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정리했다.

**시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 지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 미래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sup>8)</sup> 이에 따라 한국은 연구개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약 79조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개발투자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이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55%로 세계 1위 수준이다.<sup>9)</sup>

8) 박기범(2008), “기초과학정책의 과제와 전망”, 과학기술정책 62

9) 이성용, 김유리(2018),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11

하지만 과학 투자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다. 이 지점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싶다.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와 기초과학 투자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는 노벨상이 발표되는 10월 이후 잠깐뿐이다.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현시점을 정확하게 담는다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윤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과학 내용을 정정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방향으로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적인 예시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흔히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불려왔으며, 유전자 변형이 된 식품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더욱 익숙해진 데에는 미디어에서의 빈번한 사용이 일조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조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에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고, 모르는 사이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 교양 수업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유전자 변형은 현재 인간이 먹고 있는 흔한 채소도 겪어왔던 과정이었으며, 정말 미세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진실이었다.

최근에 이 논쟁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오해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할 때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생명과학대학 김유진 학술연구교수님에 의하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원래 존재하던 유전자에서 어느 한 부분만 변형할 수 있는 정밀한 유전자 교정술이다. 원하는 유전자의 필요한 형질만 집어서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에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생명공학원 정기홍 교수님은 유전자 변형 식품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로 좋지 않으며, 이 기술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초국적 종자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식량난을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두 교수님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생명공학 기술이 실제로 실용화되어 식량문제 해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만들어낸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논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대중이 과학적 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꿈꾸고 있는 내가 꼭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다.

## 7 교양과 과학에 대한 생각 변화

교양은 인문학과 과학으로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수강함으로써 문과생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과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노력 중이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편협함에 갇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틀을 부수고 나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인간은 비로소 발전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을 들음으로써 한 단계 성장한 것이다.

우리가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에 참여한 이유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과 같은 강의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포용적으로 변할 것이다. 교양은 개인을 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 강성만, “얼굴 알려지니 재밌기도 불편하기도...‘방송’ 무서워요”, 한겨레, 2018.12.17
- 김우재,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가 ‘밑빠진 독 물붓기’인 이유는”NEWSTOF, 2020.02.12.
- 박기범(2008), “기초과학정책의 과제와 전망”, 과학기술정책 62
- 송경원,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 혹은 방법이다”, 씨네21, 2016.03.08.
- 유세진, “100광년 밖에 거주가능 추정 ‘제2의 지구’ 있다...지구와 비슷한 크기”, 뉴시스, 2020.01.07.
- 이성용, 김유리(2018),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11
- 이해준, “101.4광년 밖‘지구같은 행성’TOI-700d를 아시나요”, 중앙일보, 2020.10.27.
- 정유철, “교양과학 대중화 위한 ‘읽다, 과학’ 캠페인 펼친다”, K스파릿, 2020.04.24
- 최용락, “어떻게 수소가 인간으로 변했는가”, 프레시안, 2020.01.11.
- Carl Sagan(2006), “Cosmos”, 60, 591-593
- PBS(2018), “NOVA: Black Hole Apocalypse”

## 영화와 인문학의 네트워킹

### - 융합의 중요성을 알려준 인생 교양

이지현·김기연 (연극영화학과)

지도교수 : 천미림

우리는 연극영화학과 17학번 영화전공 동기다. 같은 전공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던 우리는 서로의 영화 작품 조연출을 하면서 진로,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들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니며 매년 비슷한 수업을 듣게 되었고 3학년이 되어 융합학부로 다중전공도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역시 김성희 교수님의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미래 인문학>을 같이 수강하였는데 이 수업에서 우리는 <제1회 전국 교양 콘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졸업 영화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콘테스트에서 상금을 타서 졸업영화 자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콘테스트를 준비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 둘 모두 “대형 강의실에서 교양 수업 듣기”를 고교 시절 대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으로 가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한 뒤 바쁜 전공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교양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우리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양 수업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전공에서 배우는 전문적 지식과는 별개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능

력, 의사소통 능력,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기초 교양 수업을 통해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찾게 된 교양수업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실제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인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다준 영향력 있는 과목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에세이를 통해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위 수업이 ‘인생 교양’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수강한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이라는 수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초학제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과목으로, 역사, 윤리, 마음, 감정 질병 등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철학적 주



제들을 다룬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기존의 분과학문을 연계함과 동시에 개별 학문을 뛰어넘는 미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현대 초학제 연구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방법론적 쟁점, 실천적 의미 등을 인문학의 미래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수업의 주 목적이었다. 더불어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초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과목으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과목이었다고 생각한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을 담당하신 천미림 교수님은 철학과 박사과정에서 미학과 과학기술학을 전공하고 수료 후 대학에 출강하며 예술철학과 과학기술학 등을 가르치고 계신다. 외부에서는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술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과 인간과 기술의 상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조정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셨다. 천미림 교수님은, 《노려본들 어쩔 것이냐》(2019-2020), 《미치지 않는》(2019) 등의 공동 전시 기획은 물론 《summer squeeze》(2020), 《네오서울: 타임아웃》(2019), 《스펙테이터》(2017), 《항시적 긴장상태》(2017), 등의 단독 전시도 기획하시며 외부 강연과 더불어 여러 매체와 전시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 연출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 우리는, 영화란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예술이자 학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천미림 교수님께서 과학과 예술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시며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듯, 우리 역시 예술대학이라는 한정적인 교육 분야에서 벗어나 인문사회 계열 교양 수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학습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싶었다.

화면 몽타주 이론 (편집 수업), 영화 촬영 이론과 실습 (촬영 수업), 대본 창작 (시나리오 작법 수업), 영화 제작 워크숍 (영화 제작 실습수업)은 모두 연극영화학과에서의 3년 동안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수업들이다. 영화 연출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무 위주의 수업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겨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촬영 현장에서의 능력은 키워나가고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피게니아 신화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가 당시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영화를 시청한 뒤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 동안 검색을 하였고, 그때야야 비로소 감독의 연출 그리고, 영화가 담은 주제를 파악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던 우리는 영화를 극찬하다가도 “우리가 이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을 하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쓴 시나리오들을 되돌아보며, 그 깊이감의 차이에 대해 반성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인문학 공부는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겨 소홀히 했던 우리의 부족한 자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봉준호 감독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전공하였고, 박찬욱 감독 또한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전공하였다. 이러한 감독들의 이력은 우리에게 영화와 인문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장만을 중시했던 우리 역시, 대학 졸업 전, 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인문 교양 수업들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찾게 된 수업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논쟁들을 다루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교양 수업인 만큼, 연극영화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다. 실제로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서 타 전공 학우들의 의견들을 보고 접할 수 있었고, 이는 영화를 하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자극을 주었다.

교양 콘테스트를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우리가 교양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교수와 제자들의 소통, 4차 산업에 대한 통찰, 본 전공과의 관련성, 등을 충족한 교양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수업이 떠올랐을 만큼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이라는 교과목이 갖는 특·장점들은 굉장히 많았다. 한편으로는 새롭고 어렵기도 했음에도 이 교양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수업을 들었던 한 학기 동안은 매우 바쁘고 힘들었지만 학기가 끝나고 돌아봤을 때 매우 뿌듯하고 얻은 것이 많은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 1 생각 넓히기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른 학우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전공자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주 온라인에 열렸던 토론 창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한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된 이야기,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류 역사에서의 유의미한 사건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그 동안 연극영화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한 어쩌면 생각해보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다른 학우들의 답변을 보고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의 생각을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이 틀릴까, 다소 부끄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거침없이 타자를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수업에서 이루어진 토론 과제야말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감독이 되고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2 생각 더하기

우리 대학교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에 속해 있는 이 교양과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어 예습 및 복습이 용이했다. 플립 러닝이란 온라인으로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수업을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미리 학습한 뒤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의 교재들로 선정된 책들은 ‘질병, 뇌, 감정, 역사, 진화, 윤리 등’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있었기에 쉽게 읽히지 않았다. 특히, 스타니슬라스 드앤의 <뇌 의식의 탄생>, 리사 펠드먼 배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같은 책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졌다. 이러한 책들이 나열되어 있던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학기 초반에는 매우 걱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강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며 없었던 배경지식을 쌓기도 하고, 책을 보다 쉽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주 교재와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뒤, 메인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수님이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지식과 함께 잘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도 녹화강의로 바뀌게 되었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교수님께서 이메일이나 온라인 피드백 란을 통해 소통을 잘 해주셨다. 더불어, 플립 러닝으로 제공되었던 온라인 수업은 과학기술철학 연구로 유명하신 이상욱 교수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양에서 두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3 생각 쌓기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은, 우리의 독서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다. 평소에 우리는 시나리오를 읽을 계기는 많았지만 책 읽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다. 책을 꾸준히 읽어야 시나리오를 쓰는 능력도 향상된다는 사실은 항상 인지하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업은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교재인 만큼, 책을 소화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솔직히 격주마다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긴 했다. 시나리오나 연극 대본들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뒤, 특히 비문학 책들을 많이 읽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 꾸준히 독서를 하며 잠자고 있던 뇌를 깨울 수 있었고, 멀리했던 비문학 책들이 사실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4 생각 나누기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생각나누기’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키워준 이 과제는 우리가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주에 한 번씩 2쪽짜리 ‘생각 나누기’를 제출하는 것이 이 수업의 과제였는데, 우리는 그 주의 교재로 주어진 책의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정보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의 솔직한 경험담들을 글에 담기도 하였다. ‘생각 나누기’는 우리의 생각을 주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각 나누기’를 통해 우리는 교수님과 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교수님은 우리가 제출한 글을 읽으신 뒤 구체적인 일대일 피드백을 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영화와 학생이 익숙해져야 하고, 또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다. 책 내용을 잘못 이해해 지적을 받기도 하고, 교수님을 설득하지 못했던 글도 있었지만, ‘생각 나누기’ 과제는 우리가 더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업의 진행 방식, 교재, 그리고 주어진 과제 모두 우리가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을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양으로 뽑을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이 수업이 우리의 가치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을 ‘인생 교양’으로 꼭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과목의 특징점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 그리고 촬영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인 우리에게 처음엔 다소 부담으로 다가왔던 ‘생각나누기’ 과제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을 넓혀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 5 이지현의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국가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생 관념이나 시민의식이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무서운 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경험이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살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도 교류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 덕에 나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글로벌한 시대에 이웃나라들과 함께 성장하고픈 목표가 생겼다. 또한 K-pop, K-뷰티, K-드라마가 중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교류를 하는 행사도 많이 참가했

고, 그들의 영향도 많이 받아 좋은 작품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나는 영화를 배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안고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을 수강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문화가 다뤄질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특히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은 내 진로와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터닝포인트가 된 책이었다. <제3의 침팬지>를 읽으며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책을 덮으며 내렸던 결론은, 세계인들의 피부색, 문화, 가치관, 전통이 모두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 나는, 지구촌의 모든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와 100프로 접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수업을 통해 세계와의 교류가 마냥 어렵지만 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 자신감에 힘입어 디즈니 영화들처럼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화를 찍는 연출가, 그리고 CJ 이미경 부회장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작품들을 외국에 소개하는 프로듀서가 되고자 하는 나의 꿈에 확신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던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인생 교양이다.

연극영화학과에서의 전공 공부는, 가끔 내가 예술을 배우는 것인지 기술을 배우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다. 두 가지 모두 배우긴 하지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아 어떠한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또 기술과 예술 중 나와 어떤 것이 더 잘 맞는지 헷갈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졸업에 가까워지며 연출자, 그리고 기술직의 갈래 길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의 교재였던 리처드 흄스의 <경이의 시대>를 읽고 자료 조사를 하던 중 고대에는 예술과 기술이 하나였으며 어원으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나의 고민을 해소해 준 새로운 지식이었다.

Techne(예술과 기술의 통합 개념)는 로마인에 의해서 Ars라고 변형되다가 후에 Art(예술)과 Technology(기술)로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즉 Techne는 기술과 장인 정신이 포함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지금처럼 과학자와 예술가가 나뉘지 않았으며, 예술가가 곧 과학자이고 과학자가 곧 예술가였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에 와서도 과학계 그리고 예술계 모두에서 인정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 또한, 흔히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역시 아주 높은 원리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영감에 의한 놀이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이의 시대>는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준 책이다. 이 책을 읽은 뒤 나는 연출과 기술직으로 진로를 나누어 고민하지 않고 기술과 예술의 어원인 ‘Techne’를 발전시켜, 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경이롭다”라는 표현은, 자연의 공식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과학과 낭만은 상반된 개념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느꼈다. 낭만주의 시대처럼 예술과 과학을 융합적으로 인식하여 더 나은 과학의 예술, 예술의 과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때문에 나 역시, 낭만(예술)과 과학 그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통합된 작품을 만들고 싶다.

## ❧ 김기연의 이야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어린 시절부터 방송 그리고 영화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 부모님이 추천해 주신 ‘독서 토론 수업’에서 매주 주어진 과제였다.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는 것보다, 같은 내용의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독서하기를 꺼려 했던 기억이 있다. 더불어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내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숙제를 해가지 않은 적도 있다. 내가 싫어했던 독서 토론 수업은, 우리 가족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면서 강제적으로 끝이 났지만, 국제 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는 학교에서, 그것도 영어로, 인생에서 두 번째 독서 토론 수업을 또 받게 되었다. Literature 수업이 있는 주에는 영화 DVD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에겐 꽤나 힘든 일이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두 번의 독서 토론 수업들이 값진 시간이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꿈수도 써가며 책을 최대한 안 읽으려고 한 적도 많지만, 그때 읽었던 많은 책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내 독서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 교육을 다시 받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문제집을 여러 권 풀었지만, 정작 하나의 책을 제대로 완독한 기억은 없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시절 동안 내가 싫어했던 독서 토론 수업은 고등학교에 와서는 나에게 강제가 아니었다. 때문에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책의 일부분만 읽고 문제 풀이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멈춰 독서를 멀리하게 되었다.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나에겐 불필요한 일이었으며,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당시의 나에겐 중요한 일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의 독서 공백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을 수강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바라봤을 때, 방송을 구성하고,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오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내 인생의 3 번째 독서 토론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수강하면서 하나의 책을 완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

기도, 비판적 글쓰기라는 과제를 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내기도 했지만, ‘콘텐츠 제작’이라는 내 미래의 업무를 우수하게 해내기 위해 이 수업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전에 글이 있어야 하며, 그 글을 정리해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창작자가 되고픈 나에게 글과 친해지도록, 그래서 독서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생 교양이다.

연극영화학과 학생이라면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 질문에 나는 한 명을 꼽지는 못해도 “놀란 감독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봐요.”라는 답을 하고는 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내가 왜인지 모르게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받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놀란 감독이 연출력이 뛰어나고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업계 최강이니 당연히 흥미롭다고만 생각하고, 뛰어난 연출력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선 타고난 재능일 뿐, 내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에서 에릭 캔들의 <통찰의 시대>라는 책을 읽으며 그의 영화가 “경이로운”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좋은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과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책은 1900년대 빈을 다루며 그곳에는 화가, 사업가,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토론을 하는 ‘살롱’이라는 공간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의학과 과학, 과학과 예술 등, 1900년대 빈에서는 초학제적 성향을 띤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오스트리아를 유럽의 문화적 수도로 만들었다. 과학과 예술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세기말 빈을 무대로 활약했던 화가들도 소개되는데, 작품 “키스”로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경우 빈 의학 대학에서 진단과 부검을 연구한 로키타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의학과 예술의 교류는 ‘빈 1900’의 특징이었으며 이 외에도, “김나지움”이라는 빈의 교육 기관에서는 인문학과 과학, 그리고 예술을 함께 가르쳤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합작품인 영화라는 장르는 더더욱 이러한 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놀란 감독의 SF 영화 제작에는 물리학자, 심리학자 등 과학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감독 스스로도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새로운 발상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터스텔라>의 각본가 조너선 놀란의 경우, 각본 작업을 위해 4년 동안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였는데<sup>1)</sup>, 이러한 그의 모습이야말로,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다양한 학문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 내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출은 재능

1) 조선일보, “인터스텔라의 놀란 형제는 누구?”,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7/2014112701656.html?relpm](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7/2014112701656.html?relpm), 2014.11.28

이 맞지만, 그러한 재능은 예술과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며,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 볼 수 있던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이 나의 융합적 학습의 첫 단추를 꿰매주었다고 생각한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수업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융합’이었다. 영화라는 학문이 흰 도화지라면, 다양한 지식과 생각들이 융합되어 도화지에 색칠될 때 다채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분과학문들이 영화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1년, 그리고 연극영화학과 학생으로서의 최종 과제인 졸업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저번 학기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이라는 교양 수업을 수강하며 다소 폐쇄적인 활동을 하였던 지난 학기들을 반성하기도 했다. 영화, 그리고 촬영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학우들에게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양 강의를 정말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수업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아이템, 그리고 스토리를 다룰 수 있는 영화인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 교양은 인문학, 사회학, 과학 등 영화 예술 외의 다른 분야의 학문들과 멀어져 있던 우리에게 ‘융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과목이다. 우리가 미래에 좋은 연출, 좋은 제작자가 되어 있다면, 이 강의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과, 이 강의를 통해 변화한 우리의 가치관이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다. 졸업 전 위 수업을 수강하며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그 시간이 정말 값졌기 때문에 ‘초학제 시대의 미래 인문학’은 우리의 ‘인생 교양’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대학 교양 수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교양 콘테스트’ 역시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학우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꼭 소개해 주고 싶다.

#### 참고문헌

- 조선일보, “인터스텔라의 놀란 형제는 누구?”,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7/2014112701656.html?relpm](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7/2014112701656.html?relpm), 2014.11.28

##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열린 성찰의 자세

송 아 름 (철학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원리에 대하여 가볍게나마 고민해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나 또한 그러한 고민에 빠졌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나의 기반을 이루는 추상적이고도 거대한 패러다임, 나아가 철학을 사는 인간으로서의 그저 경이롭기만 한 우주적 공간에 대한 의문까지...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었고 좀처럼 해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에는 끝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주체인가?”, “나 이외의 타인은 온전히 타인인가?”, “형체도 없는 가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대의 분절은 언어적 표현 이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하나의 물음만 붙잡고 있기에 도 박한 상황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새로운 물음에 피로해지기도 했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철학적 논의를 거울삼아 존재론적 고민에 깊이를 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사유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다만, 모든 철학적 물음은 인간의 삶의 맥락을 공통적 토양으로 삼아 제기된다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명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철학적 사유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삶의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다름 아닌 물리적 세계의 존재였다. 경험을 통한 인식의 내용과 그로부터 내린 각자의 결론은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오류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에게나 부정할 수 없는 ‘참’이었다. 과거의 인간과 현재의 인간이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인간까지도 공유할 공통의 기반이기도 했다. 이에 실재적 세계의 이치를 밝히는 물리학적 관점에서부터 나의 질문들을 되짚어 돌아보아야 할 새로운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물리학과 소속의 김찬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을 수강하기까지의 계기가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물리학은커녕, 과학과는 거리가 먼 나였지만 수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읽어보았던 강의 계획서는 낯선 학문에 다가서고자 하는 고민에 좋은 지침이 되어주었다. 과학 혁명이 인류의 세계관을 변혁시키고, 현대물리학 혁명이 다시 고전물리학을 변혁시키기까지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고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강의. 새로운 시야로의 전환이야말로 내가 목표하던 바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도전의 이유가 충분했다.

## 1 물리학으로 바라보는 물리학 너머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물론, 인간의 신체, 희미한 빛으로나마 느껴지는 우주 너머의 은하까지도 모두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특히, 인간의 신체는 대략 60종류의 원자가 무수히 모여 있다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는 완전히 동일하므로 구별이 불가능하고, 때문에 서로 다른 물체들 사이에서 원자가 바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인간의 일생 동안에도 원자는 1년에 98% 정도가 수시로 교체된다고 한다. 머나먼 과거에 데모크리토스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원자가 지금은 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름도 모르는 별의 일부를 이루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토록 변화무쌍한 원자의 세계는 우리의 분별적 인식에 근본적인 혼란을 일으킨다. 수없이 변화하는 원자의 구성에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추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인식의 과정은 의미가 있는가? 애초에 나 자신을 가리켜 정말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리적 본질로서의 원자에 대한 이해가 다시금 마음, 정신, 인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문득 떠올린 것은 불교 철학의 교리를 관통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방식이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일체의 존재가 찰나적인 생멸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연이 화합하고, 다시 화합이 다하기를 반복하면서 일상적인 존재의 인식이 성립한다고 이해한다.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따라서 만물의 본질이 무(無)이고 공(空)이다. 이러한 만물의 해체를 통하여 불교 철학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 가까운 일상적 사고의 방식을 부정하고, 실제 없는 집착을 경계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물리학에서의 원자와 불교 철학에서의 인과론적인 업보의 화합을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상의 존재를 하위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야기하는 공통의 관점에서부터 바라보는 세계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두 개의 렌즈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대상을 확대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망원경처럼, 내가 평소에 고민해왔던 철학적 고민에 물리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세계의 탐구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리학이 이루는 학문 간의 통섭이 여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 2 시간 여행의 물리학과 인간의 본질

시간 여행은 문화사적으로 인류에게 무척 매력적인 소재였음이 분명하다. 인위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사건을 바꿈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다. 개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명작으로 회자되는 『터미네이터』, 『백 투 더 퓨처』와 같은 영화들 또한 시간 여행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일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을 자유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되돌린다는 가상의 행위에 모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법칙이 있는 다음에서야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과율이 깨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시공간을 마주하면서도 결국 과거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던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과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어떻게? 우주의 모든 존재는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소멸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그 시간은 정지한 상태의 물체의 시간보다도 천천히 흐른다. 다시 말해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보다 짧은 시간 동안 보다 먼 미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에서도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관이 보다 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관인 셈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의 한 구절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각자의 시간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는 시간 여행자들이다. 우리의 시간 여행은 소멸을 향하여 정해진 경로를 나아가는 순차적인 흐름이지만, ‘죽어가는 것’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삶을 일구어나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우리의 몫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불안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존재의 이해에 도달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현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소멸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 전체에 불가피하게 닥쳐올 운명적 결말이지만, 그러한 필연적인 유한성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창조해나가는 주체성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 인류의 역사를 이끄는 상상의 동력

빛의 본질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왔다. 빛이 입자라는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파동설을 제시하면서 반박하였고, 빛이 입자라는 뉴턴의 주장이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파악한 호위헌스와 후크의 주장보다 우세하기도 하였으며,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하여 파동설을 지지하였고, 맥스웰 또한 맥스웰 방정식을 도출해내면서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인슈타인에 이르러 광전 효과를 토대로 다시 빛의 입자설이 부활하였다. 얽치락뒤치락하는 긴 논쟁의 역사를 뒤로 하고 현대물리학에서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비단 빛에 대하여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드브로이는 모든 입자가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는 ‘입자-파동 이중성’을 제창하였는데, 확률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그러한 이중성의 기반을 이룬다.

양자역학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물자체의 존재 양식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의 모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양자화 가설을 세우고 흑체 복사를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플랑크, 광양자설을 통하여 입자로서의 빛의 성질을 밝힌 아인슈타인, 물질파 이론을 주장한 드브로이,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되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뢰딩거와 같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비판하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기도 하면서, 양자역학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완성되기까지는 3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역학은 현대물리학을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적 미시 세계의 근본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는 양자역학적 효과가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구성부터가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용하는 전자제품은 물론, 우리 자신의 존재까지도 사실은 전부 양자역학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을 둘러싼 전후의 물리학적 태동은 서구 과학의 전통적 방법론이었던 결정론과 환원주의를 부정하고, 비결정론과 전일주의를 주류 과학의 영역에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입자의 상태와 파동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의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일상적 거시 세계와 확률이 중첩되어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혼재하는 양자적 미시 세계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대립쌍처럼 보이는 관계에서도 어느 하나가 틀리고 다른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름의 영역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이러한 양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공존과 조화의 가치를 일깨우기까지 한다. 프리먼 다이슨은 그의 저서 『과학은 반역이다』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과학은 그 위에 덧입혀진 선입견에서 벗어나 모든 도구를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변창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때마다 늘 뜻밖의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진다. 자연의 상상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sup>1)</sup>

인간에게 주어진 인식적 능력 이상으로 보다 작거나, 보다 큰 차원에서의 세계를 그리는 상상을 동력으로 하여, 물리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발견에까지 도달해왔다. 상상이 상식에 가로막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상상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물리학의 양면을 모두 마주할 수 있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자 애를 쓰면서도, 강의가 끝나갈 무렵이면 금세 지나가버린 75분의 시간을 아쉬워하고는 했다. 수업 시간이 언제나 시간표 그트머리였기 때문에 강의가 있는 날이면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교정을 나서야 했는데, 하루의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어간다는 안도감 섞인 피로를 느끼는 그 순간이 나에게서는 무척 보람찬 시간이었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을 수강하기 전이었다면, 교정을 걸으면서 바라보는 노을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을이었겠지만, 나는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갈릴레이로 이어지는 지동설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빛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의 오랜 물리학적 논쟁을 되짚어볼 수 있었고, 태양 너머로 무한히 팽창하고 있을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시야를 넓혀나가는 일은 이 강의를 통하여 발견한 지치지 않는 즐거움이었다.

그러한 즐거움이 수업 시간에서의 즐거움만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은 강의를 통하여 물리학과 막연한 낯가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은 복잡한 공식의 풀이보다도 다양한 물리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대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인류의 역사에서 물리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업이었다. 말하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수식( $\Delta x \cdot \Delta p \geq h$ )에서  $\Delta x$ 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고  $\Delta p$ 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치와 운동량의 표준편차를 왜 곱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불확정성의 원리가 고전물리학사에,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이야기하는 수업이었다. 또한, 완벽한 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때때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라이벌에게 치사한 경쟁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물리학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물리학은 천재들만의 학문이 아니다.” 학기 초의 수업에서 김찬주 교수님께서 수강생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이다. 학자로서의 저명도, 능력의 우열 따위의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탐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

1) 프리먼 다이슨, 김학영 역, 『과학은 반역이다』, 반니, 2015, 38쪽.

이 모여서 이루는 조화를 통하여 발전해나가는 학문. 그것이 내가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을 수 강하면서 배우고 느낀 물리학이다.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강의 분위기 또한 친숙하고 편안했다. 강의를 수강하기 전 읽어보았던 강의 계획서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수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물’ 항목에 ‘(언제, 어디에서나 망설이지 않고 무엇이든 질문하기 위하여) 두께 1cm의 철판으로 제작된 가면’이라고 쓰인 내용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김찬주 교수님께서도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강의에서의 설명 이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수업 도중에도 언제든지 질문을 망설이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덕분에 수업 시간은 언제나 생생한 배움의 현장이었다. 수업 시간에 미처 질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궁금증은 사이버캠퍼스의 익명 게시판을 통하여 교수님께 답변을 듣거나 학생들끼리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는데,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강의에 대한 감상이나 시험공부의 고충까지도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으면 하루에 열 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기도 할 만큼 한 학기 동안 활기를 잃지 않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서나 익명 게시판에서나, 수강생들의 질문은 언제나 질문 그 자체로 받아 들여졌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가치 있는 질문과 무가치한 질문으로 급을 가르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신의 질문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을 수 있었다. 나도 익명 게시판에 몇 번 글을 올렸다. 수업 시간에 문득 떠올랐던 노래의 가사를 공유하기도 했고, 사랑과 같이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신적 가치가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 어떠한 질문도 망설이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 물리학적 세계관을 일상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가교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KOCW와 K-mooc 플랫폼에서 언제든지 지난 강의의 내용을 찾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거나 잊어버린 내용을 복습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속과 무관하게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강의가 열려있었으므로, 내가 경험한 놀라운 사고의 변혁을 다른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했다.

수 세기에 걸치는 물리학적 발견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가장 논리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확정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강의를 수강하던 당시의 나에게는 종종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렇게 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고, 이렇게나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도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니. 그렇다면 불변의 진리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학이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식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학설들이 탄생하고 수용되어올 수 있었다. 갈릴레이에 의한 지동설의 입증이 그러했고, 다윈의 진화론이 그러했으며, 프로이트에 의한 무의식의 해부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역사는 지식의 근간은 물론, 인간과 세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지 않았던가. 나아가, 오류의 가능성이 어떠한 가치적 판단과도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이 가지는 오류의 가능성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과학적 혁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나, 책에서나, 방송에서나 줄곧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실용과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수많은 발견과 발명의 역사, 그러한 역사의 산물을 자유롭게 누리는 생활에 나는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 출처를 묻지 않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으로 마주하는 지식들은 잠깐 머무르다가 쉽게 잊히기 마련이었다. 게다가 편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무엇을 하나하나 캐물어 분해하는 짚지 않은 과정이 불필요한 소모로 느껴지기도 했다. 철학을 전공으로 삼아 공부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산발적인 질문들에 지치는 순간들 또한 적지 않았다. 앞선 시대를 살아간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날카로우면서도 유려한 질문과 통찰에 감탄하는 동시에 깊은 회의에 빠지고는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을 수강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나는 이 강의를 통하여 물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끼고자 했고, 학기를 마무리할 때 즈음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낯설고 울퉁불퉁한 나의 질문들조차도 얼마든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평소와 같았더라면 어렵게만 느껴졌을 물리학이었겠지만, 그러한 물리학의 진보를 이끄는 다수의 주역은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현대물리학은 결국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유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룩한 지적 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것,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을 수강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큰 격려이자 위로로 다가왔다. 이러한 순간들을 차례로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물리학의 영역을 삶의 일부로써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고의 변혁은 어느새 나에게서도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찬주 교수님께서 물음표의 연속 이후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느낌표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세계에 대한 나의 존재론적 고민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채이고, 언젠가는 해답이라고 부를만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많은 물음표 끝에 찾아온 마음의 느낌표는 삶이라는 거대한 여정에 멋진 이정표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대학생으로서의 네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고,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이 종강을 맞이한 이후로 짚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개강에서부터 종강까지의 시간 동안 느낀 설렘과 즐거움, 보람, 그리고 아쉬움만큼은 생생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채이다. 만약 물리학적 법칙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망설임 없이 이 강의를 수강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느낌

표를 찍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인생 교양’이라는 값진 경험으로 기억되리라고 확신한다.

## 참고문헌

- 김찬주, 「원자로 구성된 나 - 만물은 원자」, 네이버캐스트 물리산책, 2009. 05.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324&cid=58941&categoryId=58960>
- 김찬주, 「시간의 방향성 - 시간의 흐름」, 네이버캐스트 물리산책, 2010. 05. 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417&cid=58941&categoryId=58960>
- 프리먼 다이슨 저, 김학영 역, 『과학은 반역이다』, 반니, 2015

## 삶의 경계를 넓히다

이 다 연·배 세 진 (문화인류학과)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The Global village.

2020년, 현대 인류의 삶은 국적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마을, 지구촌’이라는 배경 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나라 간, 사람 간 직접적 교류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SaveHongKong’, ‘#BlacklivesMatter’ 등의 사회적인 움직임을 함께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연대하며 또다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나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이어나가게 될 시대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희 둘은 그 답을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수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맥클레르데브라 교수님에 의해 운영된 본 수업은, 수강생들과 영어로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영어의 기본적인 4skills<sup>1)</sup>를 향상할 수 있게끔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국적, 다문화 경험자로 구성된 20명 남짓의 수강생들은 이러한 목표 하에 서로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수업 계획서에는 ‘Intermediate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함’이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에 버금가는 실력의 소지자부터 초보 수준의 학생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수업에 모여 매주 토론과 조별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으로 본 수업을 수강하였던 저희는, 저희 둘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영어 문화권 거주 경험자이자 영어권 국적 소지자였다는 점으로 인해 초기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력에 상관없이 ‘발표자’, ‘토론자’ 등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적절

1)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한 분량으로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교수님 덕에 수업이 끝에 달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수업은 특정한 교재를 중심으로 운영된 수업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교수님이 또 때로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매 수업마다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주 교수님이 학습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는 예습 자료를 읽고 가야 했으며 매주 랜덤 조활동이 필수였기 때문에 각자 조원들과 논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정리를 해가야 했습니다. 논할 수 있는 주제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주로 전 세계적인 화두거리들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도 BBC나 CNN 등의 실시간 뉴스를 참고하며 조원들과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2 수강 동기

위에서도 언급했듯, 저희가 본 수업을 수강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한 가지는 사회과학도로서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접하는 영어는 어휘나 구사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비단 수능 공부나 여타 교양의 수준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요구했으나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부생 수준이지만, 과제를 수행하거나 그 이상으로 학문을 파고들 때마다 흔히 말하는 ‘언어의 장벽’을 느꼈던 저희는 사회과학을 보다 심화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학구적인 차원의 영어 실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해외 학교로의 파견 프로그램, 다시 말해 교환학생 경험을 대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학 경험이 거의 없이 한국에서 한국어로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데에 익숙해진 저희는 영어 강의와 그간 겪은 적 없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그리고 타 국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이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차원의 커다란 성장과 변화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 3 해당 교과목의 특·장점

### 1) 학구 능력의 발전: 영어 실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 수업은 당연하게도 저희의 학구적인 영어 실력을 크게 성장시켜주었습니다.

저희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의 4skills에 위시해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은 매주 다른 국제사회 담론에 대한 기사나 에세이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재구성해 쓰며, 다른 학생들과 주고받는 랠리와 같은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사회과학과 연관된 전문성 있는 영어 단어와 글, 그리고 담론을 공부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한 학기동안 영어를 계속 접하고 익히게끔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문제 풀기’가 아닌 저희에게 직접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국제사회 이슈를 알아가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짧은 글에서부터 점차 긴 사회과학 에세이를 완성하며 영어 작문 실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했고, 대본 없이 완성도 높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스피치 실력을 키우고 언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문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레젠테이션의 발화자로서 어떻게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스피치에 힘을 실어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실천 경험을 통해 상세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자란 학생들과 매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본 수업에 있어 매우 주요했습니다. 수업 구성원들 각각의 출신지와 성향만큼이나,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둘 이상 소규모의 조를 꾸려 롤플레이를 하거나, small talk을 연습하며 긴장감을 품과 동시에 사고 능력을 높이고, 짧은 즉석 스피치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눈 토론까지 함께 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어투와 몸짓 등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듣기 전까지 간과하고 있던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본 수업은 자신이 직접 꾸리는 사회과학 자료집인 HSS 블로그<sup>2)</sup>, 즉 매주 학생들이 직접 영어권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모아 요약하고 하나의 토론거리로 정리해야 하는 개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이루어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이 신뢰성 있고 질 좋은 자료를 찾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학생들은 매주 이런 과정을 통해 영어로 된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데에 친숙해졌고, 이로써 디지털 리터러시를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공신력 있고 핵심적인 정보를 찾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2)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약칭함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의 개별적인 멘토링과 관찰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세세한 조언을 즉석에서 얻으며 매주 열정적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모두가 서로와, 그리고 교수님과 마주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ㄷ자형 소통 중심 구조의 교실에서, 또 보다 사적인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일대일 면담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전인적인 관계를 맺고 학생의 동기부여와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 2) 세계관을 확장하고,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돕다.

두 번째로 저희는 본 수업을 통해 진정한 세계시민의식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 문단에서도 언급하였듯 중국, 캐나다, 미국, 리비아 등 다국적, 다문화의 구성원들과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저희는 각자의 의견과 문화의 차이를 인지해갑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알기 어려웠을 문화 차이에 따른 사고 및 대화방식의 차이를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점차 많은 활동과 수업을 함께 할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다문화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수업'의 진가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와 관련해 각국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나눌 때 더욱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다연은 당시 한국에서 화두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과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때 리비아와 남미에서 살다온 친구들과 함께 조를 구성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문화를 겪었을지라도 논의에 참여한 세 사람 모두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였고, 특히 리비아에서 온 학생이 본국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랍권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여러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그 상황의 당사자이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보다 사실적이고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성에 대해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을 것이다'와 같이, 그 친구가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겪었던 여러 차별들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할 때 한국인으로서 자국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 가져오는 '최신의',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잘 알지 못했던 세계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로는 첫 수업에 다루었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하 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에 관한 내용과 미얀마의 로힝야 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환경 및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목표로, 저희는 본 수업에서 이 개념을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키워드로만 정의되어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와 연관지어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해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온 좋게도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실제로 국내외 기업 프로젝트나 교내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곳에 참여할 때마다 이 지표가 기준으로 쓰였기에 보다 상세한 이해와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로힝야 족에 대한 내용은 당시 듣고 있던 다른 전공 수업에서도 배우고 있었기에 두 수업의 관점을 어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로힝야 족이 난민이 된 전반적 흐름을 초점에 두고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본 교양 수업에서는 로힝야 난민의 현상학과 미얀마 정부의 반응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전공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미얀마와 로힝야 족의 현 상황을 접했기에 본 수업에서의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 더욱 이해가 쉬웠습니다. 나아가,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난 논문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전공 수업과 달리 본 수업은 최신 기사와 자료를 다루었기에 '최근의' 반응, 나아가 로힝야 족을 사실상 외면한 아웅산 수치의 모습 등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수업의 다른 시각을 동시에 접하며 로힝야 족의 상황, 나아가 미얀마의 난민 상황에 대해 더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수업은 경영학부터 정치외교학까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 논할 때는 정치외교학과 친구들의 이론적 지식을, 사회 구조에 대해 논할 때는 사회학과 친구들의 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인원이 채 100명이 되지 않는 소수 학과의 학생으로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을 동시에 접하고 그들과 열렬히 논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생각의 지평을 틔울 수 있었으며, 국내와 학과 내 지식에만 머물렀던 좁았던 시각을 국제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으로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 4 해당 교과목이 “인생교양”인 이유

결과적으로 저희는 영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에 따른 차이를 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흥미와 문제의식을 갖추며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방법을 배웠고, 궁극적으로 더 넓은 시야와 세계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경계 없는 세계'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교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진로의 범위가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에서 타문화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알맞은 자세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구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본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발휘하며 다음과 같은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기에,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인생교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 5 성장 스토리

### 1) 세진, 낯선 타지에서 교환학생 경험을 발전시키다.

계획되었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도착한 낯선 타지에서 저는 예상보다 많은 자교와 타교의 한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면, 현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려는 노력보다도 ‘한국 학생들끼리’ 생활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들과 다름없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좁았던 세계관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넓히려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는 의지가 싹트고 있었기에 현지 학생들에게도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막연했던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룸메이트부터 시작해 기숙사 안에서 마주칠 수 있던 수많은 현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영어로 소통했습니다. 나와 너무나도 다른 현지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반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기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차이의 어려움’은 ‘차이의 흥미’로 바뀌었습니다. 간혹 국제적 이슈가 화제로 떠오를 때도 의견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내 의견을 영어로 전달하고 현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즐거운 노력의 나날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저는 현지 학생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나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현지 수업에 참여할 때도 본 교양 수업을 통해 이미 쌓아둔 학술적인 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과학 담론들을 영어로 다루는 데에 훨씬 익숙해졌기에 영어 논문을 비롯한 자료들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고, 현지 학생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매번 과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에서 얻은 기술을 활용해 저는 영어 수업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오히려 더 넓어진 세계관에 만족하며 가치 있는 교환학생 경험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제 능력과 경험을 연장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진로로 나아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2) 다연, 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 <E-vengers>를 꾸리다

본문 중에서도 언급하였듯 저는 본 수업에서 처음 접한 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교내활동 및 대회에서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후원해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중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2020 Workstation>에 지원해 참가팀으로 선정되었고 현재에도 팀원들과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배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보다 당사자성을 갖고 환경에 대해 자발적이고 심층적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팀 <E-vengers><sup>3)</sup>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지의 청소년들과 zoom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가치에 대해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2020 Workstation>의 일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혁신원 측에 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당시 함께 팀을 꾸렸던 다른 친구는 해당 내용을 지원서에서 처음 접하였지만 저는 본 수업에서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팀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vengers>의 소셜 미션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목표를 해결함에 있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내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b 결론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문화 안에서만 머무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계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삶의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능성과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스스로 변화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수업은 그간 들었던 일반적인 교양 수업에서 얻은 것과는 다른

3) 홈페이지 주소 <https://www.evengers.org/>

차원의, 저희가 좁은 세계의 경계를 넘기 위해 필요로 하던 융합적이고 역동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한층 성숙해진 세계시민으로서 각자의 경험에 배움을 녹여내어 발전할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나아감에 있어 전문성을 뛰어넘는 귀중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수업에서 얻은 배움을, 우리는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며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The Global village.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삶을 꾸릴 모두에게 이 수업은 ‘인생교양’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이상국. “태국 거주 미얀마 카렌족 난민의 생계추구 양상에 관한 연구: 국가, 국제구호기구,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東南亞研究 22.2 (2012): 207-234.
-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 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내 삶 이정표

### : 창의적 사고와 코딩

문채원 (간호학과)



#### 1 ‘도대체 간호학도가 왜 코딩 수업을 들어야하지?’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수강 신청을 위해 시간표를 짜며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양 중 ‘창의적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의 이름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아마 우리 학교 많은 학생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산업, 모든 직업이 소프트웨어 영향을 받게 됨으로 코딩을 배워야한다는 교수님의 말에, 과연 간호학과를 졸업해 간호사로 일하며 코딩을 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수업이 끝난 이후 나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을 들은 것이 내 인생의 방향점을 잡아주었다 생각한다. 또한, 졸업한 이후에도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이디어를 창안할 때, 이 수업을 되돌아보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이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법을 가르쳐 주며 내 삶을 코딩해주었다 말하고 싶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 디자인 씽킹 기반의 SW사고 기초를 정립하고 창의성과 상상력, 흥미를 유발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창의적 사고란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질문으로 정의 되고 코딩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상황을 인식하며 코딩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의 특징 중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 ‘협업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공동체 참여능력 역시 함양할 수 있다. 나 역시 한 학기동안 팀을 이끌며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들의 마음을 잘 모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에서는 한 학기동안 디자인 씽킹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다 디자이너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의 모든 문제를 융합적인 방법을 통해 디자인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하여 해결하는 과정이다.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만들기, 모형제작, 테스트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은 비 전공자도 누구나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접근법이다.

이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디자인 씽킹 방법론에 대해 알려주고 예시를 소개해주시며 수업을 진행하시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개개인의 프로젝트에 접목시킴으로써 한학기동안 수업이 완성해 나간다. 즉, 교수님은 이 수업의 길잡이이며 직접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나 것이다. 다른 수업들처럼 교수님으로부터 획일화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독창적인 수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과목에서 배운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한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이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나만의 수업, 나만의 프로젝트의 모든 이야기 해보겠다.

## 2 '경험을 빌려드립니다'

21살, 현역과 재수의 입시 실패로 학창시절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에게는 커다란 번아웃이 왔다. 그리고 우선 성적이 되는대로, 생각에도 없었던 생명과학정보학과에 입학하게 된 나는 중학생 이후 처음으로 공부를 단 한순간도 신경 쓰지 않고 동기들과 '놀았다'. 그렇게 1년, 또 1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2년을 보냈다. 3학년이 되기 전 겨울, 열심히 학과 기말고사 공부하는 동기들을 따라 도서관에 따라와 책 앞에서 공부하는 척만 하던 내 머릿속으로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나는 죽어있다'라는 것이다.

당시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나는 학점을 왜 잘 관리해야하는지,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삶을 '살아내기'보다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내 청춘이 이렇게 끝날까봐, 이 태도로 내가 평생을 살까봐 두려워졌다. 그리고 이 감정이 들 때 즈음, 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그나마 잘 한 것이 인간관계라 생각했고 언제나 진심은 사람을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였는데, 당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자 나는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 삶은 이 사건 이후에 180도 달라졌다. 지금의 나는 그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목표한 것을 실현시키며 '살아내고 있다'. 스스로를 한국 24세 중 가장 열심히 살고 있다 소개하는 지금의 나를 만든 언뜻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안에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좌절하고 있던 나는 여러 사람의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나에게 나누어진 경험은 '사랑, 진심, 나눔'이다. 학생회장이었던 '이형민'씨는 나와 함께 학생회를 하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려고 노력했고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다.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그는 한 통의 전화를 했고 나의 상처가 단순한 힘듦, 고통을 넘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긴 트라우마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살며 여러 일을 겪었지만 분명 나의 주위에 분명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자신이 상처를 받고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만큼이나 빈다며 진심으로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진심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내가 그동안의 나의 진심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극복하고 일어나는 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나에게 나누어진 경험은 '자존감과 열정'이었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나는 무작정 대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신지민'씨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대외활동이 끝난 이후,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가지게 된 자리에서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 그녀가 진취적으로 살게 된 배경, 그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여러 지혜들을 듣기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나 역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상상이 미래의 나의 스포일러이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터무니없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다.

세 번째 경험은 '도전'이었다. 사람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나는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다.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수능을 다시 치르기로 결심한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4개월 만에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나의 선택을 만류했다. 그렇게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나조차도 이때까지 게으르게 살아온 나 자신이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괴로웠다. 그 때 내 친한 친구인 '권순준'씨는 나에게 자신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을 선택한 경험을 들려주며 '머리로의 이상을 꿈꾸고 현실에서 치열한 노력을 하라'라는 말을 알려주었다. 친구가 들려준 경험에 나는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매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믿고, 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매일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만큼 노력하며 보냈다. 그 결과, 나는 만족할만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나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들은 계속해서 나를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누군가는 행복은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던 나에게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경험을 들려줘 나 역시 행복을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누군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서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던 경험을 들려주며 나에게 ‘끈기’가 가득한 경험을 들려주어 나 역시 내 삶에서 끈기를 키워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내 삶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경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처한 역경 속에서 누군가의 경험을 공유받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상상만 하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러한 이상을 생각만 하던 나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께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배우게 되었다. 가장 먼저 어떤 주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보라는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삶에 있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험’이 주제로 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가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정된 경험만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하지 못한 삶은 경험해보지 못한다. 또한, 개인의 인간관계의 폭에 따라 쉽게 듣거나 접하지 못하는 경험 역시 많이 존재하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쉽게 경험을 들려달라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던 중, 나는 우연히 한 논문에서 ‘사람도서관’의 존재를 알게되었다. ‘사람도서관’은 덴마크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창안한 이벤트성 도서관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생기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모임이다.

그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도서관이 합쳐진다면, 내가 겪은 놀라운 변화들을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경험, 청춘,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저장해 언제, 어디에서나 다수에게 책을 빌려주듯 경험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도서관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에서 나오는 경험의 빈자리를 채우며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경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누군가의 경험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활용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디자인씽킹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 중심에서 공감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의 정확한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콘셉트와 화면 구성에 대한 요인까지 알 수 있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터뷰를 통한 ‘이용자 스토리’를 담고자 하였다. ‘이용자스토리’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정의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였다. 그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해외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20살, 서핑을 취미로 하지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회사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타인의 관점을 확인해보고 싶은 사회 초년생 등 다양했다. 그들과의 인터뷰 끝에 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바로 ‘직업별’, ‘취미별’, ‘이슈별’, ‘스토리별’ 경험이었다. ‘직업별’ 경험에서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을 대여해볼 수도, 자신이 꿈꾸는 직업의 경험, 자신이 필요한 직업의 경험을 대여해 도움을 얻고 대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취미별’ 경험에서는 여러 취미를 공유하고 관심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의 경험을 대여받음으로써 관련 취미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이슈별’ 경험에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다른 관점을 나눌 수 있다. 사람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어떠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며 다양한 관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큰 세상을 보는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스토리별’ 경험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진솔하게 담은 것으로 나의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내가 상처를 극복했던 방법, 어려웠던 도전 이야기 등을 데이터로 담고 그것을 누구나 대여할 수 있게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카테고리라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내가 선정한 이 네가지 분류가 모든 경험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정의하기’이다. 공감 단계에서 관찰한 결과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다양한 ‘문제 정의 하기’ 방법 중 나는 ‘가상의 표본사용자’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의 생각이나 행동을 가정하고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페르소나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을 정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주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어플에서 얻는 불편사항과 나의 어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해 적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 내가 만든 페르소나를 이용해 ‘사용자 경험 분석’을 진행했다.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페르소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인터뷰에서 행동 패턴에 대한 질문, 서비스 사용 중 긍정,부정적 견해를 청취하고 감정변화로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기존의 경험 어플에서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만들기’이다. 앞선 페르소나 단계에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들이 손쉽게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나는 ‘마인드 맵’을 활용하였다. 먼저, 이용자 스

토리에서 사람들이 걱정할 ‘보안성’ 문제를 해결 해야겠다 생각하여 이상한 목적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심층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서전’을 쓰듯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자서전’ 코너와 삶에 있어 단편적 기억들과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백과사전 : 백문백답’ 코너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 두 방법을 과거, 현재, 미래 별로 나누어 기록하여 손쉽게 경험 제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데이터화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제공자를 비롯해 이용자도 보다 편하게 누군가의 경험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직군별, 이슈별, 취미별, 경험별로 나뉜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더 세분화해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어떻게 나누면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사회, IT/과학, 세계, 그 외 의 장르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자신이 담은 경험을 자신만의 SNS에 연동해 옮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아 이러한 성질 역시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한눈에 사람들이 보고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메뉴구조도로 관계추상화를 진행하고 알고리즘화 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도를 기반으로 가상화면을 구현하여 나의 이상을 최종적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씽킹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나의 프로그램을 ‘스크래치’를 이용해 간단한 코딩을 진행하여 실제로 간단하게 어플을 코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실 코딩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낯설었지만 교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물을 만들어 내려 노력했다. 과거의 나였다면 끈기도 책임감도 없었기에 쉽게 코딩하는 것을 포기했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나의 프로젝트’라는 애착감이 생겼고 이는 나에게 책임감과 끈기를 길러주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코딩 화면을 잡고 있기도 하며 끝끝내 어플을 코딩하는 과정까지 마침으로써 나는 상상만 해오던 이상을 현실에 가깝게 구체화하고 접근성을 높힐 수 있었다.

## 4

#### ‘내가 생각한 이상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공감해준다고?’

우리 대학에서는 이 교양에서 시행한 프로젝트들을 교내 대회인 ‘창의력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날, 나는 교수님께 나의 프로젝트가 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창의력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748팀 중 40팀 안에 들어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듣게 된 소식은 더욱 놀라웠다.

나의 프로젝트가 선발된 748팀에서 선발된 40팀 중 10팀에 들어 ‘크레이티브톤’대회에 자동진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크레이티브 톤’대회에서 나의 프로그램과 나의 이상과 삶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며 이 어플의 효용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함을 어필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였다. 내가 생각한 나의 프로그램의 효용 가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에게 한정적인 경험을 ‘사람’에게 공유 받음으로써 확장시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건강한 자극을 얻으며 그러한 자극이 개인의 삶에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경험과 청춘을 기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 역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나의 생각과 성장과정, 그리고 내 프로젝트의 효용가치를 담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출하였고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실제 어플로 제작되어도 손색이 없을만한 아이디어라는 너무나 감사한 찬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왜 삶을 열심히 살아야하는지 이유도 찾지 못한채 살아가던 학생이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스스로 변화해 748팀 중 우수상을 타고 훌륭하다는 칭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스로가 죽어있다 생각하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던 내게 일어난 이 변화가 나는 너무도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나를 바꿔놓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로부터 건강한 자극을 얻으며 상생하는 사회이다. 혼자만 꿈꾸던 이 이상을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었고 나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또 다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내는 데에 큰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창의적사고와 코딩’을 들으며 내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나의 이상에 가까워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 과목이 내가 나의 삶을 한계 짓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생각한다.

이 교양 과목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동안 나의 소중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보완하고 많은 사람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 언젠가 ‘위드 : 사람을 담은 도서관’의 현실 어플을 만들어 나의 이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겪은 놀라운 경험들처럼 모두가 다양한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함께 발전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 나의 원대한 꿈의 발판이며 그 시작을 함께 해준 아주 소중한 과목이 될 것이다. 나의 어플이 세상에 보여 지는 그날을 위해 지금의 나는 매일매일 자기발전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2020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수상작 모음집

---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발 행 일 2020년 12월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전 화 02) 6090-3951 ~4  
홈페이지 <http://www.konige.kr>  
제 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